

석사학위논문

주제 중심의 제주도 민요 지도방안 연구

-‘제주 알기 프로젝트 학습’을 통해-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음악교육전공

강 은 심

2013년 2월

주제 중심의 제주도 민요 지도방안 연구

-‘제주 알기 프로젝트 학습’을 통해-

지도교수 변 미 혜, 성 기 련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초등음악교육)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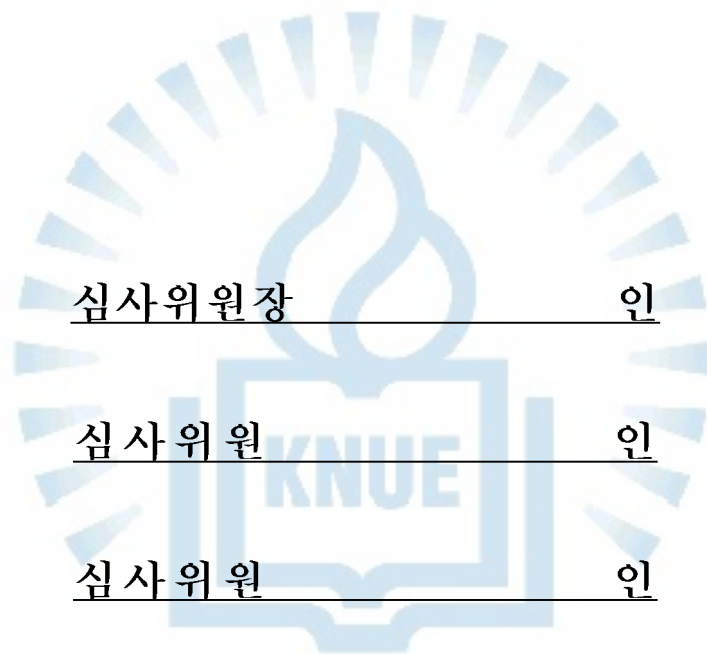
초등음악교육전공

강 은 심

2013년 2월

강 은 심 의

교육학석사(초등음악교육)학위 논문을 인준함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2013년 2월

목 차

논문요약	v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
3. 연구의 제한점	4
II. 연구의 기초	5
1. 선행 연구 고찰	5
2. 교육과정 및 교과서의 제주도 민요 관련 내용 분석	8
3. 제주도 민요의 특징	13
III. 제주도 민요의 지도내용 선정	16
1. 제주도의 농업과 민요	16
2. 제주도의 어업과 민요	32
3. 제주도의 문화와 민요	48
IV. 제주도 민요의 주제별 지도방안 연구	55
1. 자연을 극복한 제주인	57
2. 바다와 함께 하는 삶	74
3. 제주섬 속에 꽃피운 무속신앙	91
V. 결론 및 제언	99
참고문헌	101
ABSTRACT	105

표 목 차

<표 1>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성취기준	9
<표 2> 3·4학년 사회과 관련 지도 단원	11
<표 3> 창의적 체험활동의 영역별 활동과 연계한 지도내용 제시	13
<표 4> 제주도 민요의 분류	15
<표 5> '자연을 극복한 제주인' 주제에 따른 제재곡 및 지도내용	32
<표 6> '바다와 함께 하는 삶' 주제에 따른 제재곡 및 지도내용	48
<표 7> '제주섬 속에 꽃피운 무속신앙' 주제에 따른 제재곡 및 지도내용	54
<표 8> 각 제재곡별 제주 알기 프로젝트의 과정	56
<표 9> 《흑병에부수는소리》 지도의 실제	58
<표 10> 《막바지사데》 지도의 실제	66
<표 11> 《멜후리는소리》 지도의 실제	75
<표 12> 《해녀노젓는소리》 지도의 실제	84
<표 13> 《서우젯소리》 지도의 실제	93

사 진 목 차

<사진 1> 제주도 전도	17
<사진 2> 곶방메	18
<사진 3> 쌍따비	18
<사진 4> 길쟁이	18
<사진 5> 갈옷	19

<사진 6> 감물들이기	20
<사진 7> 테우	34
<사진 8> 소중기	35
<사진 9> 테왁망사리	35
<사진 10> 호맹이	35
<사진 11> 빗창	35
<사진 12> 물적삼	36
<사진 13> 쌍따비와 곰방메	61
<사진 14> 제주의 어업활동	76

악 보 목 차

<악보 1> 가락선보 사용예시 《흑병에부수는소리》	3
<악보 2> 《흑병에부수는소리》 박과 붙임새	25
<악보 3> 《흑병에부수는소리》 가락선보	26
<악보 4> 《막바지사데》 박과 붙임새	29
<악보 5> 《막바지사데》 가락선보	30
<악보 6> 《멜후리는소리》 박과 붙임새	40
<악보 7> 《멜후리는소리》 가락선보	41
<악보 8> 《해녀노젓는소리》 박과 붙임새	45
<악보 9> 《해녀노젓는소리》 가락선보	46
<악보 10> 《서우젓소리》 박과 붙임새	52
<악보 11> 《서우젓소리》 가락선보	53
<악보 12> 《흑병에부수는소리》 박과 붙임새	63
<악보 13> 《흑병에부수는소리》 가락선보	64

<악보 14> 《막바지사태》 박과 붙임새	70
<악보 15> 《막바지사태》 가락선보	71
<악보 16> 《멜후리는소리》 박과 붙임새	79
<악보 17> 《멜후리는소리》 가락선보	81
<악보 18> 《해녀노젓는소리》 박과 붙임새	87
<악보 19> 《해녀노젓는소리》 가락선보	88
<악보 20> 《서우젯소리》 박과 붙임새	96
<악보 21> 《서우젯소리》 가락선보	97



논문 요약

주제 중심의 제주도 민요 지도방안 연구 -‘제주 알기 프로젝트 학습’을 통해-

강 은 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음악교육 전공
(지도교수 변미혜, 성기련)

제주도 민요는 제주도민의 생활과 정서는 물론 제주도 방언이 그대로 살아 있어 보존 가치가 높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점점 교통의 발달로 인해 타 지역과의 교류가 빈번하게 되고 인터넷 등의 초고속 통신망을 통해 거리에 상관없이 전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어 제주도가 지니고 있던 그 특수성이 점차 사라지고 있으며, 또한 제주도 민요가 불려지던 농업이나 어업의 연행상황이 사라짐으로 인해 민요도 더불어 사라져 생활에서 제주도 민요를 듣고 부르는 일은 흔하지 않은 일이 되고 있다. 이에 학교와 지역 사회에서의 교육을 통해 제주도 민요를 많이 접할 수 있게 할 필요성이 생겼다.

2009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은 문화적 소양과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품격있는 삶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초등학교의 교육 목표를 우리 문화에 대해 이해하고, 문화를 향유하는 올바른 태도를 기르는 데 두고 있어 학교 현장에서 어린이들이 제주도 민요를 쉽게 접하고 배울 수 있도록 음악과와 사회과,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하여 지도방안을 구안하였다.

제주도의 자연환경의 특징과 농업, 어업, 민속문화 관련 내용의 지도를 위해 ‘자연을 극복한 제주인’, ‘바다와 함께 하는 삶’, ‘제주섬 속에 꽃피운 민속문화’의 세 가지 주제를 ‘주제탐구’, ‘민요 익히기’, ‘체험활동’ 3단계의 ‘제주 알기 프로젝트

트'로 지도방안을 모색하였다.

1단계 과정에서는 제주도의 자연환경 및 농업과 어업, 민속문화의 지도내용을 사회과와 관련하여 탐구하고 2단계 과정에서는 음악과와 관련하여 제주도 민요를 익힌 후에 3단계 과정에서 1, 2단계 과정의 학습을 바탕으로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이용하여 각 주제와 연계된 체험활동을 통해 내면화한다.

제주도의 자연환경과 농업의 탐구를 통해 '자연을 극복한 제주인'의 삶에 대해 학습하고, 주제탐구 활동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을 탐방하여 제주의 자연환경의 특징을 알고, 토질에 따른 밭농사의 과정을 살펴본다. 《흑병에부수는소리》와 《막바지사데》를 제재곡으로 하여 노래를 익히고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여행상황의 재연을 통해 제주의 자연환경과 조상들의 삶을 돌아보았다.

'바다와 함께 하는 삶'에서는 제주의 어업활동과 해녀들의 삶을 탐구하고 《멜후리는소리》, 《해녀노젓는소리》를 익히며 해녀들이 사용하던 도구인 테왁을 제작하여 여행하는 과정을 통해 함께 고난을 극복한 제주인들의 삶의 자세를 느낄 수 있다.

'제주섬 속에 꽃피운 민속문화'에서는 신화의 섬 제주의 민속문화를 탐구하고 무가에서 시작되었지만 노동현장에서도 흥을 돋우는 《서우젓소리》를 제재곡으로 선정하여 노래를 익히고 소망 빌기 활동을 통해 제주민들의 민속문화를 체험하였다.

본 연구는 급속히 변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사라져가는 제주도 민요의 지도를 위해 사회과와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하여 다섯 곡의 제주도 민요의 여행배경을 탐구하고 제재곡을 익혀 부르며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제주의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느끼고 보존할 수 있도록 지도방안을 구안하였다. 그러나 다양한 종류의 제주도 민요를 다루지 못한 아쉬움이 있어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곡을 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

※ 이 논문은 2013년 2월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초등음악교육) 학위 논문임.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민요란 특정 지역에서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불리는 노래로 그 지역 사람들의 생활양식과 정서를 반영한다. 제주도 민요 역시 제주도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지고 불렸으며 제주도민들의 삶의 애환이 나타나며 서민생활 전반과 직결된다. 제주도는 육지와 멀리 떨어진 섬이라는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해 사회·문화·역사적으로 타 지역과 구별되는 독특한 문화권을 형성한다. 역사적으로 볼 때 제주특별자치도¹⁾는 조선시대의 출륙금지령²⁾으로 인해 다른 지방과의 교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섬 안에서 자급자족이 이루어짐으로 인해 200여 년 간의 제주도만의 민속문화가 형성되었다. 언어적인 면에서도 세종대왕의 한글창제 당시에 쓰였던 아래아 모음이 그대로 남아 현재까지 전해지는 말들을 많이 볼 수 있으며, 척박한 땅에서 태어나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그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밭농사를 지을 때나 바다에 나가 조업을 할 때 노래를 함께 불러 조금이나마 그 고됨을 이겨내며 살아왔다.

제주도 민요는 제주도민의 생활과 정서는 물론 제주도 방언이 그대로 살아 있어 보존 가치가 높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교통의 발달로 인해 점점 타 지역과의 교류가 빈번하게 되고 인터넷 등의 초고속 통신망을 통해 거리에 상관없이 전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어 제주도가 지니고 있던 그 특수성이 점차 사라지고 있으며, 또한 제주도 민요가 불려지던 농업이나 어업의 연행상황이 사라짐으로 인해 민요도 더불어 사라져 생활 속에서 제주도 민요를 듣고 부르는

1) 2006년 7월 1일부터 제주도의 행정구역 명칭이 제주특별자치도로 바뀌었으나 본 논문에서는 제주도라 칭한다.

2) 15세기에 이르러 중앙 관리와 지방 토호의 이증수탈 및 지나친 진상과 부역의 증대로 인해 제주를 떠나 유랑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1629년(인조7년) 조선 정부에서 제주도민이 육지로 나가는 것을 금지하는 정책임.

일은 흔하지 않은 일이 되고 있다. 이에 학교와 지역 사회에서의 교육을 통해 제주도 민요를 많이 접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및 지도서에 나타난 제주도 민요와 관련한 지도 내용은 음악과에서 3학년의 일노래 지도에서 지역의 일노래를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사회과에서는 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의 하위에 포함되는 시·군 지역을 중심으로 다룬 3학년과 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 지역을 범위로 다루는 4학년에 지역 문화 관련 지도 내용을 찾아 볼 수 있다. 물론 제주도교육청에서 만든 지역화교과서인 3학년 『살기좋은 우리 고장』 서귀포편과 제주시편, 4학년 『아름다운 제주특별자치도』 교과서와 지도서에 제주도의 문화와 민요가 나타나지만 교육과정 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적다.

이에 학교에서의 제주도 민요 지도를 위해 음악과와 타 교과에서의 문화 관련 영역을 추출하여 공통된 주제를 찾아내고,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창의적 체험활동과의 연계성을 통해 초등학교에서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제주도의 농업과 어업 및 민속문화와 관련한 주제를 찾아내고, 이 주제에 적합한 제재곡의 교과 간 연계 지도방안의 제시를 통해 제주도 민요의 지도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연구의 내용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음악과 교육과정³⁾, 2007년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 따라 만들어진 교과서와 제주도교육청에서 발간한 3, 4학년 사회과 지역화 교과서에 수록된 제주도의 문화와 제주도 민요 관련 내용을 분석하여 지도내

3) 이하 '개정 교육과정'이라 칭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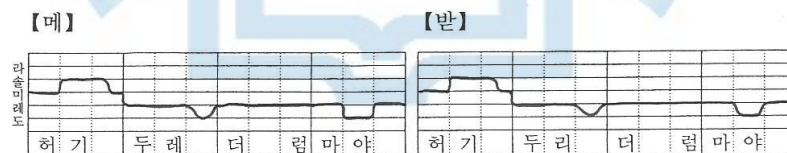
용을 선정한다.

둘째, 선정된 내용요소를 재구성하여 지도주제와 제재곡을 선정하고 음악과를 중심으로 사회과와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한 교육 현장에서의 지도방안을 모색한다.

셋째,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서 교과교육에서 도달하기 어려운 범교과 학습 및 자기주도적 학습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단일 교과시간에 목표 도달이 어려운 활동을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이용해 지도하고 교과 이외의 생활 속에서도 음악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선율의 흐름을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가락선보를 사용하고자 한다. 박의 단위를 구분하여 1박을 1정간으로 표시하고 소박을 구분하였다. 가창의 교육적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힘을 주어 내는 소리는 굵게 표시하여 이해를 쉽도록 하였으며 사실 부분도 자세히 풀어서 제시하였다. 가락선보의 사용 예시는 다음과 같다.

<악보 1> 가락선보의 사용 예시 《혹병에부수는소리》 4) 中



다섯째, 곡의 장단은 본 연구에서 다루는 제재곡들이 연행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연행상황에서 불리는 점을 고려하여 악기를 이용하여 장단의 학습을 하지 않고 손뼉치기나 무릎치기 등을 이용하여 흥겨움을 나타내며 박을 치도록 한다.

4) (주)문화방송, 『한국민요대전(제주도)』, 1992, CD 6-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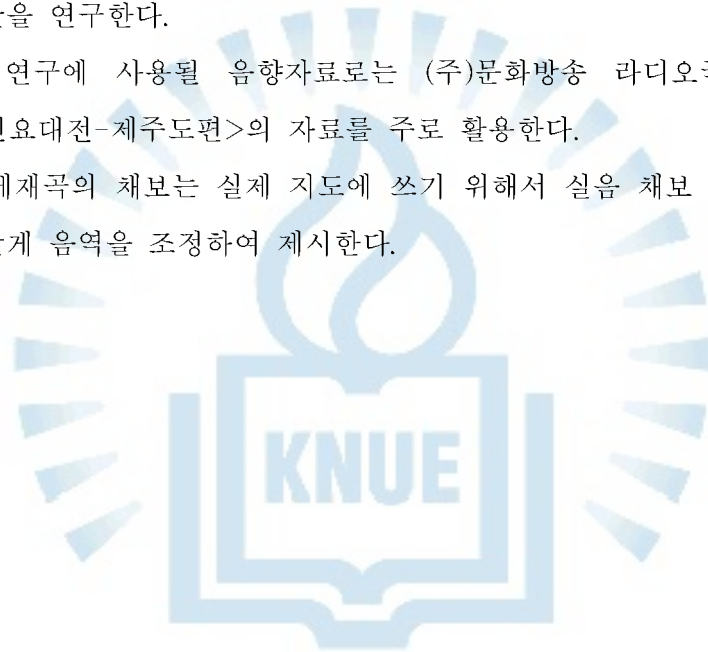
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에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둔다.

첫째, 이 연구는 초등학생들을 지도 대상으로 하는데, 특히 지역화에 대한 교육이 폭넓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여 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의 하위에 포함되는 시·군 지역의 내용을 중심으로 지도하는 3학년과 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 지역을 지도 범위로 하는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지도하기에 적절한 지도 내용 및 방안을 연구한다.

둘째, 이 연구에 사용될 음향자료로는 (주)문화방송 라디오국에서 채록한 <MBC한국민요대전-제주도편>의 자료를 주로 활용한다.

셋째, 각 제재곡의 채보는 실제 지도에 쓰기 위해서 실음 채보 보다는 학생들의 음역에 맞게 음역을 조정하여 제시한다.



II. 연구의 기초

1. 선행 연구 고찰

본 연구에 기초가 되는 선행 연구는 크게 제주도 민요 연구와 타 교과와의 연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주제 중심의 교과 간 통합에 관한 연구 및 우리 음악의 교육적 활용 방안에 대한 논문으로 나누어 살펴 보고자 한다.

먼저 제주도 민요와 관련된 단행본과 논문은 다음과 같다.

김영돈⁵⁾은 『제주도 민요연구 上·下』에서 제주도에 관한 자연적,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고 제주도 민요의 특징과 분류 및 《맷돌질 소리》와 《방아노래》, 《해녀노래》를 분석하였다. 또한 제주도 민요에 드러난 문학과 도민 의식, 속담과의 교류 등에 대해 연구하였다. 그의 연구에 의하면 사실적인 측면에서 《맷돌질 소리》와 《방아노래》의 사설의 전승량이 800여 곡에 이르고 있고 《해녀노래》는 유독 제주도 해녀들만이 거친 파도를 헤쳐 노를 저어 나가면서 역동적으로 부르고 있어 제주도 민요를 대표하는 곡이라 할 만 하다. 이에 제주도 민요를 대표할 수 있는 제재곡 선정에 도움을 주었다.

조영배⁶⁾는 『제주도 노동요 연구』에서 제주도 노동요의 개념에 대해서 정의하고, 노동요의 종류를 농업요, 어업요, 임업요, 제분요, 관망요, 잡역요로 나누고, 각 민요의 실태를 연행적 성격, 사설 내용과 구조, 음악적 성격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이는 민요가 실연을 수반할 때 생동감을 극대화 할 수 있다는 점에 시사점을 줄 수 있다. 또한 “제주도 민요의 음악양식 연구”⁷⁾에서 제주도 민요의 각종 음악구조, 즉 제주도 민요의 음조직상의 특성(음계와 선법), 각종 선율적 특성, 박자, 강세, 속도, 악곡형식, 구조, 전개방식, 가창방식 그리고 표현 기교상

5) 김영돈, 『제주도 민요 연구 上·下』(서울: 민속원, 2002)

6) 조영배, 『제주도 노동요 연구』(서울: 도서출판예술, 1992)

7) 조영배, "제주도 민요의 음악양식 연구"(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6)

의 특성 등을 분석하여 다른 지역의 민요와 어떤 점이 다른지 종합함으로써 제주도 민요의 음악 구조적 양식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는 본 연구에서 주제에 따른 제재곡의 음악적 분석에 있어서 도움을 주었다.

이행운⁸⁾은 제주도 북제주군 조천읍·구좌읍 민요 중에서 《밭 밟는 소리》, 《밭 매는 소리》 등의 26곡의 사설과 기능의 측면을 살펴 민요의 연행상황을 이해하고, 각 민요의 음악적 특징을 연구하였다. 이는 조천읍과 구좌읍 지역의 민요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양정인⁹⁾은 제주도 북제주군 서부 지역인 한림읍의 자연·지리적 환경과 언어·풍습 등의 사회적 환경을 살피고, 민요의 연행적 요소인 가창 상황, 기능 및 노랫말이 가지고 있는 사실적 요소와 음악적 요소의 연구를 통하여 한림읍 민요의 특징을 연구하였다. 이는 한림읍 지역의 민요의 특징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백인옥¹⁰⁾은 제주도 민요 중에서 농요를 중심으로 선율의 흐름을 분석하여 노래의 형식, 선율의 골격, 선율의 흐름, 종지음을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이는 본 연구에서 실제 수업에 적용할 제재곡의 선정 및 활용에 있어 도움을 주었다.

오남훈은 “제주도 토속민요의 선율양상 연구”를 통해 제주도 민요의 지역적 분포 상황과 선율양상이 지니는 특징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었고, 고현민의 “제주도 영등굿 연구 : 요왕맞이 마당을 중심으로”를 통해 영등굿이 이루어지는 시기 및 절차를 이해하고 제주의 무속신앙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었다.

다음으로 주제중심 교과 간 통합 및 교육적 활용에 관한 단행본과 논문은 다음과 같다.

변미혜·김민수·한윤이¹¹⁾는 『우리문화 관련 주제중심의 국악지도법』에서

8) 이행운, "제주도 북제주군 동부지역 민요연구" (청원: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3)

9) 양정인, "제주도 한림읍 민요 연구" (청원: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9)

10) 백인옥, "제주도 민요의 선법적 연구-농요를 중심으로" (서울: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4)

11) 변미혜·김민수·한윤이, 『우리문화 관련 주제중심의 국악지도법』 (서울: 민속원, 2009)

교육의 궁극적 목적인 정체성 있는 국민을 육성하는데 있어 문화를 강조하며, 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언어, 춤, 음악, 미술, 사상의 총체적이고 통합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초등학교 3~6학년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교과별 공통 소재를 추출하여 국악을 중심으로 우리 문화와 관련한 주제를 ‘생활과 음악’, ‘세시 풍속과 음악’, ‘사상과 음악’의 교과 간 통합 주제로 설정하고 그에 따른 지도방안을 마련했다. 이 연구는 본 연구자에게 제주도 민요 속에서의 교과 간 연계 지도의 방법과 주제별 지도방안을 마련하는데 시사점을 주었다.

고현민¹²⁾의 “제주 칠머리 당굿 중 새드리는 노래 교수·학습 과정안”은 제주 칠머리 당굿 중 제차에서 새드리는 부분에 나오는 ‘새드리는 노래’를 수업에 적용하여 새드리는 노래를 익혀 부르기, 가락을 바꾸어 재구성해서 불러보기, 가사를 바꿔서 행동하면서 불러보기의 과정을 보여준다. 이는 본 연구에 있어 실제 각 차시별 지도방법의 탐구와 교수·학습 과정안 작성에 도움을 주었다.

안은주¹³⁾의 “교과간 통합을 통한 주제 중심의 시조 지도방안 연구”와 유은목¹⁴⁾의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한 세시풍속 관련 음악의 지도방안 연구”, 권보리¹⁵⁾의 “문화적 맥락에서의 국악기 지도방안 연구”는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우리 음악을 좀 더 쉽게 가르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탐구와 제주도 민요의 지도방안 마련에 도움을 주었다.

조묘구¹⁶⁾의 “남도민요 가창 지도 연구-육자배기토리를 중심으로”에서는 학교 현장에서의 민요 지도의 실제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남도민요의 음악적 특징과 가창지도에서의 호흡 및 발성지도, 사설 및 장단과 가락지도의 구체적인 방법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제주도 민요를 학교 현장에 어떻게 적용할 지에 대한

12) 고현민, “제주 칠머리 당굿 중 새드리는 노래 교수학습 과정안”, 『국악교육연구』 제2권 제1호, 2008.

13) 안은주, “교과 간 통합을 통한 주제 중심의 시조 지도방안 연구” (청원: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1)

14) 유은목,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한 세시풍속 관련 음악의 지도방안 연구” (청원: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1)

15) 권보리, “문화적 맥락에서의 국악기 지도방안 연구” (청원: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1)

16) 조묘구, “남도민요 가창 지도 연구” (청원: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1)

지도방법 연구에 도움이 되었다.

김혜란¹⁷⁾의 “경기민요의 음악적 특징을 활용한 창작 지도방안 연구”를 통해 경기민요의 악곡 분석 방법을 살펴 보았고, 선율의 흐름을 가락선으로 나타내는 방법을 참고하였다.

이상의 선행 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제주도 민요의 각 지역별 민요의 연행적 상황 및 음악적 특징과 사설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장에서의 교육적 활용에 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았다. 이에 제주도 민요를 교육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지도내용을 선정하고 그에 따른 지도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2. 교육과정 및 교과서의 제주도 민요 관련 내용 분석

기존에 연구된 제주도 민요는 국어과와 사회과에서 사설 부분을 통해 사설에 나타난 제주어의 연구 및 민요가 주로 불려지던 당시의 시대 상황에 대한 비중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음악과에서의 연구는 미흡하다. 제주도 민요 지도에 있어 음악적인 부분만을 가르치기 보다는 당시의 연행상황과 사설에 나타난 제주어에 대한 이해가 수반된다면 음악에 대한 접근이 더욱 수월할 것이다. 또한 2009 개정 교육과정 창의적 체험활동이 2011학년도부터 적용되면서 학교 현장에서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시간을 통해 교과 시간에 다루지 못한 범교과 부분의 내용을 연계하여 지도하고자 한다. 이에 음악과 교육과정과 지도서 및 교과서 분석을 하고 실제 지도에 있어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추출될 수 있는 사회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창의적 체험활동과의 연계 방법에 대해 살펴보하고자 한다.

17) 김혜란, “경기민요의 음악적 특징을 활용한 창작 지도방안 연구” (청원: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2008)

가. 음악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 분석

1) 2009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분석

2009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은 문화적 소양과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품격있는 삶을 영위하는 사람이다.¹⁸⁾ 초등학교의 교육목표를 우리 문화에 대해 이해하고, 문화를 향유하는 올바른 태도를 기르는데 두고 있다.¹⁹⁾ 개정 교육과정은 교육과정 내용의 적정화를 위해 학년군별로 필수 학습내용을 정선하여 포괄적 수준의 ‘성취기준’을 제시하였는데, 3·4학년군의 성취기준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음악과 교육과정 ‘3·4학년군 성취기준’

영역	내용 체계	3·4학년군 성취기준
표현	1-2. 악곡의 특징을 살펴보기	(3) 악곡을 외워서 혼자 또는 여럿이 노래 부르거나 악기로 연주할 수 있다. (4) 동요나 민요를 듣고 부르거나 보고 부를 수 있다.
	1-3. 창의적으로 음악 만들어 표현하기	(2) 체재곡의 노랫말을 바꾸거나 노랫말에 맞는 말붙임새로 만들 수 있다.
감상	2-2. 악곡의 특징을 이해하며 감상하기	(2) 노동요, 놀이요, 춤곡, 행진곡 등을 듣고 음악의 쓰임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
생활화	3-2. 우리 음악의 가치 인식하기	(1) 생활 속에서 우리 음악을 찾아볼 수 있다.

18) 교육과학기술부, 『2009 개정 교육과정 교육부고시 제2009-41호 [별책12] 음악과 교육과정』(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쪽.

19) 교육과학기술부, 앞의 책, 1쪽.

3·4학년군 표현 영역의 ‘악곡의 특징을 살려 표현하기’는 악곡을 외워서 혼자 또는 여럿이 노래 부르거나 악기로 연주할 수 있고, 동요나 민요를 듣고 부르거나 보고 부를 수 있다고 하였다. ‘창의적으로 음악 만들어 표현하기’에서는 제재 곡의 노랫말을 바꾸거나 노랫말에 맞는 말붙임새로 만들 수 있다고 하였다. 감상 영역의 ‘악곡의 특징을 이해하며 감상하기’를 통해 노동요, 놀이요 등의 음악의 쓰임에 대해 이야기하며 음악의 쓰임에 따른 악곡의 종류로 3학년은 노동요, 4학년에서 지역전승음악을 들 수 있다. 생활화 영역에서는 생활 속에서 우리 음악 찾아보기 활동을 통해 우리 음악의 가치 인식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교수·학습 방법에서 표현 영역의 지도 방법으로 가사와 가락의 관련을 탐색하면서 그에 따른 느낌을 자연스럽게 나타내도록 하며, 가락, 시김새, 창법을 지도할 때에는 손, 가락선 악보 등을 활용하여 다양하게 표현하도록 하며, 또한 신체 표현을 중히 여기고 놀이를 통한 학습을 권장한다. 감상 영역의 지도 방법으로 음악의 요소와 종류 및 역사, 사회, 문화적 맥락에서의 음악의 역할 및 가치를 폭넓게 이해하고 내면화 할 수 있도록 하며, 국악곡 감상시에는 추임새 넣기 등을 통해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음악 감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²⁰⁾ 생활화 영역에서는 생활 속에서 음악을 즐기고, 음악 문화 및 우리 음악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갖도록 지도하면서 우리 지역에 전승되어 오는 음악과 관련된 민속문화를 찾아볼 수 있다.²¹⁾

2) 2007년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 따른 음악 교과서 및 지도서 분석

2007년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 따른 3학년 음악 교과서와 지도서를 살펴보면 ‘강릉 모심는 소리’를 중심으로 일노래의 특징을 이해하고 감상하기, 메기고 받는 방식을 이해하고 민요 감상하기, 여러 지역의 일노래 감상하기 활동을 통해 쓰임에 따른 악곡의 종류 중에서 노동요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생활과 음악과의 관계를 이해하며 생활 속에서 음악 활용하기를 제시하였다.

20) 교육과학기술부, 앞의 책, 9쪽.

21) 교육과학기술부, 앞의 책, 13쪽.

4학년 음악 교과서와 지도서에서는 정월대보름에 풍년을 기원하며 불렀던 새 노래를 제시하면서 세시풍속 지도를 제시하였다. 제주의 전통 문화 축제와 연계하여 지도요소를 찾을 수 있다.

나. 관련 교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 분석

1) 사회과

사회과에서는 우리의 삶의 터전인 지역의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 민족의 역사와 활동에 대한 종합적인 파악과 현실에 대한 역사적인 시각에서의 이해 및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세계 시민으로서의 가치, 태도 등에 관한 요소를 중시한다.²²⁾ 3, 4학년 사회과 교과서에서 관련 지도 단원은 다음과 같다.

<표 2> 3·4학년 사회과 관련 지도 단원

학년	단원	지도 내용
3	3-1-1. 우리가 살아가는 곳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위치, 자연적 특성과 이용모습 · 우리 지역의 자연환경과 생활과의 관계 · 서로 다른 생활모습
4	4-1-4. 달라지는 생활모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지역에서 볼 수 있는 생활도구와 의식주 · 여가 생활의 특성

‘3-1-1. 우리가 살아가는 곳’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위치, 자연적 특성, 그리고 그 이용 모습을 살펴보고, 우리 지역의 자연환경과 생활과의 관계를 파악하며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기

22) 교육과학기술부, 『2009 개정 교육과정 교육부고시 제2009-41호 [별책7] 사회과 교육과정』(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2쪽.

위하여 설정하였다. 자연과 그 이용에 대해서는 특징적인 지형, 기후, 토지 이용 등을 중심으로 다룬다. 또한 지도의 요소를 알고 그것을 통해 우리 지역의 모습을 지도를 통해 나타낼 수 있도록 한다. 우리 지역의 산, 강, 들, 바다의 모습을 살펴보고, 그와 같은 환경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서로 다른 생활 모습을 이해할 수 있다.

‘4-1-4. 달라지는 생활모습’에서는 우리 지역에서 볼 수 있는 생활도구, 의식주와 여가생활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생활문화의 전반적인 경향을 파악한다. 이 단원에서는 제주도민의 생활모습을 과거와 현재의 모습으로 비교하여 조상들의 삶이 어떠했는지에 대한 탐구 체제가 될 수 있다. 우리 지역에 살았던 조상들의 옛날 생활모습을 알 수 있는 것을 찾아보고, 오늘날과는 다른 생활모습을 이해하며, 생활도구의 모양과 쓰임이 이전과는 다를 수 있음을 이해하고 오늘날 계승되고 발전된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민요의 연행상황이 줄어든 원인을 이해하고 우리가 계승·발전시켜야 할 문화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2) 창의적 체험활동

초등학교에서는 2009 개정 교육과정 창의적 체험활동의 적용이 2011학년도는 1·2학년, 2012학년도는 3·4학년, 2013학년도는 5·6학년에 이루어지고 있다.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을 통합하여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운영하도록 하는데 창의적 체험활동의 성격을 살펴보면, 창의적 체험활동은 교과 이외의 활동으로서 교과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으며, 앎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나눔과 배려를 할 줄 아는 창의성과 인성을 겸비한 미래지향적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기본적으로 자율성에 바탕을 둔 집단 활동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집단에 소속된 개인의 개성과 창의성도 아울러 고양하려는 교육적 노력을 포함한다. 초등학교의 창의적 체험활동에서는 학생의 기초생활습관의 형성, 공동체 의식의 함양, 개성과 소질의 발현에 중점을 둔다. 아울러 지역과 학교의 독특한

문화풍토를 고려하여 특색있고, 인적 물적 자원과 시간을 폭넓게 활용하여 융통성있게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²³⁾고 하였다.

창의적 체험활동의 영역별 활동과 연계된 제주도 민요 및 제주 문화 알기 활동을 다음의 <표 3>으로 제시할 수 있다.

<표 3> 창의적 체험활동의 영역별 활동과 연계한 지도내용 제시

영역	지도 내용
자율활동	· 행사활동: 제주어말하기 대회, 제주어 퀴즈대회, 제주도 민요 경창대회, 제주문화 체험
동아리활동	· 제주문화 탐구반, 제주도 민요 및 제주어 동아리 활동,
진로활동	· 제주문화 탐구 및 제주의 인물 탐구 · 계승 발전시켜야 할 제주의 문화 관련 직업 탐구

민요는 개인이 혼자 부르는 경우도 있지만 노동요에서는 함께 어울려 작업을 하며 노래를 부르는 경우가 많다. 노동요가 불러지는 연행상황을 통해 고된 일도 함께 노래를 부르며 이겨냈음을 볼 때 창의적 체험활동의 성격에 나타난 공동체 의식의 함양에 도움을 줄 수 있다.

3. 제주도 민요의 특징

제주도 사람들은 척박한 토지와 육지와와의 관계 단절로 인해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를 제주도 안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며 살아왔다. 4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23) 교육과학기술부, 『2009 개정 교육과정 교육부고시 제2009-41호 [별책18] 창의적 체험활동』(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쪽.

있어 바다에서 얻을 수 있는 자원은 풍부하였으나 어획에 쓰이는 도구들의 발달은 미약하여 바다에서의 노동은 고됨 수 밖에 없었다. 또한 화산 폭발로 인해 생성된 제주도의 지형적 특성상 투수성이 높은 땅을 일구어 생활하느라 고된 노동이 삶의 중심이 되어 왔다. 이러한 노동의 고됨을 이겨내기 위해 일노래의 발달이 두드러진다. 제주도 민요는 노동요가 많이 불렸음을 알 수 있는데 바다에서 작업을 하며 불려졌던 어업요와 농사일을 할 때 불려졌던 농업요가 많다. 특히 제주도는 한 가지의 농사로는 그 수확물이 많은 편이 아니라 밭농사와 목축 등의 다양한 일이 이루어져 그에 따라 불리던 다양한 노동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제주도에 농업요가 발달한 것은 한 가지 종류의 농업에만 매달릴 수 없었던 제주도의 전통 생업적인 특수성에 기인한다. 제주도 노동요의 대부분은 밭농사와 관련된 민요로 제주도의 자연환경의 특수성 때문에 밭을 밟는 행위, 남테나 돌테로 밭을 다지는 행위, 흙덩이를 부수는 행위, 수놓음으로 김을 매는 행위 등 다양하고 독특한 노동 형태가 나타난다²⁴⁾. 『제주문화 총서』에 나타난 제주도 민요를 노동 및 연행상황에 따라 분류해 보면 <표 4>와 같다.²⁵⁾

<표 4>에서 살펴보듯이 제주도 민요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른 지방의 민요와 비교하여 창민요의 발달이 미흡하다. 이는 제주도가 섬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다른 지방과의 교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데에서 알 수 있다. 노동요는 농업요, 제분요, 어업요, 벌채요 등으로 다양한 노동 상황이 전개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농업요에서 논농사에서 불리어졌던 노래의 수보다 밭농사에서 불리어지던 노래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제주의 자연환경의 특수성에 기인한다.

제주도 농업의 대부분은 조, 보리 등의 잡곡 위주의 밭농사가 이루어졌고, 투수성이 높은 화산회토의 성질과 바람이 세계 불어 씨를 심어서 그대로 두면 씨앗이 싹을 틔우기 어렵기 때문에 밭을 갈고 일구어 밭을 밟아주어야만 수확을

24) 제주도, 『제주도지 제6권 문화예술』(제주: 제주도지편찬위원회, 2006)

25) 제주도, 『제주문화 총서 - 제주의 민속』(제주: 해동인쇄사, 1995). 203쪽.

얻을 수 있었다. 이로 인해 《후병에부수는소리》, 《밭밟는소리》 등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표 4> 제주도 민요의 분류

용도 및 연행상황		해당민요	
기능요	노동요	농업요	따비질노래, 밭 가는 노래, 흙덩이 부수는 노래, 밭 매는 노래, 밭 밟는 노래, 타작노래, 마소 모는 노래, 보리 훑는 노래, 썩레질 노래
		제분요	맷돌 노래, 방아 노래, 연자매 노래
		어업요	해녀 노래, 배 짓는 노래, 뗏목배 짓는 노래, 멀치 후리는 노래, 갈치 낚는 노래
		벌채요	나무 베는 노래, 나무 켜는 노래, 나무 쪼개는 노래, 나무 깎는 노래, 나무 내리는 노래, 풀 베는 노래
		관망요	양태 노래, 탕건 노래, 망건 노래, 모자 노래
		잡역요	방앗돌 끌어내리는 노래, 똑딱불미 노래, 토불미 노래, 디딤불미 노래, 짐줄 놓는 노래, 짐터 다지는 노래, 흙질 소리
의식요	장례의식요	행상 소리, 달구 소리, 진토긋 파는 소리	
비기능요	창민요	제주전역	오돌또기, 이야흥, 서우젓 소리
		성읍지역 중심	용천검, 관덕정 앞, 산천초목, 봉지가, 질군악, 동풍가, 중타령, 사랑가, 계화타령, 기타

이에 본 연구자는 음악과에서 효과적인 제주도 민요 지도를 위해 사회과와 연계하여 제주도 민요의 배경적 특성을 알고 민요가 불리어졌던 상황을 이해하며,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제주도 민요에 담긴 조상들의 삶에 대한 태도를 내면화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제주도의 농업과 어업, 민속문화를 지도내용으로 선정하여 각 지도내용에 적합한 제재곡의 지도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Ⅲ. 제주도 민요의 지도내용 선정

민요는 지역의 특성과 지역 사람들의 생활을 반영하는데 시대의 변화에 따라 연행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제주도 민요 역시 제주도의 자연환경과 제주도 사람들의 생활을 반영하며 빠른 사회 변화로 인해 제주도 민요가 전승되는 수가 줄어들고 있어 이에 제주도 민요 지도에 있어 그 지도내용을 먼저 제주도의 자연환경의 특징을 알아보고 이러한 자연환경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제주 사람들의 농업은 어땠는지 살펴보고,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제주의 바다와 함께 해 온 어업과 해녀의 삶을 돌아보고자 한다. 또한 오랜 세월을 지내오면서 지역민들이 만들어낸 제주의 문화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본 후 지도 주제와 제재곡을 선정하고자 한다. 제주도의 농업, 어업, 민속문화로 나누어 관련 내용을 탐구하고 이와 관련한 노래를 살펴보고 주제를 선정하였다.

1. 제주도의 농업과 민요

가. 제주도의 자연 환경과 농업

1) 제주도의 자연 환경

제주도는 우리나라의 남단에 위치한 섬으로 단일 행정구역으로는 면적이 가장 작은 도(道)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섬에 속한다. 화산섬으로 섬 전체가 현무암으로 이루어져있고, 바람이 많은 지형이라 땅이 비옥하지 않아 논농사를 짓기에 어려움이 많아 경작되는 면적이 매우 적었다. 『제주도지』²⁶⁾에서 조사된 제주

26) 제주도, 『제주도지 제1권 지리』(제주: 제주도지편찬위원회, 2006), 44쪽.

도의 농지의 형태를 보면 경지면적 중 논 면적은 1.9%에 불과하며 이는 제주도가 화산섬으로서, 지질의 투수성이 높아 항시 흐르는 하천의 유수가 없고 수리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제주도의 연평균 기온은 서귀포가 가장 높은 16.2℃, 제주와 고산은 15.5℃, 성산포가 가장 낮



<사진 1> 제주도 전도

은 15.2℃를 나타내고 있다. 월별 평균 기온은 1월이 가장 낮아 성산포 5.0℃, 제주 5.6℃, 고산 6.3℃, 서귀포가 6.6℃로 4개 지역 중 가장 높다. 연중 평균기온이 가장 높은 달은 8월로써 4개 지역이 거의 비슷하게 26.1℃~26.6℃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²⁷⁾ 제주도의 월별 강수일수는 6~8월이 가장 많고 10월이 가장 적게 나타나고 있으며 겨울철이 봄·가을에 비하여 많고 봄철이 가을철에 비하여 많이 나타나고 있다. 7월에는 전반적으로 강수일수가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다.²⁸⁾ 근래에 들어 기후의 변화로 인해 8월에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해 강수량이 늘고 있다.

2) 제주도의 농업

가) 농사에 쓰이는 도구

제주도는 화산섬으로 현무암이 주를 이룬다. 현무암 지대의 특징은 물빠짐이 잘 되어서 홍수가 잘 나지 않으나 토질이 거칠고 물을 가두어 놓지 못하여 논농

27) 제주도, 『제주도지 제1권 지리』(제주: 제주도지편찬위원회, 2006), 181쪽.

28) 제주도, 위의 책, 184쪽.

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이다. 간혹 일부 지역에서 논농사가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주로 밭농사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 작업을 할 때 사용하는 도구는 아래와 같다.²⁹⁾



<사진 2> 곰방패

곰베라고도 하며, 밭갈이를 한 후 텅어리진 흙을 부술 때 사용하는 기구로 손잡이는 길고 가늘며 하부에 나무로 사각 또는 타원형의 통나무를 잘게 다듬어 맞추었다.



<사진 3> 쌍따비

쌍따비, 외따비의 두 종류가 있는데, 밭을 일굴 때 사용하는 농기구의 일종으로 척박한 농지를 개간할 때 썼다. 쌍따비는 무거웠으므로 들어 찍으면서 작업하는 것이었고, 외따비는 발로 밟아 찍어 내면서 일구었다.



<사진 4> 굴골갱이

띠밭을 개간(開墾)하여 만든 밭이나, 쟁기나 따비 등으로 흙을 일군 밭에 씨앗을 파종한 후 그 작물 사이에 자라는 검질(잡초)을 매는데 사용하였다. 또 구근식물인 고구마, 감자, 당근을 팔 때, 그리고 양파, 쪽파를 수확할 때도 쓴다. 이 밖에도 우영³⁰⁾ 등에 채소를 파종할 때 썼다.

나) 제주의 옷 ‘갈옷’

제주의 노동복은 ‘갈옷’인데 갈옷은 농업 뿐 아니라 제주 사람들의 일상복으로도 널리 쓰였던 옷이다. 갈옷의 장점은 작업 도중 비를 맞아도 몸에 감아 붙지 않기 때문에, 이슬 맺힌 밭에서 김을 낼 때 물기가 묻었어도 곧 떨어져 옷이 젖지 않으며, 바닷물에 젖는 어부들의 노동복에도 좋다. 감은 방부제가 되어 물은 물론 땀 묻은 것을 그냥 두어도 썩지 않고 땀 냄새가 안 나고, 몇 날 몇 주일을

29) 디지털제주시문화대전 <http://jeju.grandculture.net>

30) 제주어로 집 마당에 붙어있는 텃밭을 의미한다.

계속해 입어도 더러워지는 줄을 모른다. 또한 먼지나 보릿가스랭이 따위의 거친 오물이 붙어도 털면 곧 떨어지고, 세탁할 때에도 비누가 필요 없고, 물이 빨리 빠진다. 목초를 베는 때에도 가시나 목초에 찢리지 않는다는 점이다.



<사진 5> 갈옷

다음은 갈옷의 재료인 감물 들이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감물 염색 체험을 통해 조상들의 삶의 지혜를 느껴보는 것도 좋은 활동이 될 것이다. 감의 짧은 물을 이용하여 만드는 천연 염색으로 풋감은 칠석을 전후한 음력 7~8월 경 그 직경이 3~4cm의 크기가 적당하다. 이때가 탄닌 성분이 가장 많기 때문이며 풋감은 염색할 당일 이른 새벽에 따서 그날그날 즙을 만들어야 최상의 갈옷을 얻게 된다. 전통적인 갈천은 제주 토종 풋감으로 염색한 의복으로 제주도에서 자급자족하여 짠 무명을 이용하였으나, 1940년대부터는 광목이 시판되면서 주로 광목으로 염색하기 시작하였다.

풋감즙에 염색한 갈옷은 말렸다가 물 적셨다가를 몇 차례 되풀이하면 처음에는 몹시 뻣뻣하고 색깔도 빨갛게 된다. 그러나 조금 입고 지나면 뻣뻣한 풀기도 좀 부드러워지고 색도 갈색으로 바래서 입기에 알맞게 된다.

감물 들이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³¹⁾

- 감물 염색 과정 -

- ① 미리 옷이나 옷감은 빨아서 풀기를 빼고 햇볕에 널어서 하얗게 바래어 놓는다.
- ② 풋감을 으깨어 즙을 내는데 요즘은 분쇄기를 많이 사용하지만 전통적인 방법은 남도구리에 감을 넣고 공이로 으깨었다.
- ③ 염색하고자 하는 옷이나 옷감에 으갠 감즙이 골고루 스며들도록 치대면서 주물럭거린다.

31) 디지털제주시문화대전<http://jeju.grandculture.net>

④ 옷이나 옷감이 완전히 젖게 즈이 베어들었으면 옷이나 옷감에 묻은 감찌꺼기를 털어내고 옷을 원형대로 잘 손질하여 햇빛이 잘 드는 평평한 곳에 널어 말린다. 멍석을 깔아서 말리거나 처마에 혹은 깨끗하고 평평한 돌 위에 널어서 말린다. 요즘 들어서 대량의 옷감에 염색을 하여 말릴 때에는 잔디밭에 널어 말리는 모습들을 볼 수 있다.



<사진 6> 감물들이기

⑤ 염색하여 말릴 때에는 완전히 마르기 전에 손 다듬이와 발 다듬이를 하여 옷의 원형을 잘 만들어 주어야 하고 또 햇빛을 골고루 받아서 균일한 색이 나도록 뒤집어 주어야 한다. 완전히 바싹 마르고 나면 물을 적셔서 다시 말리기를 반복하면 황갈색으로 색이 나기 시작한다. 발색은 초기에 급속히 이루어지는데 7회 이상 반복되면 색차가 작게 나타나고 좀 검은 빛을 띠게 되며 시간이 더 지날수록 오히려 색이 퇴색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다) 제주의 밭농사 과정

제주는 대부분 현무암으로 이루어진 화산섬으로 강수량이 많지만 빗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어 흘러가기 때문에 논농사에 어려운 토질의 특성을 갖고 있다. 대부분 밭농사가 이루어지는데 토지가 비옥하지 못하여 2년 정도 경작을 하면 일정기간 휴경의 기간을 거쳐야 농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바람이 많아 밭을 개간하면 반드시 말을 몰아 밟아주어야 농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밭을 일구고 난 후에 잘 부서지지 않은 흙덩이를 다시 밟아 잘게 만들어주고 씨앗을 뿌리고, 밭을 밟아 주는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 중에서 흙덩이를 부수는 과정을 함께 해보고 노래를 익히기 위해 《흑병에부수는소리》를 제재곡으로 선정하여 지도하고자 한다.

한라산의 폭발로 인해 제주의 지형은 현무암 지대이며 화산회토로 이루어져

물빠짐이 좋다. 이에 하천도 흐르는 물을 보기가 어려운 건천의 형태를 띤다. 수리시설을 갖추기 어려워 논농사는 물을 대기가 쉬운 해안가 몇 개의 마을에서만 이루어졌을 뿐이다. 논농사가 행해지는 마을은 한라산 남쪽에 강정천이 흐르는 강정동, 법환동, 대포동에서 이루어졌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논농사가 어렵고 밭농사가 주류를 이룬다. 제주도는 밭농사 위주의 농업 형태를 띠기 때문에 밭일에 따르는 노동요는 다른 지역 못지 않게 많이 불리고 풍성하다. 특이할 만한 것은 밭농사의 전 과정에 노래가 불려지고 있다.

화전을 개간하거나 목장밭을 일구는 경우 따비로 굳센 땅을 일구면서 《따비질소리》³²⁾를 한다. 파종을 앞두고 소나 말을 몰아 밭을 갈면서 《밭가는 소리》를 부른다. 제주도에서는 경작 면적이 넓지 않은 밭에서도 불리어진다. 그리고 밭을 갈고 난 후 씨를 뿌리기 직전에 밭에 널려있는 흙덩이를 부수면서 《흙병에부수는소리》를 한다. 밭을 고르고 나면 씨를 뿌리고 마소떼를 몰아다 좁씨가 흙 속에 잘 파묻히도록 밭을 밟으면서 《밭벌리는소리》를 한다. 이 노래는 제주도의 조농사에서 만들어진 노래이다.

조가 자랄 때면 밭김을 매면서 검질매는소리를 부른다. 검질이란 제주어로 잡초를 말하는데, 검질매는소리는 여러 종류의 노래가 전승되고 있다. 검질매는 소리에 《쫓른사데》³³⁾, 《진사데》, 《아웨기》, 《홍애기》, 《더럼소리》, 《상사소리》, 《담불소리》, 《용천검》 등 다양한 종류의 노래가 존재하고 있다.

제주도의 농사는 보리와 조, 콩 등 밭농사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특히 여름철 밭매기는 한번으로 끝나지 않았다.³⁴⁾ ‘초불검질(초벌매기)’, ‘두불검질(두벌매기)’, ‘식불검질(세벌매기)’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밭매기 작업은 유월 무더위 속에서 계속 이어짐으로써 여성들에게 고통을 안겨 주었다.

제주도 여성들은 고된 밭 작업을 ‘수눌음’³⁵⁾이라는 제주도 특유의 집단 공동

32) ‘따비’라는 농기구를 이용하여 밭을 일구는 과정에서 불려지는 노래이다.

33) 사데소리는 가락의 빠르기에 따라 <진사데>와 <쫓른사데>로 나뉜다.

34) 변성규, 『제주민요의 현장론적 연구』(서울: 민속원, 2007). 66쪽

35) ‘뽕앗이’를 일컫는 제주어이다.

작업을 통해 해결하였다. 이에 《막바지사태》를 제재곡으로 선정하여 제주도의 농업의 형태와 ‘수눌음’이라는 제주 특유의 공동작업에 대해 이해하며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제주도민의 생활 모습을 알아보고자 한다.

나. 제주도 농업요 연구

1) 흑병에부수는소리(서귀포시 예래동)

가) 연행배경과 사설의 특징

제주도는 척박한 자연환경 속에서 오랜 세월을 지내왔다. 사람들은 척박한 땅을 일구어 밭농사를 짓는데, 바람이 세고 돌이 많아 삼다도라 불리는 것도 이러한 제주도의 자연환경을 나타내는 말이라 할 수 있다. 토지의 투수성이 높아 논농사를 거의 지을 수 없고 밭농사가 주로 이루어짐으로 인해 밭을 일구고 흙덩이를 부수고 밭을 밟아 주거나 밭을 다지는 소리들이 많이 있다. 이에 제주도의 자연환경을 탐구하고 이러한 자연환경에 순응하며 농사짓는 모습을 보여주는 《흑병에부수는소리》를 제재곡으로 선정하여 지도하고자 한다.

밭농사를 함에 있어서 거친 토질을 다지기 위해 마소 등을 이용해 쟁기로 밭을 갈고, 쟁기를 가지고 농사를 짓기 어려운 땅에는 ‘따비’라는 도구를 사용하여 밭 일구기를 하였다. 밭을 일꾼 후에도 잘 일궈지지 않은 흙덩이는 흙덩이를 부수는 과정을 거쳤다. 제주도에서는 예부터 조농사를 지어왔는데, 토질이 좋지 않고 바람이 세게 불어 씨뿌리기를 마친 후에 밭밟기를 하지 않으면 수확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연행상황이 나타났다. 흙덩이를 부수는 작업은 밭이나 논을 갈고 난 후 덩어리진 흙덩이를 팽이나 곰방매 등으로 부수어 나가는 작업이다. 이 작업은 폐밭을 따비로 일구어 낸 후 그 덩어리를 팽이로 부수는 과정과 같다.³⁶⁾ 흙덩이를 부술 때 곰방매를 사용하기도 하기 때문에 여기에 수반되는 이

36) 조영배, 『제주도 노동요 연구』(서울: 도서출판예술, 1992), 78쪽.

민요를 곱방배의 제주 방언인 곱베라는 말을 사용하여 곱베질 소리라고도 부르고 있다.³⁷⁾

노래를 배울 때 노래의 가락 자체만을 익히기보다 그 노래가 불려지던 상황을 이해한다면 더욱 효과적인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에 《흑병에부수는소리》를 익히기 위해서 먼저 이 노래가 불려지던 연행상황을 알아보고 이 노래에 나온 사설의 뜻을 익혀 노래를 익히는 과정을 거치도록 한다. 이 노래의 사설과 뜻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메기는 소리】	【뜻】
역꾼님네 일심동체로	(일꾼님들 일심동체로 힘을모아)
우리새왓 이겨줍써	(우리 띠밭을 파서 엮어 주세요.)
만경창과 넓은들에	(만경창과처럼 넓은 들은)
노는땅없이 이겨보자	(한군데도 빠짐없이 파서 엮어 주세요.)
이강산에 놀던새왓	(이 들녘에 있는 잡초들이)
떡석만씩 일어나라	(명석처럼 한꺼번에 많이 일구어져라.)
송곳ㄱ똥 따비에다	(송곳같은 따비 ³⁸⁾ 로)
명석만씩 일어나라	(명석만큼 한번에 일구어져라.)
요밭을 이겨노면	(이 밭을 일구어내면)
조를갈까 산디를갈까	(조를 심을까 밭벼를 심을까?)
역꾼님네 요병에 풀어줍써	(일꾼님들, 이 흙덩이 잘 풀어주세요.)
식계집에 아기일어나듯	(제삿집에 아기가 일어나듯이)
흔번질렁 명석만씩	(한번 질러서 방식만큼)
두 번질렁 도곰착만씩	(두번 질러서 도곰착만큼)
세번질렁 떡석만씩	(세번 질러서 명석 크기 만큼)
우글우글 일어난다	(우글우글 잘도 일어난다.)
역꾼님네 일로찢렁	(일꾼님들, 여기로 찢러서)
절로찢렁 일로찢렁	(여기 찢르고 저기 찢러서)
일심동체로 일러보자	(일심동체로 일구어 봅시다.)

37) 조영배, 위의 책, 79쪽.

38) 밭의 땅을 파 엮는 농기구를 말함.

이 노래의 사설에 나타난 제주어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³⁹⁾

- 새왓 : 띠밭, 지붕을 일 띠가 자라는 밭
- 덕석 : 멍석
- 따비 : 척박한 농지를 개간할 때 쓰는 농기구
- 산디 : 밭벼
- 병에 : 씨레를 끌고 벧밭을 풀어서 밭을 고르는 것
- 식계집 : 제삿집
- 혼변질렁 : 한번 찢러서
- 도곰작 : 소등에 길마를 엮을 때 길마 밑에 놓는 보리짚

메기는 소리의 사설을 살펴보면 이 노래가 불러지는 연행상황을 그대로 표현해 주고 있다. 일꾼들이 모두 몸과 마음을 합쳐 우리 띠밭을 잘 일구어 주길 바라는 염원을 담고 만경창과처럼 넓은 밭을 일어나지 않는 부분이 없이 잘 일구어지기를 바라고 있다. 또한 ‘따비’라는 농기구를 이용해 한번에 많이 일구어지길 바라며 밭을 다 일구어낸 후에는 어떤 씨앗을 심으면 풍년농사가 이루어질까 하는 기분좋은 상상도 담겨있다.

사설 중에서 ‘식계집에 아기 일어나듯’이란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옛날에는 먹고 살기가 어려워 동네에 제삿집이 있으면 동네 아이들이 제삿밥 먹기를 고대했다고 한다. 그 날은 제사가 행해지는 집의 아이가 대장이 되어 지내는데 자정 쯤에 제사가 이루어짐에도 아이는 그날 만큼은 풍족하게 먹을 수 있다는 설렘에 어른이 한 번만 잠을 깨워도 벌떡 일어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앞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제주도 교육에서 제주어를 알고 올바르게 전승하자는 데에 뜻을 두어 점점 제주어에 대한 비중이 커지고 있다. 이에 사설에 나오는 낱말 뿐만 아니라 제주의 자연환경이라는 주제에 어울리는 속담 알기 활동을 전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한다.

39) 제주문화예술재단, 『개정증보 제주어사전』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2009)

나) 음악적 특징

《흑병에부수는소리》의 박과 붙임새 그리고 선율적 특징을 중심으로 음악적 특징을 살펴 보겠다.

《흑병에부수는소리》는 메기고 받는 형식으로 이루어진 곡으로 소리가 좋은 1명의 선창자가 메기는 소리를 하면 나머지 사람들은 ‘허기두리 더림마야’라는 받는 소리를 한다. 이 노래의 받는 소리는 흙덩이를 부수는 작업의 흥을 돋운다.

이 노래의 말붙임새는 <악보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는데 노동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불러지는 노래이기 때문에 악기를 이용하여 장단을 치기보다는 박을 느끼면서 흥겨움을 더하며 부를 수 있도록 한다.

<악보 2> 《흑병에부수는소리》 박과 붙임새

【받는 소리】

○		○		○		○	
허	기	두	리	더	림	마	야

【메기는 소리】

○		○		○		○	
허	기	두	레	더	림	마	야
허	기	두	리	더	림	마	야
역	군	님	네	일	심	동	채
우	리	새	왓	이	겨	줍	서
만	경	창	과	넓	은	들	에
노	는	땅	없	이	겨	보	자
이	강	산	에	놀	던	새	왓
덕	썩	만	썩	일	어	나	라

이 노래의 선율적 특징은 ‘도레미솔라’의 5음으로 이루어져있고 메기는 소리 1장단과 받는 소리 1장단씩 주고 받으며 부른다. 3소박 4박으로 이루어져 앞소절을 힘있게 부르면서 작업의 흥을 더한다.

<악보 3> 《흑병에부수는소리》 40) 가락선보

메기는 소리 : 강승화(남, 1939) 받는 소리 : 나덕봉(남, 1921), 문복순(여, 1927)

빠르기 : 보통빠르기

	【메】	【받】
라 솔 미 레 도		
	히 기 두 레 더 림 마야	히 기 두 리 더 림 마야
라 솔 미 레 도		
	히 기 두 레 더 림 마야	
라 솔 미 레 도		
	역 군 님 네 일 심 동채로	
라 솔 미 레 도		
	우 리 새 왓 이 겨 줍서	
라 솔 미 레 도		
	만 경 창 과 넓 은 들 에	
라 솔 미 레 도		
	노 는 땅 없 이 이 겨 보자	
라 솔 미 레 도		
	이 강 산 에 늘 던 새 왓	
라 솔 미 레 도		
	덕 석 만 씩 일 어 나 라	

40) (주)문화방송, 『한국민요대전(제주도)』, 1992, CD 6-09

처음 노래를 접할 때에는 음원을 들으며 받는 소리를 먼저 익히는 것도 노래를 쉽게 익히는 데에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받는 소리를 어느 정도 익히면 음원을 들으며 손가락으로 허공에 들리는 음높이를 그리는 방법으로 듣기를 한 후 가락선보를 살펴본다. 그런 다음에 가락선보를 보면서 음을 따라 부른다면 좀 더 쉽게 익힐 수 있다.

2) 막바지사태(성산읍 삼달리 발매는 노래)

가) 연행배경과 사실의 특징

제주도에는 밭농사가 대부분인 관계로 김을 매는 노동도 밭농사에서 주로 한다. 농사의 종류에 따라 김을 매는 작업과 그 시기가 다양하지만, 김매는 노동의 연행상황은 거의 같다. 일반적으로 김매는 작업은 조, 콩, 고구마 등 여름 농사와 관련하여 김을 매는 경우와 보리 등의 겨울 농사와 관련하여 김을 매는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 특히 여름 작물의 김매는 작업은 상당한 고역이다. 한 여름철 띄약벌에서 김을 맨다는 것은 비록 일시에 큰 힘을 요하는 작업은 아니라 할지라도 김매는 사람의 진을 빼어 놓을 만큼 힘든 일임에 틀림없다.

김매는 작업은 여성들이 주로 하였다. 일반적으로 제주도 특유의 노동복인 갈옷을 입고 밀짚 등으로 만든 모자로 태양을 가리고 김을 매었다. 김을 맬 때 사용한 도구는 ‘골갱이’라고 하는 도구로써 제주도에서 사용하는 일종의 호미이다. 제주도에서는 낫을 호미라고 부른다. 이 골갱이를 잡으면 저절로 사태소리가 나올 만큼 이 민요는 제주도 여성들에게 친숙한 민요이다.

물론 김매는 작업은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개별적인 작업이나 제주도에서는 대개 10여명씩 줄을 지어 김을 매는데, 김매는 작업도 한번에 끝내는 것이 아니라, 초불검질, 두불검질, 식불검질이라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서 작업이 이루어졌다. 한사람이 한 이랑씩 맡아 김을 매는 것이 보통인데, 한쪽 이랑 끝에서 맞은편에 이르기까지 김을 매어 나가는 것이 일의 한 단락이다. 이 과정이 끝나야 비로소

한 숨을 쉴 수 있었고, 그런 연후에 다시 반대쪽 이랑 끝에서 출발한 쪽을 향하여 김을 매었다. 다행히 밭 이랑이 짧아서 한번 김을 매는 과정이 짧게 걸릴 때에는 중간 중간 쉴 수 있는 시간이 그만큼 자주 돌아오기 때문에 여유가 생기지만 이랑이 길어 그렇지 않을 때에는 힘이 들고 상당히 지루했다.

김을 매면서 부르는 민요가 다양한 이유도 김매는 과정이 이처럼 길었기 때문이다. 즉 김을 처음 매기 시작할 때 부르는 노래와 중간 이후에 부르는 노래, 그리고 한 이랑이 끝났을 때 부르는 노래 등으로 여러 가락이 이 노래에 수반되고 있다. 대개 처음에는 긴 사데소리로 시작한다. 그 후 이랑의 중간을 넘어서기 시작하면 짧은 사데소리로 옮겨지면서 일의 지루함을 달래고 힘을 북돋게 한다.

《막바지사데》의 사설은 매기고 받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받는 소리는 ‘에요랑 사데’로 동일한데 사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매기는 소리】	【받는 소리】	【매기는 소리】	【받는 소리】
어이요랑 사데	/ 에요랑 사데	/ 앞명애야 들어나오라	/ 에요랑 사데
뒷명애랑 나고나가라	/ 에요랑 사데	/ 사데불령 요므적가자	/ 에요랑 사데
먼뫼사람 보거나 좋게	/ 에요랑 사데	/ 흥당말면 늪이나웃나	/ 에요랑 사데
에혜요랑 사데	/ 에요랑 사데	/ 검질줍이랑 즈직즈직	/ 에요랑 사데
선소리랑 꾀이나만정	/ 에요랑 사데	/ 훗소리랑 즈직즈직	/ 에요랑 사데
에혜요랑 사데	/ 에요랑 사데	/ 앞명애야 들어나오라	/ 에요랑 사데
뒷명애랑 나고나가라	/ 에요랑 사데	/ 앞인보난 태산이뫼고	/ 에요랑 사데
뒤인보난 쫍지가뫼다	/ 에요랑 사데	/ 사데불령 요므적가자	/ 에요랑 사데
에혜 요랑 사데	/ 에요랑 사데		

이 노래의 사설은 어두움이 드리우는데 아직 덜 매어진 밭이 남아 있을 때 서둘러 끝내고자 하는 마음을 담아 밭 매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노래에 나

타난 제주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⁴¹⁾.

- 헝당말면 : 하다가 말면
- 늪이나웃나 : 남이 웃는다.
- 검질 : 잡초(김)
- 평지가 뉘다 : 평지가 된다.

《막바지사데》의 사설을 좀 더 살펴 보면 ‘사데불령 요르적가자’는 사데소리를 부르면서 김을 매자는 의미로, ‘뉘릿사람 보거나 좋게/ 헝당말면 늪이나웃나’의 사설을 통해 하다가 멈추면 남이 웃으니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좋게 김을 잘 매자는 마음이 담겨있다. ‘앞인보난 태산이 뉘고/ 뒤인보난 평지가 뉘다’의 사설은 아직 김을 다 매지 못한 앞쪽은 태산이지만 김을 다 맨후의 밭의 모습은 평지가 되는 김을 맨 후의 밭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다.

나) 음악적 특징

《막바지사데》의 박과 불임새 그리고 선율적 특징을 중심으로 음악적 특징을 살펴 보겠다.

《막바지사데》는 3소박 4박을 한 장단으로 이루는 노래이며 가창방식은 메기고 받는 형식으로 선창자가 1장단을 메기면 후창자들은 ‘에요랑사데’로 1장단을 받는다. 이 곡의 말불임새는 ●●○/●●○/●●●/●●○ 또는 ●●○/●●○/●●○/●●○의 형태로 되어 있음을 <악보 4>를 보면 알 수 있다.

<악보 4> 《막바지사데》 박과 불임새

【받는 소리】

○		○		○		○	
에		요	랑	사		데	

41) 제주문화예술재단, 『개정증보 제주어사전』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2009).

【메기는 소리】

◎		◎		◎		◎	
어	이	요	랑	사		데	
앞	명	에	야	들	어	나	오
뒷	명	애	랑	나	고	나	가
사	데	불	령	요	ㅁ	적	가
먼	뒷	사	람	보	가	나	중
흐	당	말	면	늬	이	나	웃
에	헤	요	랑	사		데	
선	소	리	랑	긋	이	나	만
훗	소	리	랑	즈	직		즈
에	헤	요	랑	사		데	
앞	명	에	야	들	어	나	오
뒷	명	애	랑	나	고	나	가
앞	인	보	난	태	산	이	뒷
뒤	인	보	난	평	지	가	뒷
사	데	불	령	요	ㅁ	적	가
에	헤	요	랑	사		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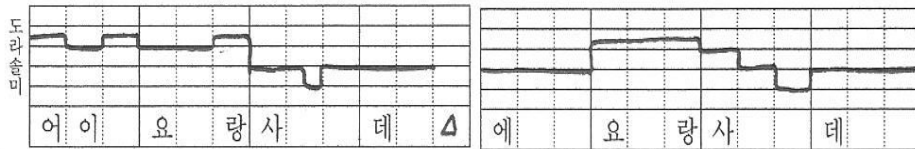
《막바지사데》는 연행배경에서 일을 빨리 마치려는 마음이 담겨있지만 곡의 빠르기는 1분에 65~67정간 정도의 보통빠르기로 부른다. 이 곡의 가락선보를 <악보 5>로 나타내었다.

<악보 5 > 《막바지사데》⁴²⁾ 가락선보

메기는 소리 : 강갑년(여,1923) 받는 소리 : 여럿
빠르기 : 보통빠르기

【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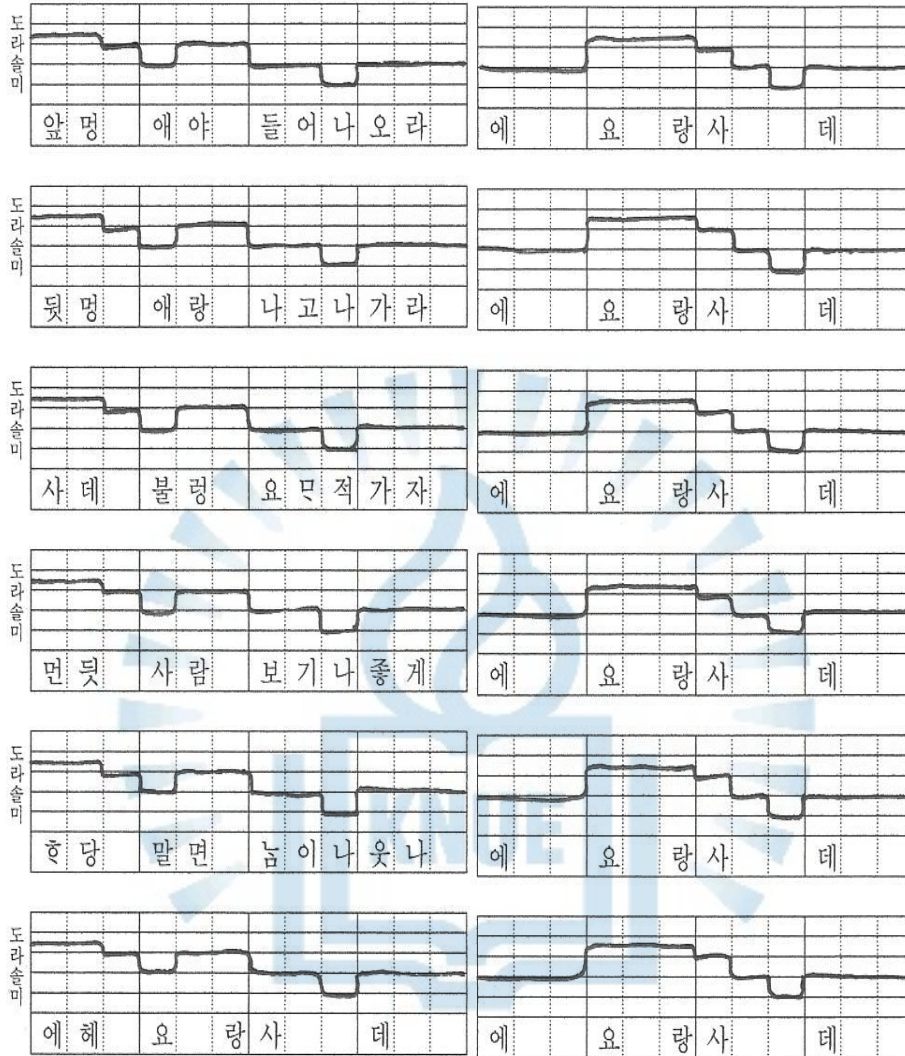
【받】



42) (주)문화방송, 『한국민요대전(제주도)』, 1992, CD 3-16

【매】

【반】



제주의 자연환경적 특성을 탐구하고, 자연의 척박함을 이겨내며 농사를 지으며 살아온 조상들의 모습을 살펴보기 위하여 주제 및 지도내용을 <표 5>와 같이 정리해 보았다.

<표 5> 주제 및 지도내용

주제	제재곡	지도내용
자연을 극복한 제주인	흑병에 부수는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을 탐방하고 제주의 자연환경 이해하기 - 《흑병에부수는소리》 익히기 - 연행상황 재현을 통해 자연을 극복한 제주인의 삶 느끼기
	막바지사데 (밭 매는 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의 농업 탐구 - 《막바지사데》 익히기 - 학급 텃밭을 함께 가꾸며 어려움을 함께 극복한 제주인의 공동체 의식 느끼기

2. 제주도의 어업과 민요

가. 제주도의 어업활동

1) 제주의 어업

제주도를 일컬어 삼다도라 일컫는데 ‘삼다’란 돌(石多), 바람(風多), 여자(女多)가 많음을 의미한다. 제주도의 생성이 원래 화산활동으로 인해 생겨난 만큼 제주도는 현무암이 주류를 이루며 돌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제주도민들은 이런 수많은 돌들을 개간하며 밭을 일구었으며 황무지를 밭으로 일구어 생활하였다. 또한 섬 지역의 특성상 바람이 세고 태풍이 많이 불어서 삶이 각박했음을 알 수 있다. 돌담을 쌓아 바람을 막아내고 초가지붕을 낮게 만들어 지붕이 날아가지 않도록 새(띠풀)로 엮어맨 모습은 바람이 많은 지역에서의 생존

방법 중의 하나였다. 제주도는 4면이 바다로 이루어져 있어 바다에서 수확하는 물건들이 많았지만, 예로부터 임금님께 진상하는 양이 너무나 많아 서민들의 삶은 궁핍하기 이를 데 없었다. 여다(女多)의 섬이라는 것은 남자들이 어업활동을 통해 바다에 나가 작업을 하나 풍랑을 만나 조난을 당하거나 사망하여 남자의 수에 비해 여자가 많았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여성이 집안의 가장이 되는 경우가 많았고, 척박한 땅을 일궈내고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기위해 여자들도 남자와 함께 일터로 나오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로 인해 제주 여성에 대한 인식이 강인함과 끈기라는 말로 대변되고 있는 듯 하다.

여자가 많음은 인구 통계의 비교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제주 여성들이 근면하게 일한다는 비유라고 해야 옳을 것이다. 거친 바다와 싸우며 어로하는 해녀는 여성들이 바다로 나가서 일하는 여다(女多)의 섬 제주를 표상하는 이름이기도 하다.⁴³⁾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제주도의 해안은 총 길이가 약 306.3km로서, 전체적으로 단조로우며 대부분은 화산암이 노출된 암석 해안이다. 화산분출물의 유입에 따라 부분적으로 독특한 해안 지형이 발달하여 왔다.⁴⁴⁾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반농반어업에 종사하였고, 어로 기술이 발달하지 못하였고, 어로작업의 규모가 작았기 때문에 어로작업과 관련된 노래는 많지 않다. 해녀들이 제주도 연안에서 전복이나 미역 등 해산물을 채취하는 물질을 하기도 하지만 상군해녀들을 중심으로 먼 바다까지 배를 저어가거나 본토로 출가물질을 가서 섬과 섬 사이를 노를 저어다니면서 물질을 하는 경우, 노를 저을 기회가 많았기에 해녀들이 부르는 《해녀노젓는소리》가 풍성하게 전승되고 있다.

사람들은 폐배를 바다에 띄워 고기잡이를 하는데, 폐배를 제주도에서는 ‘테우’라고 한다. 테우는 노를 젓는 방식이 배의 노를 젓는 방식과 달리 좌우로 반원을 그리면서 노를 젓기 때문에 노를 젓는 동작이 크고 느리다. 테우는 가끔 해녀들이 채취한 미역이나 모자반이나 우뚝가사리 등 해초를 운반하는데 이용된

43) 제주도, 『제주도지 제4권 산업·경제』(제주: 제주도지편찬위원회, 2006) 472쪽.

44) 제주도, 위의 책, 53쪽.



<사진 7> 테우

다. 제주도의 멸치후리는 일은 어로도구인 그물의 준비, 당선과 망선, 닻배와 떼배의 역할과 계원들의 협업 등에 의해 조직적,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 이에 《멸후리는소리》를 제재곡으로 하여 제주도의 어업을 살펴보고, 제주도 사람들이 함께 작업하는 모습을 통해 공동체 의식에 대한 이해를 돕

고자 한다.

앞 장에서 살펴본 제주도의 자연환경의 특성과 농업을 보면 제주도인들은 척박한 자연환경 속에서도 이에 굴하지 않고 때로는 자연에 순응하며, 때로는 자연을 개척하며 살아왔음을 알 수 있다. 제주도의 어업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특히 지금의 제주를 있게 만든 제주 해녀의 삶을 탐구해보고 척박한 자연 환경에서 이를 극복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제주도민의 생활 모습을 학교 교육에도 적용하여 그 정신을 계승하는 마음을 갖고자 한다.

2) 제주 해녀

제주의 바다를 말할 때 빼 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제주 해녀들이다. 제주 해녀들의 노동은 기계 장치 없이 물속에서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작업하며 기량이 뛰어난 대상군 해녀는 수심 20m의 바다에서도 1-2분간 무호흡으로 작업을 한다. 제주도의 바다는 제주민의 삶의 터전이다. 해녀는 이 바다에서 삶의 터전을 가꾸며 항일 운동의 중심에도 있었다. 제주의 해녀는 제주 근해에서 뿐만 아니라 타 지역으로 또는 멀리 블라디보스톡까지도 원정 물질을 갔다. 제주 근해에서 작업을 할 때에도 실력에 따라 실력이 좋은 상군해녀는 먼 바다에 나가 작업을 한다. 해녀들이 물질을 할 때는 소중기와 물적삼을 입고, 테왁망사리와 빗창 등을 이용하여 작업을 하였는데 사용했던 도구와 의복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아래와 같다.



<사진 8> 소중기

소중기는 ‘소중이’, ‘속곳’이라고도 불렸으며, 물질할 때 뿐만 아니라 부녀자들의 속옷으로도 많이 입었던 옷이다. 소중기의 특징은 입고 벗기가 편하고 품 조절 여유의 공간이 되는 옆트임이 있다. 처음에는 흰색이 많았으나 물질할 때 쉽게 얼룩져서 검은색 등 짙은 색 천에 물을 들여 만들었다. 어깨 끈을 손바느질로 누볐으며 옆은 단추매듭(별모작)과 끈으로 여며 임신 등 신체의 증감에 따라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다.

테왁 : 1960년대에 들면서 박 대신 스티로폼을 이용하여 테왁으로 사용하였다. 크기도 조금 커지고 물에 잘 떠서 이용에 편리했다.

망사리 : ‘헛물망사리’와 ‘미역망사리’로 나뉜다. ‘헛물망사리’는 촘촘하게 짜서 주로 전복, 소라, 성게 등을 캐서 담았고 ‘미역망사리’는 미역, 톳 등 해조류를 담는 용도로 쓰여 험렁하게 짜여졌다. 조락은 오분자기 등의 자갈한 해산물을 따로 보관하는 작은 망사리이다



<사진 9> 테왁망사리



<사진 10> 호명이

‘골각지’라고도 하며, 오분자기나 성게나 문어를 채취할 때 쓴다. 긴 것은 문어를 잡을 때, 짧고 날카롭게 된 것은 오분자기를 잡을 때 쓴다. 김을 땔 때 사용하는 호미(골갱이)와 비슷하다.



<사진 11> 빗창

길이 30cm 내외의 길쭉한 쇠붙이로 해녀들이 물속 바위에 붙어있는 전복을 떼어내는데 쓰인다. 빗창은 머리끝에 둥글게 끈을 달아 손을 넣어 빗창을 잡았을 때 빠지지 않게 하고, 전복을 채취할 때 지렛대 역할을 한다.



<사진12> 물적삼

소중기 위에 흰 무명으로 만든 적삼을 입는데 추위를 막거나 해파리나 바다 해충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1930년경에 입기 시작했으나 만들어 입을 옷감이 흔하지 않았으므로 1960년경에야 일반화되었다. 자맥질 할 때에 물이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소매나 도련에 끈이나 고무를 놓아 조이기도 했다. 그리고 깃마다 스티치를 놓아 한껏 벗을 내기도 했다. 입는 방법은 소중기 안에 입기도 하고 소중기 밖에 입기도 했다.

어업활동을 통해서 살펴 본 제주도 사람들의 생활 모습에서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는 공동체 정신을 엿볼 수 있다. 이에 지도 주제를 ‘바다와 함께 하는 삶’으로 정하고, 바다에서 협업으로 작업이 이루어지던 《멜후리는소리》, 역경의 상징인 해녀들이 부르며 고난을 잊고자했던 《해녀노젓는소리》를 제재곡으로 정하여 지도하고자 한다.

나. 제주도 어업요 연구

1) 멜후리는소리(구좌읍 동김녕리)

가) 연행배경과 사설의 특징

제주도 민요에 노동요가 많은 것은 제주사람들의 생활이 노동과 밀착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척박한 자연환경과 사회역사적 조건은 제주사람들이 일하지 않고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상황의 연속이었다. 그래서 제주사람들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서로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함께 도와주는 수눌음으로 생업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집단성이 매우 강한 성격을 띠게 되었다. 해촌은 반농반어의 생산구조가 보편화되어 있으나 물때에 맞춰 어업에 종사하는 일이 발

농사보다 핵심 생업이었다. 해촌에서도 마을 공동체의 집단 의식을 충족시키는데 중요한 구실을 한 것은 수놓음이었다.

《멜후리는소리》는 멸치잡이를 하면서 작업의 능률을 살리기 위해 불렀는데 제주도의 멸치잡이는 ‘걸바다’ 중 모래밭 어장에서만 펼쳐지는 어로기술이었다. 제주도에는 멸치를 잡는 ‘방진그물’과 ‘후릿그물’이 있었는데 ‘방진그물’이 바다 한 가운데서 커다란 그물로 고기를 에워 둘러놓고 그 안에서 자그마한 그물로 떠 잡는 것이라면, ‘후릿그물’은 그물로 고깃뼈를 두른 후 여럿이 물에서 그물을 끌어당겨 잡는 그물이었다. ‘방진그물’은 제주도 북동부 일부 마을에서 행해져 왔고, ‘후릿그물’은 모래밭이 있는 갯마을에서 이루어져 왔다.⁴⁵⁾

멸치후리는 음력 3월에서 10월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밭일을 끝내고 돌아와 저녁을 먹고 난 후 물때에 맞춰 주로 밤중에 이루어졌다. 이 작업을 하려면 하나의 어로공동체를 조직해야 했는데, 그것이 ‘그물집’이다. 그물집은 멸치잡이 철에 그물을 가지고 공동으로 작업하고 그 생산물을 나누어 가질 뿐만 아니라 어로작업의 풍어를 기원하는 ‘그물크사’나 ‘영감굿’에 이르기까지 신앙과 노동을 함께하는 어로공동체였다. 한 집의 구성원은 대개 30~70명 정도⁴⁶⁾로 각자 역할을 정해 집을 이끌었다. 해안에서 약 1km쯤 떨어진 바다까지 거룻배들이 원을 둘러가며 멸치를 모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때 동원되는 배들은 그 기능에 따라 당선·망선·닷배로 구분하고 있다. 당선은 멸치뼈를 순시하는 기능을 하고, 망선은 그물을 직접 신고 가는 배이고 닷배는 닷을 놓아 그물 작업을 기준 잡는 기능을 하는 배이다. 이 작업은 보통 자정쯤 밀물 때 그물을 놓고 멸치를 몰아가는 동이 틀 때까지 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 거룻배들이 바닷가로 멸치를 몰아가면, 바로 바닷가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 일제히 그물을 잡아당기면서 그물 후리는 작업을 하게 된다.

《멜후리는소리》의 사설을 살펴보면, ‘당선에서 멜발을보고/ 망선에서 후림을 노라/ 닷배에서 진을재왕/ 농쟁이와당에 다물려놓고/ 앞케기랑 선진을 놓고/ 뒷

45) 고광민, 『제주도포구연구』 (제주: 제주대학교탐라문화연구소, 2003), 249쪽.

46) 한기홍, “멸치 후리는 노래의 실상”, 『민요론집』 창간호(민요학회, 1988), 393쪽.

퀘기랑 후진을 노라/ 한불로 멜나간다/ 공원제장 부인덜은/ 당선에 망선에 봉기를 꼽앙'으로 멜후리는 작업의 실태가 그대로 사설에 반영되었다. 이 노래에 나오는 '공원'은 그물잡이 재무를 맡는 접꾼이고, '제장'은 접의 대표를 말한다. '그물잡이'에 가입하며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공동으로 출자하고 작업하며 분배한다. 어로활동에 수고가 많은 사람들은 그에 비례해 몫을 분배받기도 한다. 당선은 멸치가 물려왔는지 확인하는 배이고, 망선은 그물을 신고 나가는 배이다. 이 노래의 메기는 소리를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영~허야 뒤야 / 어기여뒤여 방애여 / 동깨코라근 등곶은여로 / 서깨코라근 소여곶들로 / 당선에서 멜발을보고 / 망선에서 후림을노라 / 닷배에서 진을재왕 / 추즈안골 사수안골래긴 / 농령이와당에 다물려놓고 / 앞퀘기랑 선진을놓고 / 뒷퀘기랑 후진을노라 / 베에터위 놉덜은 / 옷베리를 실작들르라 / 한불로 멜나간다 / 그물코의 삼천코라도 / 베릿내가 주장이여 / 당선에 망선에 봉기를 꼽앙 / 공원제장 부인덜은 / 밥주걱 심어근 춤을춘다 / 우리 옛조상덜 헛단 일을 / 잊어볼지 말아근 웨살려보자 / 멜은 날마다 하영걸어다 놓고 / 영~허야 뒤야 / 큰말은 비양도로 시집가고 / 셋말은 가과도 시집가고 / 죽은말은 법환리 시집보내된 / 우리 두늬은이만 이멜어뎡치단헛리

《멜후리는소리》의 사설에 나타난 제주어를 살펴보면 연행상황과 사설의 내용이 일치하여 제주 바다와 관련된 말을 접할 수 있다. 사설에 나타난 제주어⁴⁷⁾를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 깨코 : 멸치잡이 그물의 한 부분을 '깨코'라 하며, '동깨코'는 동쪽의 깨코라는 뜻임
- 등곶은여 : 제주도 동김녕리 앞바다에 있는 여의 이름

47) 제주문화예술재단, 『개정증보 제주어사전』(제주: 제주특별자치도, 2009)

- 깨코 : 멸치잡이 그물의 한 부분을 ‘깨코’라 하며, ‘동깨코’는 동쪽의 깨코라는 뜻임
- 등곶은여 : 제주도 동김녕리 앞바다에 있는 여의 이름
- 당선 : 어로작업 때 지휘, 감독하는 배
- 뿔발 : 멸치가 떼지어 모이는 것
- 후림을 노라 : 그물을 놓아라
- 옷베리 : 그물 위쪽 코를 꿰어 잡아당기는 동아줄
- 한불 : 그물의 앞쪽 코를 꿰어 잡아당기는 동아줄
- 공원제장 : ‘그물잡이’라는 멸치잡이 계의 공원과 제장
- 하영걸어다놓고 : 많이 잡아놓고, 여기서 ‘하영’이라는 말은 많다라는 뜻으로 지금도 제주도에 많이 쓰이고 있는 말이다.

뿔을 후리는 어로작업에 있어 ‘그물잡이’를 조직하여 당선, 망선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주어 함께 고된 어로작업을 해 나간다. 뿔을 잡으면서 망선의 기분을 느끼고 이 많은 뿔을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하는 기쁨도 담겨있다.

나) 음악적 특징

《뿔후리는소리》는 3소박 4박이 한 장단으로 이루어져 메기는 소리와 받는 소리가 한 장단씩 서로 주고 받으며 부른다. 뿔을 잡는 과정에서 망선을 이루고자 하는 소망과 함께 노동의 힘겨움을 이겨내기 위해 역동적으로 불려지고 있다.

《뿔후리는소리》의 가창방식은 메기고 받는 형식으로 선창자가 메기는 소리를 하면 ‘엉~허야 뒤야’의 받는 소리가 이어진다. 경쾌하게 장단을 치며 부를 때 그 흥겨움이 더해진다. 이 때 그물을 당기는 사람 중에서 가창력이 뛰어난 사람이 선소리를 하기도 하고, 선소리꾼이 별도로 있어 노래를 이끌어 가기도 한다.

이 노래의 박과 붙임새는 <악보6>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악보 6> 《멜후리는소리》 박과 붙임새

【받는 소리】

◎		◎		◎		◎	
영		허	어	야	데	-	요

【떼기는 소리】

◎		◎		◎		◎	
영		허	어	야	데		요
어	여	뒤	여	방		어	여
동	깨	에	코	라	근	등	곱
은	여	로					
서	깨	에	코	라	근	소	여
코	트	들	로				
당	선	에	선	멜	발	을	보
고							
망	선	에	선	후	림	을	노
라							

《멜후리는소리》를 부르며 박을 칠 때에는 연행장면을 떠올리며 그물을 끌어 올리며 박자에 맞춰 흥겹게 불러본다. 이 곡의 빠르기는 1분에 54-56정간의 보통빠르기로 불러진다. 떼기는 소리 부분은 많은 기교를 요하기 보다는 작업에서의 흥을 돋아주며 받는 소리도 ‘영-허야-뒤에야’를 부르며 어려운 작업 속에서도 함께 경쾌함을 느낄 수 있게 부른다.

《멜후리는소리》 노래의 가락선보는 <악보 7>과 같이 제시되고 있다.

<악보 7> 《멜후리는소리》 48) 가락선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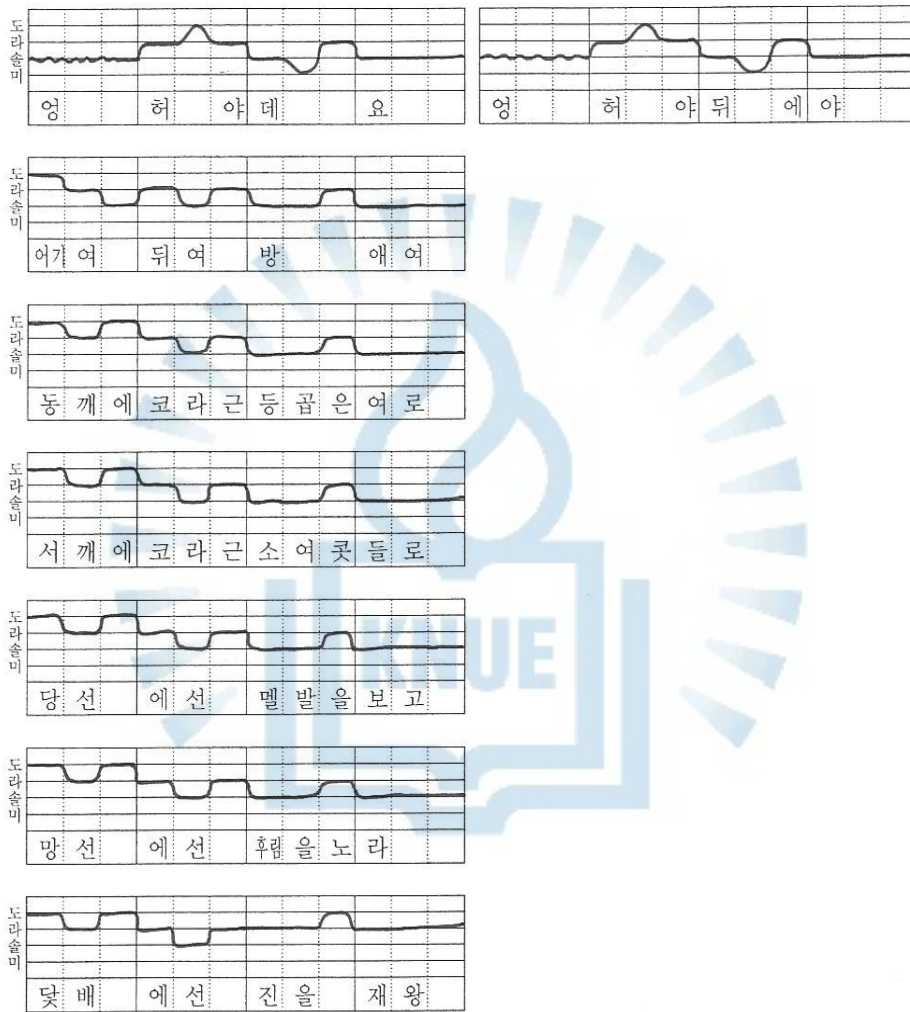
메기는 소리 : 강갑년(여, 1923)

받는 소리 : 여럿

빠르기 : 보통빠르기

【메】

【받】



48) (주)문화방송, 『한국민요대전(제주도)』, 1992, CD 2-05

2) 해녀노젓는소리(구좌읍 동김녕리)

가) 연행배경과 사설의 특징

제주도지정 무형문화재인 《해녀노젓는소리》는 제주도의 해녀들이 해산물을 채취하기 위해 배를 타고 작업을 나가거나 들어올 때 배의 노를 저으면서 부르는 노래이다.⁴⁹⁾ 본토출신이나 일본의 해녀들에 의해서는 거의 불리지 않으며, 제주도 출신 해녀들에 의해서만 본래적인 노래가 전승되고 있다. 이는 제주도민들이 상고시대부터 오늘날까지 줄곧 해녀작업을 이어왔고, 제주도 해녀들은 제주도 연안 뿐 아니라 본토나 일본, 중국, 러시아까지 진출하여 해녀작업을 해왔으므로 노래를 부를 기회가 많았다.⁵⁰⁾ 《해녀노젓는소리》는 해녀들이 바닷가에서 ‘테왁’을 짚고 물질할 장소까지 헤엄쳐 나가면서 불리기도 하지만, 대개는 작업할 장소까지 배의 노를 저어갈 때 노 젓는 동작에 맞추어 부른다. 대부분의 《해녀노젓는소리》는 제주도 연안이나 본토에서 인근 섬까지 배를 타고 뱃물질을 나갈 때나, 또는 제주해녀들이 본토로 출가하는 경우 발동선이 아닌 돛배를 타고 나갈 경우 배의 노를 저으면서 주로 불리고 있다. 해녀들이 오랜 시간 동안 배 위에서 마주 서서 노를 잡고 힘차게 밀고 당기면서 부른다는 점에서 역동성이 강하다. ⁵¹⁾

제주해녀가 《해녀노젓는소리》를 부르는 경우는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한본토 여러 연안으로 배를 타고 노 저어 나갈 때, 또는 제주도 연안에서나 출가지 연안에서 물질을 하기위해 배를 타고 먼 바다의 일정한 정점까지 나가거나 돌아올 때 노를 저으면서 싱그럽게 부르는 게 주장이고, 가다가 ‘테왁’이라는 해녀연장을 가슴에 얹고 헤엄쳐 나가면서도 부른다. 노를 저어 나갈 때는 ‘뱃물질’이라고 하고, 헤엄쳐 나갈 때는 ‘굿물질’이라 한다.⁵²⁾ 《해녀노젓는소리》는 원래 뱃사

49) 변성구, 『제주민요의 현장론적 연구』(서울: 민속원 2007), 228쪽.

50) 변성구, 위의 책, 229쪽.

51) 변성구, 위의 책, 229~230쪽.

52) 김영돈, 『제주도 민요연구 下』(서울: 민속원, 2002), 76쪽.

풍인 격군이 부르는 《노젓는소리》인데 해녀들이 뱃사공과 함께 뱃물질을 나갈 때, 뱃사공이 부르는 “이어도사나” 또는 “이어싸나”와 같은 후렴을 해녀들이 모반해서 《해녀노젓는소리》를 부르다가, 해녀들이 본토로 출가물질을 나올 때나 본토에서 연안의 섬으로 뱃물질을 오가며 장시간 동안 노를 젓게되자 자신들의 한탄스런 삶을 사설로 엮어서 《해녀노젓는소리》를 불렀다.⁵³⁾

《해녀노젓는소리》의 사설은 다음과 같이 매기는 부분과 받는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매기는 소리】	【받는 소리】	【매기는 소리】	【받는 소리】
이어싸나	/이어싸나	/이어도사나	/이어싸
이어도사나	/이어도사나	/요넬젓엉	/요넬젓엉
어덜가리	/어덜가리	/진도바당	/이어도사나
혼골로가세	/혼골로가세	/혼착손엔	/혼착손엔
테왁심고	/테왁심고	/혼착손엔	/혼착손엔
빗창심어	/빗창심어	/혼질두질	/혼질두질
들어간보난	/들어간보난	/저성도가	/저성도가
분명흐다 히	/분명흐다	/이어도사나	/이어도사나
쳐라쳐라	/쳐라쳐라	/혼목지영	/혼목지영
어서나가자	/어서나가자	/이어도사나	/이어도사나
우리어명	/우리어명	/날날적에	/날날적에
가시나무	/가시나무	/몽고지에	/몽고지에
손에꿍이	/손에꿍이	/박으라고	/박으라고
날냥던가	/날냥던가	/이어도사나 히	/이어도사나
쳐라쳐라	/쳐라쳐라	/앞을사자	/앞을사자
가민가고	/가민가고	/말면말지	/말면말지
초신을 신고	/초신을 신고	/시집을 가리 히	/시집을 가리
이어도사나	/이어도사나	/쳐라쳐라	/쳐라쳐라
잘도흐다	/잘도흐다	/이어도사나	/이어도사나

53) 이성훈, 『해녀의 삶과 노래』 (서울: 민속원, 2005)

《해녀노젓는소리》는 힘겹게 노를 저어 바다로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노래의 사설에 나타난 제주어⁵⁴⁾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요넬젓엉 : 요 노를 저어
- 바당 : 바다
- 테왁 : 박의 씨통을 파내고 구멍을 막아서 해녀들이 작업할 때 바다에 갖고 가서 타는 물건
- 빗창 : 해녀가 바닷속에 들어가서 전복을 캐는 데 쓰는 길쭉한 쇠붙이로 된 연장으로 길이는 30cm쯤이며 동그랗게 말린 머리에는 손잡이가 달려있음.
- 저승도가 : 저승길이
- 몽고지에 : 노를 저을 수 있도록 노 위쪽에 마련된 손잡이
- 손에 썩이 : 손에 가지 또는 손에 못이
- 혼저젓엉 : 부지런히 저어서
- 요내상척 : 이 노의 상반부
- 선흘곶디 : 조천읍 선흘리에 있는 수풀에
- 요벤드레 : 요 노의 벤드레, '벤드레'는 노를 저을 수 있도록 배명애와 노손을 묶어놓은 밧줄
- 남충친이 : 삼으로 끈 노끈
- 고동생북 : 소라고동과 생북
- 선세나빠 : 형세가 나빠서
- 요네곶댕 : 요 노 곶다고

나) 음악적 특징

《해녀노젓는소리》의 박과 불임새 그리고 선율적 특징을 중심으로 음악적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54) 제주문화예술재단, 『개정증보 제주어사전』(제주: 제주특별자치도, 2009)

이 노래는 두 팀으로 나누어 노를 저어갈 때 부르는 전형적인 노래인데 ‘쳐라 쳐라’하는 부분은 선소리꾼이 분위기를 바꾸어 힘을 다시 모으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소리로 경쾌한 느낌으로 불러 볼 수 있다. 이 노래의 박과 붙임새는 다음과 같다.

<악보 8> 《해녀노젓는소리》 박과 붙임새

장단	◎				◎				
메기는소리	이	여	싸	나	아		아		
받는소리					이	여	싸	나	

이	어	도	사	나	으		아		이	어	도	사	나	아		아			
					이	어	도	사	나						이	어	도	사	나

요	넬	젓	엉	어	어	어	딜	가	리						
				요	넬	젓	엉					어	딜	가	리

진	도	바	당			훈	골	로	가	세							
				이	여	도	사	나					훈	골	로	가	세

훈	착	손	엔			테	왁	심	고						
				훈	착	손	엔					테	왁	심	고

훈	착	손	엔			빗	창	심	어						
				훈	착	손	엔					빗	창	심	어

훈	질	두	질			들	어	간	보	난						
				훈	질	두	질					들	어	간	보	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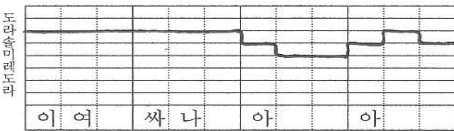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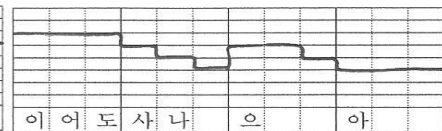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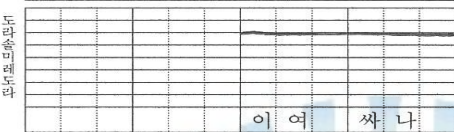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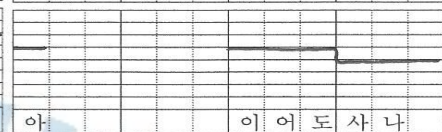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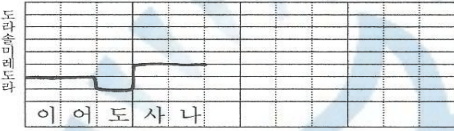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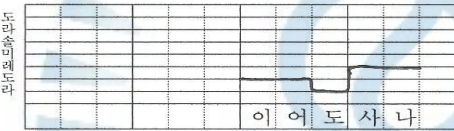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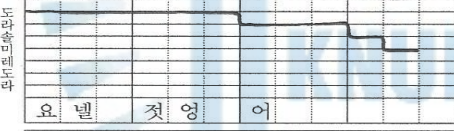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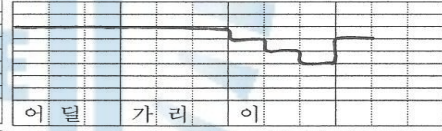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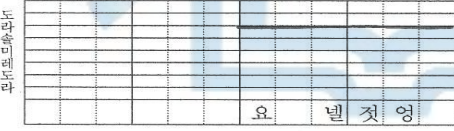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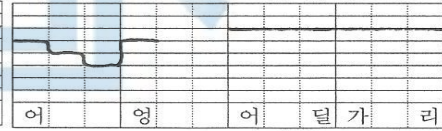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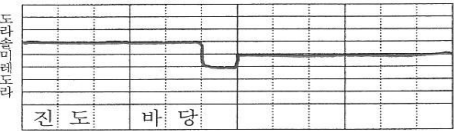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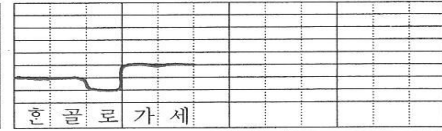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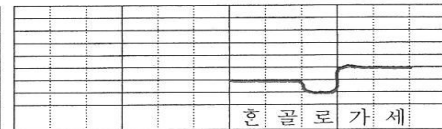
저	승	도	가			분	명	-	흐	다	히				
				저	승	-	도	가				분	명	흐	다

《해녀노젓는소리》는 메기는 소리와 받는 소리의 형식을 지니는데 메기는 소리와 받는 소리가 거의 같이 이루어졌다. 이 노래의 가락선보는 다음과 같다.

<악보 9> 《해녀노젓는소리》 55) 가락선보

메기는 소리 : 김경성(여,1939) 받는 소리 : 여럿

빠르기 : 보통빠르기

【메】		
		
【메】		
		
【메】		
		
【메】		
		

55) (주)문화방송, 『한국민요대전(제주도)』, 1992, CD 2-05

【메】		
	흔 착 손에 에	테 왁 심 고
【받】		
	흔 착 손에	테 왁 심 고
【메】		
	흔 착 손에	빗 창 심 영
【받】		
	흔 착 손에	이 어 도 사 나
【메】		
	흔 질 두 질	들 어 간 보 난
【받】		
	흔 질 두 질	들 어 간 보 난
【메】		
	지 성 도 가	분 명 하 다 헛
【받】		
	지 성 도 가	분 명 하 다

제주도민의 생활모습을 통해 바다와 함께하는 삶은 어떠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을 내면화 하고자 한다. 주제와 지도내용을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6> 주제 및 지도내용

주제	제재곡	지도내용
바다와 함께 하는 삶	멜후리는 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의 어업 탐구를 통해 《멜후리는소리》 연행배경 알아보기 - 《멜후리는소리》 익히기 - 연행상황 재현을 통해 조상들의 공동체 의식 느끼기
	해녀 노젓는 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해녀의 삶과 《해녀노젓는소리》의 연행배경탐구 : 해녀박물관 탐방 - 《해녀노젓는소리》 익히기 - 해녀들이 물질에 사용했던 ‘테왁’ 만들고 노래 불러보기

3. 제주도의 문화와 민요

제주도는 육지부와 다른 독특한 민속문화권을 이룬다.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해 의식주, 신앙, 세시풍속 등이 독특하고, 외떨어진 섬으로서 고어, 신화, 전설, 민요 등 구비전승이 풍부하다. 제주도의 역사와 문화를 이야기하면서 신들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제주도는 신들의 섬이라 할 만큼 그에 얽힌 이야기가 많이 전해오고 있다. 험난한 삶 속에서 여러 가지 고난을 극복하며 살아온 제주도민들의 민속문화를 살펴 보고자 한다.

가. 제주의 민속문화

역사적으로 큰 사건들을 살펴 보면, 고려시대 삼별초의 난을 시작으로 하여

몽고의 침략과 전후 1세기에 걸친 몽고의 통치, 목호의 난, 왜구의 끊임없는 침투, 선교사의 입도, 1898년에 일어난 민중항쟁인 방성철의 난, 관노 이재수와 오대현이 이끈 민란인 이재수의 난, 그리고 이조 목관들의 무자비한 수탈 행위와 해녀들의 반일 항쟁, 또한 일제 말기의 한반도 사수를 위한 일본군의 결전 기지로 쓰임으로 인해 많은 삶들이 수탈을 당했으며, 해방 후에 일어난 4·3 민중항쟁 등이 있다.

제주도민을 시달리게 했던 일들은 토호의 횡포와 중앙정부 및 관리들의 수탈, 공물 마련과 공무 운송의 어려움과 극심한 부역 등을 말할 수 있다. 제주도의 역사는 술한 공납에 시달리는 역사였다. 제주도민의 종주국에 대한 공납은 삼국시대와 고려시대에 거쳐 조선시대에 이르면서 더욱 가중되었다. 『세종실록』 권151 「지리지」 등에 기록된 진상품목을 보면, 말·전복·굴을 비롯하여 비자·비자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것이 속해있다. 전복만 하더라도 전복·인포·추포·수포 등 각양이며, 굴에는 감굴·유자·유감·통찰굴·금굴·산굴 등 가지가지가 들어 있다. 오징어·옥돔·다시마 등 어조류와 진피·반하 등 술한 약재 및 녹용 등도 끼어 있다.⁵⁶⁾ 도민들은 공납을 위해 종주가 바뀔 때마다 시달려 왔으며 간신히 의식주를 해결하며 살아왔다. 공물을 마련하는 어려움 뿐만 아니라 진상품을 서울로 나르는 괴로움 또한 매우 컸으며 바다의 변덕스러운 날씨로 인해 진상선이 침몰하고 많은 장정들이 사망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였다. 그러기에 제주 바다는 제주 도민들에게 친숙한 일터이면서도 진상선, 어로선을 삼키는 공포의 대상이었고, 세차게 몰려드는 물결은 토호, 관리, 조정, 원·명, 왜구 등으로부터 이중 삼중으로 뜯는 상징이기도 했다.

제주사람들은 물 부족과 가뭄, 바람으로 인한 삼재의 기후 조건 속에서 생활을 유지하고 이겨내야 했기에 때로는 자연과 사회에 도전하기도 하고 순응하기도 하면서 삶을 영위하였으나 치열한 도전과 적응을 통한 극복 노력에도 불구하고 생존을 위협하는 거대한 힘 앞에서 한계를 절감하며 초자연적이고 초월적

56) 김수정, “제주도 노동요에 나타난 여성의식 연구” (서울: 서울시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8)

인 존재에 의존하여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소망하였다.

제주섬이 태풍의 길목에 위치하고 있는 데다가 척박한 토지 조건, 그에 따른 풍·수·한(風·水·旱) 삼재의 기후 조건 속에서 제주인들은 그들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자연과 고된 싸움을 치를 수 밖에 없었으며, 여기서 제주 사람들은 초월자에 지향하는 무속적 생활 태도를 지니게 되었다. 이것은 인간이 극한 상황에 처했을 때 구세주를 찾는 원리와 같다고 할 것이다. 조선조 당 오백, 절 오백이 있었다는 기록은 바로 제주인들의 무속적 삶의 세계를 잘 설명해 주는 것인데 어떤 사람들은 제주섬을 ‘신들의 고향’ 혹은 ‘신들의 섬’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무속적 분위기는 제주도의 동부지역에 더욱 현저하게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제주의 동부는 서부보다 전통적 농업 환경에서 보아 열악한 조건을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⁵⁷⁾

나. 관련 민요 연구

1) 서우젯소리(대정읍 하모리)

가) 연행배경과 사설의 특징

제주도에서 영등굿 등의 굿을 할 때 석살림이나 영감놀이 등의 제차에서 부르던 무속음악으로 영감신이 한라산에 와서 영감놀이를 하는 과정까지를 풀이하는 과정과 제주도의 여러 가지 정황, 역사·지리적 환경, 생활환경 등을 소상하게 풀이한다. 《서우젯소리》는 굿의 현장에서 전승될 뿐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즐겨 흥겹게 놀면서 부르기도 하고, 노동의 현장에서 불리는 가창유희요, 노동요의 성격을 갖고 있다.

《서우젯소리》는 제주도 전역에 걸쳐 널리 전승되는 제주도의 고유한 민요 중 하나로 다양한 일상생활에서 전승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흥겹게 만들어

57) 제주도, 『제주도지 제5권 사회·교육·여성』 (제주: 제주도지편찬위원회, 2006), 46쪽.

야 할 자리에서 춤을 추며 노는 놀이의 현장에서, 김매는 일을 하거나 불미작업에서, 그리고 멸치후리는 일 등 노동현장에서, 근래에는 축제의 현장에서도 불리고 있다. 제주도민들은 무속의례나 놀이와 노동이 별개가 아니라 하나의 혼합체로 생각했기에 제주도 사람들의 생활 전반에 걸쳐 가창될 수 있고 지속적으로 전승이 이루어지고 있다.

《서우젓소리》의 사실 부분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이 매기는 소리와 받는 소리로 나누어 이루어진다.

【매기는 소리】

【받는 소리】

	/ 아하앙아하아야 에헤앵에헤에요
어여차 뒤어여차 서우젓소리가 넘어간다	/ 아하앙아하아야 에헤앵에헤에요
칠성판을 등에지고 혼백상을 머리에잉잉	/ 아하앙아하아야 에헤앵에헤에요
시퍼령흔 저바다를 건너어야 가실적의	/ 아하앙아하아야 에헤앵에헤에요
어느야 누구가 나를도와나 주실거나	/ 아하앙아하아야 에헤앵에헤에요
일월ㄴ똥 서낭님이 앞을삼아 가는구나	/ 아하앙아하아야 에헤앵에헤에요
치를잡아 가실적의 서낭일월이 앞을삼아	/ 아하앙아하아야 에헤앵에헤에요
보기좋은 여긋딜로 그물가게나 햅여줍서	/ 아하앙아하아야 에헤앵에헤에요
저바다를 배질홀적의 서낭일월을 앞삼으고	/ 아하앙아하아야 에헤앵에헤에요
한배한내 선원들이 열두동무를 거느리어	/ 아하앙아하아야 에헤앵에헤에요
무췌솔에 요선원들을 앞세우고	/ 아하앙아하아야 에헤앵에헤에요
서낭일월 힘을믿어 돈을벌라고 나가는다	/ 아하앙아하아야 에헤앵에헤에요
앞발로 바다를헤친 뒷발로 허우치멍	/ 아하앙아하아야 에헤앵에헤에요
용궁서낭 앞삼고 고기잡이를 나가는다	/ 아하앙아하아야 에헤앵에헤에요
하늘은보면 어디곳디도 비바람은 쳐드는데	/ 아하앙아하아야 에헤앵에헤에요
믿어가는 서낭일월 우리열도 동무를살라	/ 아하앙아하아야 에헤앵에헤에요
고개고개 넘어오는 문둥눌을 자치면서	/ 아하앙아하아야 에헤앵에헤에요

불쌍하신 우리어부 살려나 주옵소서 / 아하양아하아야 예헤앵에헤에요

이 노래를 고기잡이 나가는 어부들의 잘 보살피달라는 염원을 담고 있는데 이 사설에 나타난 제주어⁵⁸⁾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 머리에 잉잉 : 머리에 이고
- 치 : 키
- 여긔덜로 : 여끝으로(‘여’는 물 속에 잠겨있는 바위를 뜻함.)
- 문둥놀을 : 사납고 거센 물결
- 자치면서 : 젓히면서

고기잡이를 나가 사납고 거센 폭풍을 만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지만 신의 도움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사람들의 염원을 담고 있다.

나) 음악적 특징

《서우젓소리》의 음악적 특징은 3소박 4박이 1장단으로 이루어진 메기고 받는 형식을 보이지만 1장단씩 주고받지 않고 각 2장단씩 주고 받으며 부른다. 박과 붙임새를 나타낼 때는 2장단씩 묶어 제시할 수 있다.

《서우젓소리》의 박과 붙임새는 <악보 10>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악보 10> 《서우젓소리》 박과 붙임새

【받는 소리】

○		○		○		○		○		○		○		○							
아				아		야		에		헤		앵		에		헤		에		요	

58) 제주문화예술재단, 『개정증보 제주어사전』(제주: 제주특별자치도,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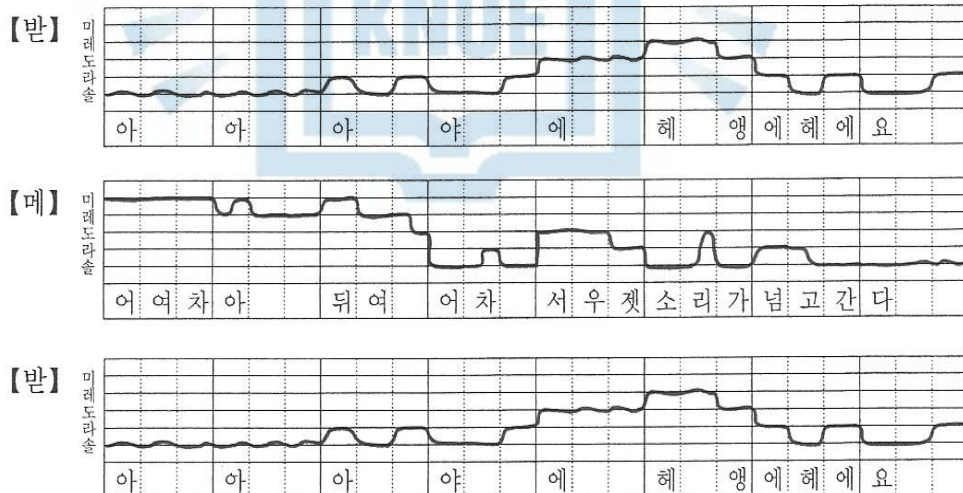
【메기는 소리】

○		○		○		○		○		○		○					
어	여	차	아	뒤	여	어	차	서	우	젓	소	리	가	넘	고	간	다
칠	성	관	을	등	에	지	이	고	혼	백	상	을	머	리	에	잉	영
시	퍼	렁	흔	저	바	다	를	건	너	어	야	가	실	적	의		
어	느	야	누	구	가	나	를	도	와	나	주	실	거	냐			
일	월	꺾	뜯	서	낭	님	이	앞	을	삼	아	가	는	구	나		
치	를	잡	아	가	실	적	의	서	낭	일	월	이	앞	을	-	삼	아
보	기	좋은	여	곳	덜	로	그	물	가	게	나	호	여	줍	서		

《서우젓소리》의 가창방식은 메기고 받는 형식으로 받는 소리 ‘아~~아~야~에~헤-앵에헤에요~’로 일정하다. 《서우젓소리》는 가락선보는 다음과 같이 제시되고 있다.

<악보11> 《서우젓소리》 59) 가락선보

메기는 소리 : 김영순(여,1927) 받는 소리 : 여럿
빠르기 : 보통빠르기



59) (주)문화방송, 『한국민요대전(제주도)』, 1992, CD 2-05

【메】 미려노라순
 칠 성 관 을 등 에 지 이 고 혼 백 상 을 머 리 에 잉 잉

【반】 미려노라순
 아 아 아 아 에 헤 앵 에 헤 에 요

【메】 미려노라순
 시 퍼 령 현 저 바 다 를 건 너 야 가 실 적 의

【반】 미려노라순
 아 아 아 아 에 헤 앵 에 헤 에 요

【메】 미려노라순
 어 느 야 아 누 구 가 나 를 도 와 나 주 실 거 냐

제주도의 민속문화를 지도내용으로 살펴보고 아래와 같이 ‘제주섬 속에 꽃피운 무속신앙’으로 주제를 정하여 《서우젓소리》 지도를 통해 제주의 무속신앙을 탐구해 볼 수 있다.

<표 7> 주제 및 지도내용

주제	제재곡	지도내용
제주섬 속에 꽃피운 무속신앙	서우젓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의 무속 신앙 탐구 - 《서우젓소리》 익히기 - 소망을 담아 가사 바꿔 부르기

IV. 제주도 민요의 주제별 지도방안 연구

‘제주 알기 프로젝트’는 사라져가는 제주도 민요의 아름다움을 이어나가고 육지와는 다른 사회적·문화적 독특함을 이해하여 제주도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기르고 점점 사라져가는 제주의 민속문화를 후대에도 간직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아래 3단계의 제주 알기 프로젝트로 구성하였다.

‘제주 알기 프로젝트’의 1단계 과정에서는 제주도의 자연환경 및 농업과 어업, 민속문화 등의 주제를 사회과와 관련하여 탐구하고 2단계 과정에서는 음악과와 관련하여 제주도 민요를 익힌 후에 3단계 과정에서 1, 2단계 과정의 학습을 바탕으로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이용하여 각 주제와 연계된 체험활동을 통해 내면화한다.

자연을 극복한 제주인, 바다와 함께 하는 삶, 제주섬 속에 꽃피운 무속신앙의 세 주제를 통해 제주 알기 프로젝트에서 가르칠 제재곡은 《흑병에부수는소리》, 《막바지사데》, 《멜후리는소리》, 《해녀노젓는소리》, 《서우젓소리》이다.

첫 번째 주제인 ‘자연을 극복한 제주인’에서는 《흑병에부수는소리》, 《막바지사데》를 불러 척박한 자연환경과 노동의 고됨을 이겨내고 두 번째 주제인 ‘바다와 함께 하는 삶’에서는 《멜후리는소리》, 《해녀노젓는소리》를 통해 4면이 바다로 이루어진 제주에서 서로 도와가며 어려움을 극복하고 세 번째 주제인 ‘제주섬 속에 꽃피운 무속신앙’에서는 《서우젓소리》를 통해 제주의 민속문화 알기로 이루어진다.

제주도의 자연환경과 농업의 탐구를 통해 ‘자연을 극복한 제주인’의 삶에 대해 학습하고, 주제탐구 활동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을 탐방하여 제주의 자연환경의 특징을 알고, 토질에 따른 밭농사의 과정을 살펴본다. 《흑병에부수는소리》와 《막바지사데》를 제재곡으로 하여 노래를 익히고 여행상황의 재현을 통해 제주의 자연환경과 조상들의 삶을 돌아볼 기회를 제공한다.

‘바다와 함께 하는 삶’에서는 제주 해녀박물관을 탐방해 보고 제주의 어업활동과 해녀들의 삶을 탐구하고, 《멜후리는소리》, 《해녀노젓는소리》를 익히고 난 후에는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해녀들이 사용하던 도구인 테왁을 만들어보고 노래부르기 활동을 해 봄으로써 공동체의식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제주섬 속에 꽃피운 민속문화’에서는 《서우젓소리》의 연행배경을 살펴보고, 제재곡을 익힌 후에는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노래 가사 바꿔부르기 활동을 통해 자신의 염원을 빌어보는 활동을 통해 내면화한다.

‘제주 알기 프로젝트’과정을 제재곡을 중심으로 아래의 <표 8>로 정리해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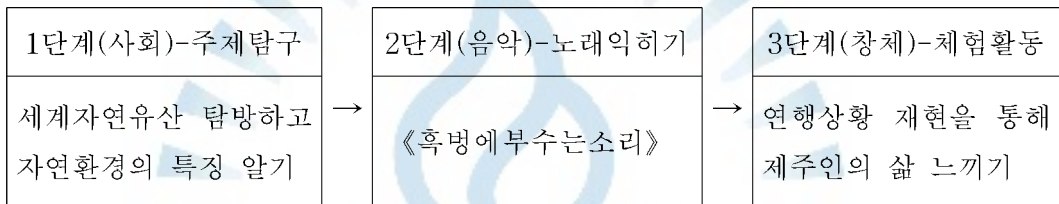
<표 8> 각 제재곡별 제주 알기 프로젝트의 과정

단계 주제	1단계(사회)-주제탐구	2단계(음악)-노래익히기	3단계(창체)-체험활동
자연을 극복한 제주인	세계자연유산 탐방하고 자연환경의 특징 알기	《 흑병에부수는소리 》	연행상황 재현을 통해 제주인의 삶 느끼기
	제주의 농업활동 탐 구하기	《 막바지사대 》	학급 텃밭 가꾸기
바다와 함께 하는 삶	제주의 어업활동 탐 구하기	《 멜후리는소리 》	제주어 말하기대회 참가하기
	해녀박물관 탐방하고 해녀의 삶 이해하기	《 해녀노젓는소리 》	테왁 만들고 노래부 르기
제주섬 속에 꽃피운 무속신앙	제주의 무속신앙 탐 구하기	《 서우젓소리 》	노랫말 바꾸기로 나의 염원 나타내기

1. 자연을 극복한 제주인

가. 《흑병에 부수는 소리》를 통한 제주 알기 프로젝트

제재곡 《흑병에 부수는 소리》는 제주의 농사활동에서 밭을 일구고 땅을 갈아 씨앗을 심은 후에 심은 씨앗이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밭을 밟아주는 과정 중에서 덩어리진 흙덩이를 부수는 과정에서 불렀던 노래이다. 이 노래를 가르치기 위한 3단계 과정은 아래와 같다.



제주의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거문오름과 용암동굴’ 탐방을 통해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보고 제주도의 자연환경적 특성을 탐구하고 자연환경이 갖는 특수성으로 인해 어떤 농사가 이루어졌는지를 탐구해보도록 한다.

다음 활동은 음악과에서 이루어질 활동으로 제주 토질이 갖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과정의 하나인 흙덩이를 부수는 과정을 떠올리면서 《흑병에 부수는 소리》의 지도가 이루지도록 한다. 노래를 불러보고 난 후에는 직접 연행상황을 구성해서 불러봄으로써 조상들의 삶의 모습에 좀 더 가까이 가고 제주도의 자연환경의 독특함을 후세에 널리 보존해야할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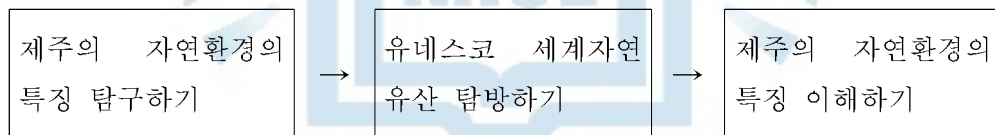
《흑병에 부수는소리》를 통한 제주 알기 프로젝트 지도의 실제를 다음 <표 9>와 같이 살펴볼 수 있다.

<표 9> 《흑병에부수는소리》 지도의 실제

제재곡	단계	활동내용	관련 교과
흑병에 부수는 소리	1	- 사전과제 해결하기(제주의 자연환경의 특징) - 세계자연유산 ‘거문오름과 용암동굴지대’탐방하기 - 제주도의 자연환경의 특징 이해하기	사회
	2	- 《흑병에부수는소리》연행배경 알기 - 《흑병에부수는소리》노래 익히기 - 연행상황을 떠올리며 메기고 받으며 불러보기	음악
	3	- 연행상황 재현 계획 세우기 - 연행상황 재현하기 -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삶을 추구했던 조상들의 정신 본받기	창체

1) 제주 알기 프로젝트 1단계

: 세계자연유산을 탐방하고 제주도의 자연환경의 특징 알기



가) 제주의 자연환경의 특징 탐구하기

주제탐구과제를 사전 과제로 제시하고 본시 수업 시간에 모둠별 발표를 통해 제주도의 자연환경과 이러한 자연환경적 특징으로 인해 우리 조상들이 일을 할 때 어떤 노래가 불리어 졌는지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학습지 1> 주제탐구 과제 학습지

제주 알기 프로젝트 1단계 - 주제탐구(사진 탐구 과제)

탐구주제 : 제주도의 자연환경과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탐구1> 제주도는 언제 어떻게 생겨났을까?

☞ 제주도의 생성에 관한 조사

<탐구2> 제주도를 삼다도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 제주도에는 삼무, 삼다가 있는데, 삼다는 ‘바람, 돌, 여자’가 많음을 말하며, 삼무는 ‘거지, 대문, 도둑’이 없음을 말한다.

<탐구3> 제주도의 자연환경의 특징을 탐구해보자.

- ☞ ① 화산섬으로 이루어짐.
- ② 현무암으로 이루어져 물의 투수성이 우수하고, 바람이 세서 논농사에는 적합하지 못한 토질이어서 밭농사가 주로 이루어짐.
- ③ 천혜의 자연환경으로 관광산업이 발달함.
- ④ 사면의 바다로 이루어진 섬지역으로 반농·반어업의 농사형태를 많이 보임

<탐구4> 제주도에 있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라산⁶⁰⁾



성산일출봉



거문오름과 용암동굴

제주도가 화산섬으로써 언제 생성되었으며, 360여 개의 오름과 곳자왈 지역의 분포 및 용암 분출로 인해 생긴 용암동굴 지대의 자연환경적 특성과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선정된 지역 조사와 함께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부분까지도 조사하여 보고서 형식이나 프리젠테이션 자료로 작성하며 발표하는 기회를 갖는다. 이를 통해 제주도의 자연환경이 세계의 어느 나라와도 견줄 수 있다는

60) 한라산국립공원 홈페이지 <http://www.hallasan.go.kr/hallasan/>

자부심을 느낄 수 있다. 아래의 학습지의 활용은 사전 과제의 해결을 위한 도움 자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제시한다.

나)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거문오름과 용암동굴’ 탐방하기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곳 중의 하나인 ‘거문오름과 용암동굴’은 화산섬 제주의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곳이라 할 수 있다. 용암 분출로 인해 생성된 오름과 현무암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 다음의 읽기자료는 학생들에게 학습지로 구성하여 제공하거나 교사 도움자료로 이용할 수 있다.

제주 알기 프로젝트 3단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을 찾아서

거문오름⁶¹⁾



<사진> 거문오름

화구 중심으로부터 유출된 용암류의 침식계곡은 도내 최대 규모로서 전방으로 유선형의 골짜기를 이루며 약 4km 정도 연속되어 나타난다. 오름 동남쪽의 목장지에는 화구없는 화산체인 용암암설류의 원추형 언덕들이 집중 분포되어있으며 구좌읍 송당리에 있는 거미오름을 일명 동검은오름이라고 하는데, 이는 이 오름(서검은오름)과 구별하기 위한 호칭

이라고 한다. 지역주민들 사이에는 분화구의 별칭으로 거물창(거멸창) 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숲으로 덮여 검게 보인다 하여 검은오름이라 부르고 있으나, 학자들의 어원적 해석으로는 '검은'은 神이란 뜻의 고조선시대의 '감·검'에 뿌리를 두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즉 '검은오름'은 '신령스런 산'이라는 뜻입니다. 해송, 삼나무, 측백나무가 조립되어 있고, 울창한 숲을 이루는 복합형 화산체로 산정부에는 커다란 화구가 깊게 패어 있고, 그 안에 자그만 봉우리가 솟아올라 있으면서 북동쪽으로 크게 터진 말굽형 화구로 이루어졌다.

(표고 : 456.6m 비고 : 112m 둘레 : 4,551m 면적 : 809,860㎡ 저경 : 1,188m)

61)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보에서 발췌(<http://cyber.jeju.go.kr/>)

다) 제주의 자연환경의 특징 이해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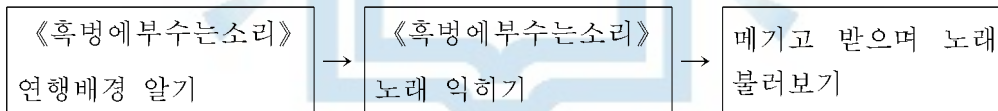
자연환경의 특징에 대한 탐구와 거문오름 탐방을 통해 알게된 점 등을 정리해보면서 자연환경의 특징을 이해하고 척박한 자연환경을 이겨내기 위해 조상들이 일을 하면서 노래를 부른 이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 본다.

《흑병에부수는소리》는 어떤 작업에서 불렀는지에 대한 학습과 함께 이 노래를 부를 때의 연행상황에서 사용했던 농기구 등에 대한 학습도 이 단계에서 이루어지도록 한다.



<사진 13> 쌍따비와 곱방메

2) 제주 알기 프로젝트 2단계 : 제주민요 《흑병에부수는소리》 익히기



가) 《흑병에부수는소리》 연행배경 알기

《흑병에부수는소리》의 지도는 이 노래가 제주의 토질의 특성으로 인해 생긴 것임을 알고 민요의 사설을 읽으며 제주어 알아보기 활동을 한다. 제주의 토질은 투수성이 좋고 흙이 잘 뭉치면서 바람에도 잘 날린다. 그래서 조상들은 밭을 일굴 때 먼저 흙덩이를 부수고 씨앗을 뿌린 후에 씨앗이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마소를 이용하여 밭을 밟아주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 노래는 흙을 일구는 과

정에서 흙덩이를 부술 때 불렀던 노래이다. 《흑병에부수는소리》의 사설 및 사설에 나타난 제주어를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허기두레 더럼마야 / 허기두레 더럼마야 / 역군님네 일심동체로 /
우리새왓 이겨줍씨 / 만경창과 넓은들에 / 노는땅없이 이겨보자 /
 이강산에 놀던새왓 / 덕석만씩 일어나라 / 송곳 ㄷ뚝 따비에다 /
멍석만씩 일어나라 / 요밭을 이겨노면 / 조를갈까 산디를갈까 /
 역군님네 요병에 풀어줍씨
 허기두리 더럼마야/ 줍씨훈말 뿌렸더니 / 풍년농사 절로난다 /
 탁주훈사발 마셨더니/ 새왓병에 절로인다 / 식게집에 아기일어나듯 /
 혼번질렁 멍석만씩 / 두 번질렁 도곰착만씩 / 세 번질렁 덕석만씩 /
 우글우글 일어난다 / 역군님네 일로질렁 / 절로질렁 일로질렁 /
 일심동체로 일러보자

사설 중에서 ‘우리새왓이겨줍씨(우리 띠밭을 파서 엮어 주세요)’, ‘노는땅없이 이겨보자(한군데도 빠짐없이 파서 앞어주세요)’, ‘덕석만씩일어나라/멍석만씩일어나라(멍석처럼 한꺼번에 많이 일구어져라)’에서 척박한 땅을 일구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며, ‘요밭을 이겨노면/ 조를갈까 산디를갈까(이 밭을 다 일구면 조를 심을까 밭벼를 심을까)’, ‘줍씨훈말 뿌렸더니 / 풍년농사 절로난다(줍씨훈말 뿌렸더니 저절로 풍년농사가 이루어지겠구나)’하는 농사에 대한 기대도 찾을 수 있다.

사설에 나타난 제주어 알기 활동으로는 ‘스피드퀴즈’를 통해 제주어의 뜻을 학습하는 방법도 학생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다.

- 새왓 : 띠밭, 지붕을 일 띠가 자라는 밭
- 덕석 : 멍석
- 따비 : 척박한 농지를 개간할 때 쓰는 농기구
- 산디 : 밭벼
- 병에 : 씨레를 끌고 벧밭을 풀어서 밭을 고르는 것
- 식게집 : 제삿집
- 혼번질렁 : 한번 질러서
- 도곰착 : 소등에 길마를 엮을 때 길마 밑에 놓는 보리짚

나) 《흑병에부수는소리》 노래 익히기

《흑병에부수는소리》는 제주도의 발농사 과정 중에서 흙덩이를 부수며 받을 일굴 때에 부르던 노래로 메기고 받는 형식으로 이루어진 곡이다.

《흑병에부수는소리》는 3소박 4박으로 이루어진 곡으로 기본박을 치면서 붙임새에 맞추어 노래 가사를 읽어본다. 짝을 지어 한 사람은 노래 가사를 읽고 다른 한 사람은 무릎치기나 손뼉치기 등을 이용해 박을 쳐 준다. 서로 교대로 연습해 보고 익숙해지면 박과 가사를 붙임새에 맞게 읽어본다.

<악보 12> 《흑병에부수는소리》 박과 붙임새

【받는 소리】

◎		◎		◎		◎	
허	기	두	리	더	럼	마	야

【메기는 소리】

◎		◎		◎		◎	
허	기	두	레	더	럼	마	야
허	기	두	리	더	럼	마	야
역	군	님	네	일	심	동	채로
우	리	새	왓	이	겨	줍	서
만	경	창	과	넓	은	들	에
노	는	땅	없	이	겨	보	자
이	강	산	에	놀	던	새	왓
덕	썩	만	썩	일	어	나	라

《흑병에부수는소리》는 흑병에를 부술 때 여러 사람이 함께 힘을 모아 부르므로 노동상황에 맞춰 불러보는 활동을 한다. 메기는 부분에서 반복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처음에는 팀을 나누어 메기고 받으며 불러보다가 노동 상황에 맞게 박을 쳐보면서 흥을 돋우는 방법도 좋을 것이다.

<악보 13> 《흑병에부수는소리》 62) 가락선보

메기는 소리 : 강승화(남, 1939) 받는 소리 : 나덕봉(남, 1921), 문복순(여, 1927)

빠르기 : 보통빠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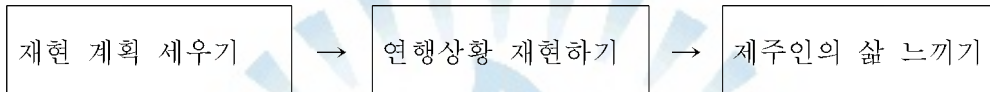
【메】	【받】
<p>라솔미레노 허기 두레 더 럽마야</p>	<p>라솔미레노 허기 두리 더 럽마야</p>
<p>라솔미레노 허기 두레 더 럽마야</p>	
<p>라솔미레노 역군님네 일심동체로</p>	
<p>라솔미레노 우리 새왓이겨줍서</p>	
<p>라솔미레노 만경창파넓은들애</p>	
<p>라솔미레노 노는땅없이겨보자</p>	
<p>라솔미레노 이강산에늘던새왓</p>	
<p>라솔미레노 덕석만씩일어나라</p>	

62) (주)문화방송, 『한국민요대전(제주도)』, 1992, CD 6-09

《흑병에부수는소리》는 덩어리진 흙덩이를 부수는 과정에서 불렀던 노래이므로 흙덩이를 부수는 장면을 떠올리며 곰방대로 내려치는 손동작을 하면서 두 팀으로 나누어 서로 교대로 땅으로 내려치는 동작을 하면서 노래를 불러본다.

3) 제주 알기 프로젝트 3단계 : 연행상황 재현하기

《흑병에부수는소리》를 배우고 노래가 불려지던 상황을 생각해보며 연행상황을 재현해 보고 함께 일을 해 나가며 어려움을 극복한 제주인의 삶을 느껴 볼 수 있도록 한다.



가) 재현 계획 세우기

조상들의 삶을 상상하며 재현 계획을 세워보고 연행장면을 꾸며 본다.

나) 연행상황 재현하기

밭을 일구고 흑병에를 부수고 씨앗을 뿌리는 일 등의 밭일의 과정을 나타내면서 《흑병에부수는소리》를 부르면서 당시의 모습을 재현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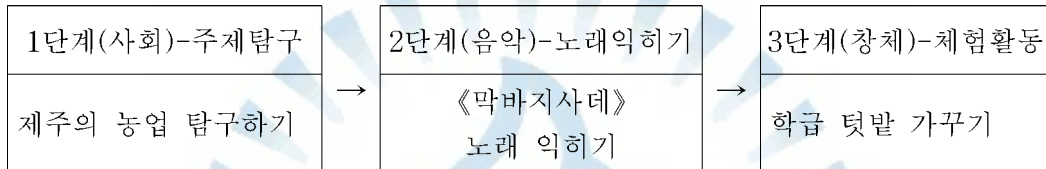
다) 제주인의 삶 느끼기

연행상황을 재현하고 난 후의 느낌을 정리해 본다. 정리학습지의 예는 다음과 같다.

<p><정리학습지의 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의 밭농사는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 조상들이 밭을 일굴 때 사용했던 도구에 대해 알아 봅시다. ● 척박한 자연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일을 하 때 노래를 부르며 어려움을 이겨낸 조상들의 마음을 떠올려 봅시다.

나. 《막바지사데》를 통한 제주 알기 프로젝트

《막바지사데》는 농민들이 김매는 작업을 하다가 해가 넘어가면 작업을 서두르면서 불려지던 노래로 이 노래의 지도는 먼저 제주도에서 이루어지는 농업활동과 농사에 쓰이는 도구와 의복에 대해 알아보고 《막바지사데》 노래 익히기 활동과 함께 상황극 꾸미기를 통해 척박한 자연을 이겨내며 살아온 조상들의 지혜를 마음 속에 새길 수 있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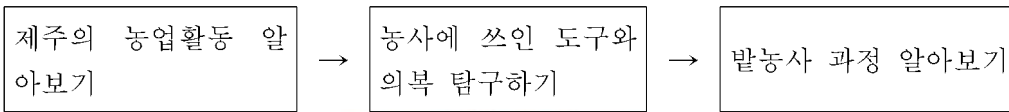
《막바지사데》의 지도 과정은 다음의 <표 10>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다.

<표 10> 《막바지사데》 지도의 실제

제작곡	단계	활동내용	관련교과
막바지사데	1	- 제주의 농업활동 알아보기 - 농사에 쓰인 도구와 의복 탐구하기 - 밭농사 과정 알아보기	사회
	2	- 《막바지사데》를 듣고 사설의 뜻 풀이와 사설 속에 담긴 의미 알기 - 《막바지사데》 말붙임새 익히기 - 막을 치면서 매기고 받으며 불려보기	음악
	3	- 학급 텃밭 가꾸기 - 《막바지사데》 부르며 잡초뽑기 - 척박한 자연을 이겨내며 살아온 분들의 고마움 알기	창체

1) 제주 알기 프로젝트 1단계 : 제주의 농업 탐구하기

제주도의 농업의 종류와 농사에 쓰이는 도구와 의복을 탐구하고, 척박한 땅을 일구어 농사를 지었던 과정 알아보기를 통해 제주도에서 다양한 김매는 노래가 불렸던 이유를 알아본다.



가) 제주의 농업활동 알아보기

제주도는 화산섬의 특성상 물빠짐이 좋아 논농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므로 밭농사가 주를 이룬다. 제주 사람들의 농사활동의 형태와 주로 이루어지는 농사에는 어떤 종류의 것이 있는지 살펴본다.

제주 알기 프로젝트 1단계 - 주제탐구	
주제 : 제주도의 농업활동	
♠ 제주도의 농업 활동에 대해 알아 봅시다.	
논농사	제주도는 토질의 물빠짐이 좋아 논농사에 어려움이 많다.
밭농사	조, 보리, 콩, 당근 등의 밭농사가 주로 이루어진다.
기타	감귤농사가 번성하고, 1980년대에는 바나나와 파인애플도 재배 하였으나 수입개방을 인해 현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나) 농사에 쓰인 도구와 의복 탐구하기

농사에 쓰인 농기구와 작업복에 대해서 조사하고 그 쓰임에 대해서 모듈별 밭

표의 시간을 갖는다.

다) 밭농사 과정 알아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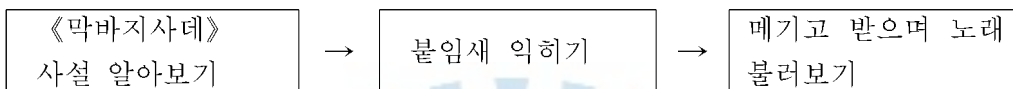
땅이 비옥하지 못하여 밭농사를 하기 전에 흙덩이를 부수고 씨앗을 심은 후에도 바람에 씨앗이 날아가지 않도록 밭을 밟아주는 과정을 거친다. 더운 여름이 되면 김매기가 활발히 이루어지는데 이 때 불려지던 민요는 참으로 다양하다. 김을 매면서 부르는 민요가 다양한 이유도 김매는 과정이 이처럼 길었기 때문이다. 즉 김을 처음 매기 시작할 때 부르는 노래와 중간 이후에 부르는 노래, 그리고 한 이랑이 끝났을 때 부르는 노래 등으로 여러 가락이 이 노래에 수반되고 있다. 대개 처음에는 긴 사데소리로 시작한다. 그 후 이랑의 중간을 넘어서기 시작하면 짧은 사데소리로 옮겨지면서 일의 지루함을 달래고 힘을 북돋게 한다. 제주도의 밭농사의 과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땅 일구기 → 흙덩이 부수기 → 씨앗 심고 밭 밟아주기 → 김매기

제주 알기 프로젝트 1단계 - 주제탐구	
주제 : 밭농사와 제주민요	
♠ 밭농사를 하면서 함께 불렀던 제주 민요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시다.	
● 땅 일구기	☞ 《따비질소리》, 《밭가는소리》
● 흙덩이 부수기	☞ 《흑병에부수는소리》
● 씨앗 심고 밭 밟기	☞ 《밭불리는소리》
● 김매기	☞ 《검질매는소리》가 불리는데 《쯔른사데》, 《아웨기》, 《홍애기》 등 다양한 종류의 노래가 불린다.

2) 제주 알기 프로젝트 2단계 : 제주민요 《막바지사데》 노래 익히기

프로젝트 2단계에서는 제주민요 《막바지사데》 익히기 활동으로 사설의 뜻과 사설에 나타난 제주어를 알아보고, 노동상황을 생각하며 말붙임새 알아보기 활동을 한다. 말붙임새를 익히고 나면 메기고 받는 소리로 주고받으며 노래 부르기 활동을 한다.



가) 《막바지사데》 사설 알아보기

사설 알아보기 활동과 제주어 탐구 활동은 아래의 학습지를 활용하여 지도해 볼 수 있다.

제주 알기 프로젝트 2단계 - 노래 익히기	
◆ 《막바지사데》의 사설의 뜻을 알아봅시다.	
어이요랑 사데 앞명애야 들어나오라 뒷명애랑 나고나가라 사데불령 요묘적가자 먼릿사람 보거나 좋게 허당말면 늬이나웃나 에혜요랑 사데 검질줍이랑 즈직즈직 선소리랑 궂이나만정 훗소리랑 즈직즈직 에혜요랑 사데	● 사설에 나타난 제주어를 알아 봅시다. (1) 허당말면 → () (2) 늬이나웃나 → () (3) 검질 → () (4) 꿩지가웬다 → () ● 사설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을 간단히 적어 봅시다.

이 노래는 메기고 받는 소리로 이루어지는데 받는 소리는 ‘에요랑사데’로 반복적으로 불려진다. 이 노래의 메기는 소리 부분의 사설과 사설에 나타난 제주어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어이요랑 사데 / 앞명애야 들어나오라 / 뒷명애랑 나고나가라 /
 사데불령 요므적가자 / 먼뒫사람 보거나 좋게 / 헝당말면 늬이나웃나 /
 에헤요랑 사데 / 검질줍이랑 즈직즈직 / 선소리랑 궂이나만정 /
 훗소리랑 즈직즈직 / 에헤요랑 사데 / 앞명애야 들어나오라 /
 뒷명애랑 나고나가라 / 앞인보난 태산이웨고 / 뒤인보난 췁지가웁다 /
 사데불령 요므적가자 / 에헤 요랑 사데

이 노래의 사설은 노래를 부르면서 어떻게 김을 매고 일하는 사람들이 앞과 뒤의 순서로 김을 매자는 내용과 함께 김을 제 때에 매지 못했을 때 마을 사람들이 웃는다는 내용을 담으며 작업을 빨리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북돋아 주고 있다.

나) 《막바지사데》 불임새 익히기

사설의 내용 알기 활동이 끝나면 말불임새 알기 활동을 통해 박을 치면서 말 불임새로 노래를 익힌다. 이 노래는 노동 현장에서 주로 불려지기 때문에 장단의 학습보다는 함께 어울려 부르는 상황을 고려하여 일정 박을 느끼면서 부르면 좋다.

<악보 14> 《막바지사데》 박과 불임새

【받는 소리】

◎				◎			
에	-	요	랑	사		데	

【메기는 소리】

◎				◎			
어	이	요	랑	사		데	
앞	명	에	야	들	어	나	오
뒷	명	애	랑	나	고	나	가
사	데	불	령	요	므	적	가
먼	뒷	사	람	보	가	나	중
흐	당	말	면	놈	이	나	웃
에	헤	요	랑	사		데	
선	소	리	랑	곳	이	나	만
훗	소	리	랑	즈	직		즈
에		요	랑	사		데	

다) 《막바지사데》 메기고 받으며 노래 부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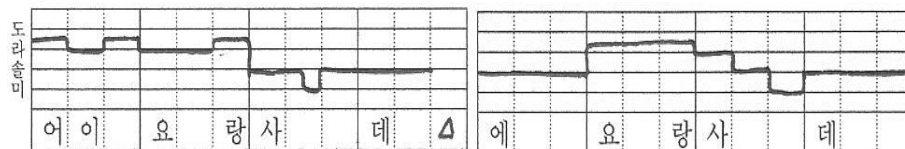
《막바지사데》의 형식은 메기고 받는 형식이므로 소리가 좋은 한 사람이 메기는 소리를 부르면 나머지 사람들은 ‘에 요랑 사데’의 받는 소리를 반복하며 부른다. 그러므로 음원이나 교사의 선창을 통해 받는 소리를 먼저 익히고 난 후에 메기는 소리를 익히도록 한다. 메기는 소리 익히기 활동이 익숙해지면 팀을 나눠 불러보는 활동을 한다. 또한 노동현장에서 김(잠초)을 매면서 부르는 상황을 설정하여 실감나게 노래를 불러본다.

<악보 15> 《막바지사데》 63) 가락선보

메기는 소리 : 강갑년(여,1923) 받는 소리 : 여럿
빠르기 : 보통빠르기

【메】

【반】



63) (주)문화방송, 『한국민요대전(제주도)』, 1992, CD 3-16

【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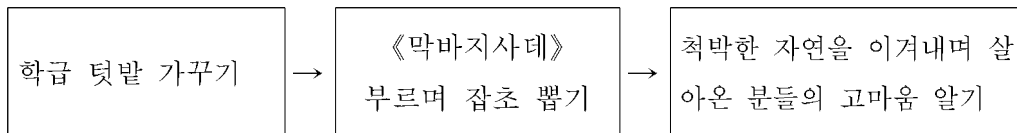
【반】

도라솔미	앞 멩 애 아 들 어 나 오 라	에 요 랑 사 데
도라솔미	뒷 멩 애 랑 나 고 나 가 라	에 요 랑 사 데
도라솔미	사 데 불 령 요 믈 적 가 자	에 요 랑 사 데
도라솔미	먼 뒷 사 람 보 기 나 좋 게	에 요 랑 사 데
도라솔미	흐 당 말 면 늠 이 나 웃 나	에 요 랑 사 데
도라솔미	에 헤 요 랑 사 데	에 요 랑 사 데

3) 제주 알기 프로젝트 3단계 : 텃밭 가꾸기 체험하기

제주도의 많은 학교에서는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수확의 기쁨을 맛보며 바른 인성을 함양하기 위해 텃밭이나 화단 가꾸기를 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

다. 때때로 학교 주변의 터를 이용하여 고구마 가꾸기 및 작물 가꾸기를 실시하는 학교도 찾아볼 수 있다. 3단계 과정에서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동아리활동 시간을 이용하여 학급 텃밭 가꾸기 활동을 해본다.



가) 학급 텃밭 가꾸기

학급 텃밭에 어떤 작물을 심을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하고 비교적 식물의 자람을 잘 관찰할 수 있고 수확의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작물을 선정하여 씨앗심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고구마 가꾸기 활동을 해본다

나) 《막바지사데》 부르며 잡초 뽑기

봄철에 고구마를 심고 줄기의 자람을 관찰하며 여름철에 주변에 나 있는 잡초를 뽑아주는 활동을 하면서 《막바지사데》를 불러볼 수 있다. 가을철에는 수확을 해봄으로써 직접 식물을 심고 가꾸며 수확하는 기쁨을 느껴본다.

다) 척박한 자연을 이겨내며 살아온 분들의 고마움 알기

수확의 기쁨을 느껴보고 제주도의 척박한 자연환경 속에서도 깨끗하게 살아온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께 감사의 마음을 갖고 편지쓰기 활동을 실시한다.

<정리학습지의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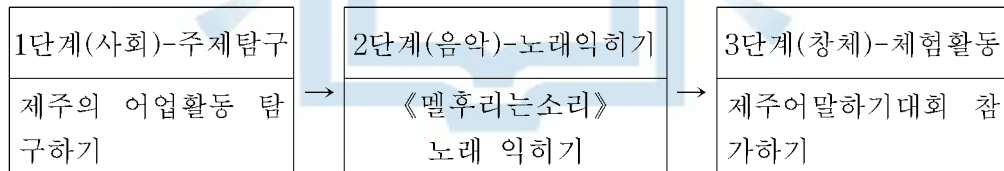
- 고구마 심고 가꾸기 활동을 하면서 느낀점을 발표해 봅시다.
- 고된 일 속에서 노래로 어려움을 이겨낸 조상들의 지혜를 생각해 봅시다.
-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깨끗하게 살아오신 할머니, 할아버지께 감사의 마음을 전해 봅시다.

2. 바다와 함께 하는 삶

가. 《멜후리는소리》를 통한 제주 알기 프로젝트

제작곡 《멜후리는소리》는 음역 3월에서 10월에 걸쳐 이루어지는데 발일을 끝내고 돌아와 저녁을 먹고 난 후에 물 때에 맞춰서 주로 밤중에 이루어졌다. ‘그물잡’이라는 어로공동체를 구성하여 각자 역할을 분담하였다. 해안에서 약 1km쯤 떨어진 바다까지 거룻배들이 원을 돌리면서 멸치를 모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때 동원되는 배들은 그 기능에 따라 당선·망선·닷배로 구분하고 있다. 당선은 멸치떼를 순시하는 기능을 하고, 망선은 그물을 직접 신고 가는 배이고 닷배는 닷을 놓아 그물 작업을 기준 잡는 기능을 하는 배이다. 이 작업은 보통 자정쯤 밀물 때 그물을 놓고 멸치를 몰아가는 동이 틀 때까지 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 거룻배들이 바닷가로 멸치를 몰아가면, 바로 바닷가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 일제히 그물을 잡아당기면서 《멜후리는소리》를 부른다.

《멜후리는소리》 노래의 지도단계를 아래와 같이 나타내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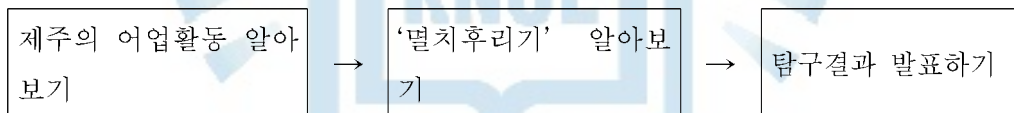


《멜후리는소리》 지도를 위해 멸을 잡는 과정에 대한 탐구를 통해 제주도의 어업 활동에 대한 이해를 하고 노래를 익혀 불러보고, 실제 연행 장면을 재구성해 봄으로써 바다와 함께 하는 조상들의 삶에 대해 되돌아보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 노래의 구체적인 지도방안을 정리해 보면 아래의 <표 11>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표 11> 《멜후리는소리》 지도의 실제

제작곡	차시	활동내용	관련교과
멜 후리는 소리	1	- 주제탐구 : 제주의 어업활동 - ‘멸치후리기’ 조사하기 - 모둠별 탐구 결과 발표	사회
	2	- 《멜후리는소리》 사설 알아보기 - 《멜후리는소리》 말붙임새 익히기 - 메기고 받으며 노래 부르기	음악
	3	- 여행상황 설정하기 - 제주어로 《멜후리는소리》를 넣어 상황극 만 들고 여행해보기 - ‘제주어말하기대회’ 참여하고 느낀점 표현하기	창체

1) 제주 알기 프로젝트 1단계 : 제주의 어업활동 탐구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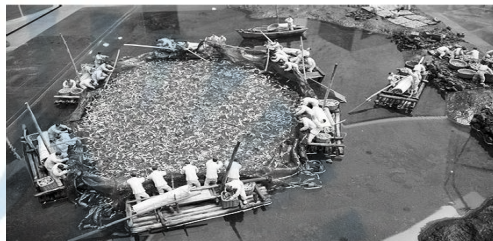


가) 제주의 어업활동 알아보기

척박한 토지를 가진 제주 섬에서 바다는 생존을 위한 큰 위안이였다. 제주 사람들은 바다를 이용하여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 탐구하는 시간이다. 어업활동에서 사용하던 도구 및 어업활동에 대해서 탐구해 보고 조상들의 삶을 느껴보도록 한다. 제주 전통의 멸치후리기와 원담고기잡이 방식의 어로문화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한다.

<읽기자료 >

사람들은 떼배를 바다에 띄워 고기잡이를 하는데, 떼배를 제주도에서는 ‘테우’라고 한다. 테우는 노를 젓는 방식이 배의 노를 젓는 방식과 달리 좌우로 반원을 그리면서 노를 젓기 때문에 노를 젓는 동작이 크고 느리다. 테우는 가끔 해녀들이 채취한 미역이나 모자반이나 우뚝가사리 등 해초를 운반하는데 이용된다.



<사진 14> 제주의 어업활동

멸치잡이는 바닷가 마을에서도 모래벌판이 넓게 깔린 마을에서만 이루어진다. 매년 6월부터 9월까지 멸치잡이를 했는데 배들이 바닷가로 멸치떼를 몰아가면 바닷가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 함께 그물을 잡아 당기면서 그물후리는 작업을 한다. 제주도의 멸치후리는 일은 어로도구인 그물의 준비, 당선과 망선, 닛배와 떼배의 역할과 계원들의 협업 등에 의해 조직적,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원담고기잡이’는 해안 조간대의 일정한 구역에 돌담을 쌓아두고 밀물따라 물려든 고기떼들을 썰물이 나면 그 안에 가둬놓아 쉽게 잡을 수 있도록 장치해 둔 곳을 원이라 한다.

나) ‘멸치후리기’ 알아보기

《멸후리는소리》의 연행배경을 알아보기 위해 ‘멸치후리기’에 대한 탐구활동이 필요하다. 다음의 학습지를 통해 탐구 내용을 정리해 본다.

<학습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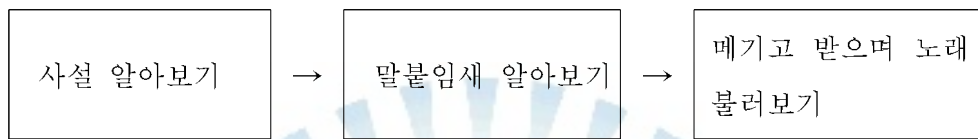
제주 알기 프로젝트 1단계 - 탐구활동
◆ 제주도의 ‘멸치후리기’는 어떤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지 탐구해 봅시다.
● 멸치후리가 이루어진 시기는 언제인지 알아봅시다. ☞ 음력 3월에서 10월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밭일을 끝내고 돌아와 저녁을 먹고 난 후 물때에 맞춰 주로 밤중에 이루어졌다.
● ‘그물집’이란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 그물집은 멸치잡이 철에 그물을 가지고 공동으로 작업하고 그 생산물을 나누어 가질 뿐만 아니라 어로작업의 풍어를 기원하는 ‘그물크사’나 ‘영감굿’에 이르기까지 신앙과 노동을 함께하는 어로공동체였다. 한 집의 구성원은 대개 30~70명 정도로 각자 역할을 정해 집을 이끌었다
● ‘멸치후리기’의 과정을 알아봅시다. ☞ 해안에서 약 1km쯤 떨어진 바다까지 거룻배들이 원을 둘러가며 멸치를 모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때 동원되는 배들은 그 기능에 따라 당선·망선·닷배로 구분하고 있다. 당선은 멸치때를 순시하는 기능을 하고, 망선은 그물을 직접 싣고 가는 배이고 닻배는 닻을 놓아 그물 작업을 기준 잡는 기능을 하는 배이다. 이 작업은 보통 자정쯤 밀물 때 그물을 놓고 멸치를 몰아가는 동이 틀 때까지 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 거룻배들이 바닷가로 멸치를 몰아가면, 바로 바닷가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 일제히 그물을 잡아당기면서 그물을 후리는 작업을한다

다) 탐구결과 발표하기

‘멸치후리기’ 활동을 중심으로 제주의 어업활동에 대한 탐구 결과를 프리젠테이션자료나 보고서 형식으로 발표해 보도록 한다.

2) 제주 알기 프로젝트 2단계 : 제주민요 《멜후리는소리》 익히기

《멜후리는소리》 노래 익히기 과정에서는 사설을 통해 노래가 불러졌던 상황을 이해하고 말붙임새 알아보기, 메기고 받으며 불러보기 활동을 통해 멜후리는 작업을 생각하며 노래를 불러보는 활동을 해 본다.



가) 《멜후리는소리》사설 알아보기

《멜후리는소리》는 혼자 하는 노동이 아니라 여럿이 함께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멜후리기’를 할 때 불렀던 노래로 사설 속에서 작업 상황을 엿볼 수 있다. 이 노래의 받는 소리는 ‘엉 허야 뒤야’로 일정하며 특별한 뜻을 갖지 않으며 메기는 소리의 사설은 아래와 같다.

엉~허야 뒤야 / 어기여뒤여 방애여 /
동깨코리근 등곶은여로 / 서깨코리근 소여콧들로 /
당선에서 멜밭을보고 / 망선에서 후립을노라 /
닷배에서 진을재왕 / 추즈안골 사수안골괘긴 /
농쟁이와당에 다물려놓고 / 앞괘기랑 선진을놓고 /
뒷괘기랑 후진을노라

이 노래의 사설은 멀치후리기 작업 할 때 어로작업을 할 때 지휘, 감독의 역할을 하는 당선과 그물을 놓는 망선, 진을 치는 닷배 등의 역할에 대해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 노래의 사설의 뜻과 제주어 알아보기 활동을 다음 학습지

를 통해 지도할 수 있다.

제주 알기 프로젝트 2단계 - 노래 익히기		
◆ 《멜후리는소리》의 사설의 뜻을 알아봅시다.		
영~허야	뒤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설에 나타난 제주어를 알아 봅시다. (1) 깨코 → () (2) 여 → () (3) 당선 → () (2) 멜밭 → () (3) 후림을노라 → ()
어기여뒤여	방애여	
동깨코라근	등곶은여로	
서깨코라근	소여콧들로	
당선에서	멜밭을보고	
망선에서	후림을노라	
닷배에서	진을재왕	
추즈안골	사수안골괘긴	
농꿩이와당에	다몰려놓고	
앞괘기랑	선진을놓고	
뒷괘기랑	후진을노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설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을 간단히 적어 봅시다.

나) 《멜후리는소리》 말붙임새 알아보기

손뼉치기나 발구르기 등을 이용하여 박을 치면서 말붙임새를 익히는 활동을 한다. 또한 음원을 듣고 강세가 느껴지는 부분을 표시하는 활동을 하여 노래의 박을 느껴볼 수 있게 지도한다.

<악보16 > 《멜후리는소리》 박과 붙임새

【받는 소리】

◎	◎	◎	◎
영	허	어	야
		테	- -
			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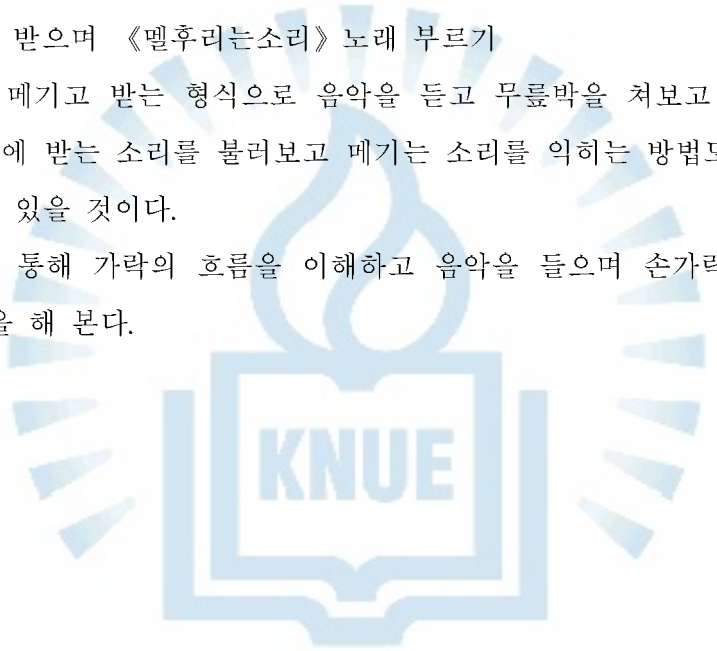
【떼기는 소리】

◎		◎		◎		◎	
영		허	어	야	데	요	
이	여	뒤	여	방		에	여
동	깨	에	코	라	근	등	곱 은 여 로
서	깨	에	코	라	근	소	여 콧 들 로
당	선		에	선		멜	발을 보 고
망	선		에	선		후	림 을 노 라

다) 떼기고 받으며 《멜후리는소리》 노래 부르기

이 노래는 떼기고 받는 형식으로 음악을 듣고 무릎박을 쳐보고 받는 소리를 먼저 익힌 후에 받는 소리를 불러보고 떼기는 소리를 익히는 방법도 좀 더 친숙하게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가락선보를 통해 가락의 흐름을 이해하고 음악을 들으며 손가락으로 가락선 그리기 활동을 해 본다.



<악보17> 《멜후리는소리》 64) 가락선보

메기는 소리 : 강감년(여, 1923)

받는 소리 : 여럿

빠르기 : 보통빠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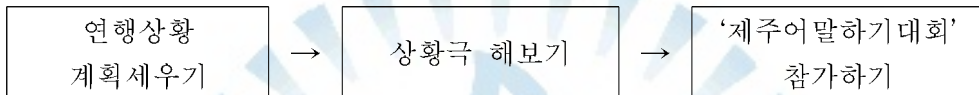
	【메】	【받】
도라솔미		
	영 히 야 데 요	영 히 야 뒤 에 야
도라솔미		
	어기 여 뒤 여 방 애 여	
도라솔미		
	농 깨 에 코 라 근 등 곱 은 여 로	
도라솔미		
	서 깨 에 코 라 근 소 여 콧 들 로	
도라솔미		
	당 선 에 선 멜 발 을 보 고	
도라솔미		
	망 선 에 선 후 램 을 노 라	
도라솔미		
	닷 배 에 선 진 을 재 왕	

64) (주)문화방송, 『한국민요대전(제주도)』, 1992, CD 2-05

3) 제주 알기 프로젝트 3단계

: 제주어로 꾸며보는 《멜후리는소리》 상황극 만들기

연행장면을 재현해보는 상황극 꾸미기 활동은 현대 사회에서 제주도 민요가 불려졌던 연행상황이 사라짐으로 인해 학생들이 노래가 불려졌던 때를 상상해보며 작업을 해 봄으로써 조상들의 삶도 간접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이다. 상황극 만들기는 아래의 지도 순서로 이루어진다.



가) 연행상황 계획세우기

제주의 어업활동을 탐구하고, 《멜후리는소리》를 익힌 후에는 조상들의 연행상황을 재현해 보도록 한다. 멸치를 잡는 조상들의 모습을 상상하며 상황극 꾸미기 활동을 계획을 세워 준비하고 발표해 보도록 한다. 아래의 학습지를 활용하여 계획 세우기에 도움자료로 활용한다.

제주 알기 프로젝트 3단계 - 창의적체험활동
<p>◆ 《멜후리는소리》를 넣어 조상들이 바다에서 어업활동을 했던 상황을 재현해 봅시다.</p>
<p><상황극 대본 쓰기></p> <p>때 :</p> <p>곳 :</p> <p>등장인물 :</p> <p>재현할 모습</p> <p>준비물 :</p> <p>내용 :</p>

나) 상황극 해보기

세워진 계획에 맞춰 제주어로 대본을 작성하고, 역할 선정 및 준비물 등을 준비하여 ‘멜후리기’과정이 잘 드러나게 상황극을 연습한다. ‘멜후리기’과정에서 《멜후리는소리》를 부르며 함께 신명나게 멜을 후리는 장면을 나타내 본다.

다) ‘제주어말하기대회’ 참가하고 느낀점 나타내기

최근 제주어에 대한 보존 의식이 높아져 해마다 ‘제주어말하기대회’가 꾸준히 개최되고 있는데 학생들이 직접 상황극 만들기를 해보고 ‘제주어말하기대회’에 참가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대회의 준비과정에서 참가까지의 과정에서 학생들이 느낀 점을 소감문으로 써 보는 활동을 해 봄으로써 제주어와 민요에 대한 관심을 높일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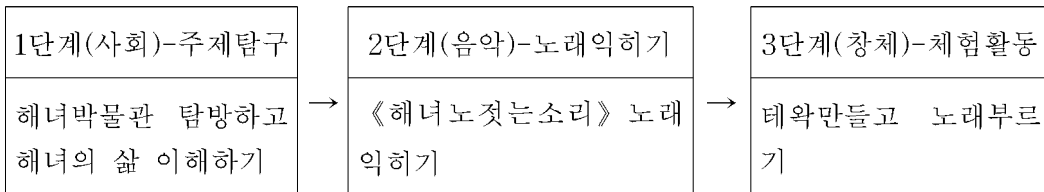
<정리학습지의 예>

- 상황극을 만드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을 발표해 봅시다.
- 조상들이 《멜후리는소리》를 부르며 함께 신명나게 멜을 후리는 장면을 상상해보고 느낌을 적어 봅시다.

나. 《해녀노젓는소리》를 통한 제주 알기 프로젝트

제주도민들은 4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바다를 생활의 터전으로 삼았다. 《해녀노젓는소리》의 지도를 통해 고난과 역경을 딛고 생활하는 조상들의 모습

에서 함께 하는 공동체 의식을 지도해본다. 《해녀노젓는소리》의 지도 단계는 다음의 표로 나타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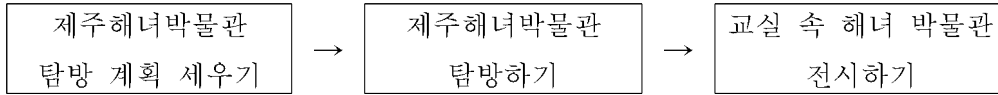


제주해녀에 대한 탐구에서는 제주 해녀박물관 탐방을 시작으로 수업이 진행된다. 해녀 박물관 탐방을 통해 해녀의 삶과 제주의 어촌에서의 생활 모습을 살펴보고, 영상자료를 통해 그들의 삶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한다. 《해녀노젓는소리》를 익히고 해녀들이 사용했던 도구 중 중요한 역할을 했던 테왁만들기 활동을 통해 해녀와 함께 제주의 문화를 살펴본다. 《해녀노젓는소리》 지도의 실체는 다음 <표 12>와 같다.

<표 12> 《해녀노젓는소리》 지도의 실체

제재곡	차시	활동내용	관련교과
해녀 노젓는 소리	1	- 제주해녀박물관 탐방 계획세우기 - 제주해녀박물관 탐방하기 - 교실 속 해녀 박물관 전시하기	사회
	2	- 《해녀노젓는소리》 사설 알아보기 - 《해녀노젓는소리》 말붙임새 익히기 - 《해녀노젓는소리》 교환창으로 부르기	음악
	3	- 테왁만들기 - 테왁을 가지고 《해녀노젓는소리》 부르기 - 해녀들의 삶 이해하고 편지쓰기	창체

1) 제주 알기 프로젝트 1단계 : 「제주해녀박물관」 탐방하기



가) 제주해녀박물관 탐방 계획 세우기

제주해녀박물관은 일제의 수탈에 맞서 제주해녀들이 주체가 되어 투쟁했던 해녀항일운동의 발상지인 제주시 동쪽지역인 구좌읍 하도리에 자리하고 있다. 탐방 계획을 세울 때에는 먼저 제주해녀박물관 홈페이지⁶⁵⁾를 방문하여 관람시간 및 어린이 해녀 체험관 이용 등에 대한 내용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아래의 학습지는 탐방 계획을 세우는 데 활용한다.

<학습지 >

제주 알기 프로젝트 1단계 - 주제탐구
◆ 제주해녀박물관 탐방 계획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탐방할 날짜와 관람이 가능한 시간은 언제인지 알아 봅시다. ● 같이 탐방할 사람은 누구인지 적어 봅시다. ● 어린이 해녀 체험관 이용 방법을 조사해 봅시다. ● 해녀에 대해 궁금한 점을 적어 봅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② ③

65) 제주해녀박물관홈페이지<http://www.haenyeo.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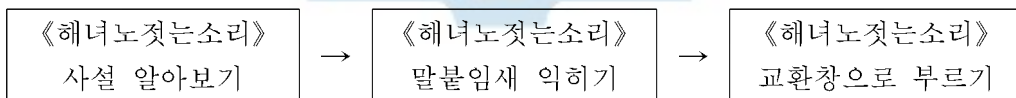
나) 제주해녀박물관 탐방하기

제주해녀박물관은 영상실, 3개의 전시실과 어린이 해녀 체험관으로 이루어졌다. 영상실에서는 제주 해녀의 생활과 사용되는 도구 등 해녀의 삶 전반적인 내용을 애니메이션으로 구성하여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한다. 제1전시실은 ‘해녀의 삶’, 제2전시실은 ‘해녀의 일터’, 제3전시실은 ‘바다’를 주제로 구성되어 있고 어린이 해녀 체험관에서는 5가지의 체험을 해볼 수 있다.

다) 교실 속 해녀 박물관 전시하기

제주해녀박물관 탐방을 통해 알게된 점을 신문 만들거나 보고서 작성 등의 다양한 형식으로 제작하여 교실 속 해녀박물관 전시 활동을 해볼 수 있다. 해녀박물관 홈페이지의 내용을 참고하여 각 전시실마다 주제를 정하고 모듈별로 해녀의 생활, 생활도구, 어업활동 방법 등을 탐구하고 탐구 결과를 책만들기, 제주의 해녀 소개 자료 만들기, 해녀의 생활 퀴즈, 우리 마을에 살고 있는 해녀와의 인터뷰 동영상 만들기, 해녀를 주제로 한 UCC 만들기 등의 활동을 통해 나타낼 수 있다.

2) 제주알기 프로젝트 2단계 : 제주민요 《해녀노젓는소리》 익히기



가) 《해녀노젓는소리》사실 알아보기

사실에 나타난 제주어를 알아보고, 사실의 뜻을 탐구하여 노래의 의미를 생각해 본다.

이여싸나 / 이여싸나 / 이어도사나 / 이여싸

이어도사나	/ 이어도사나	/요넬젓엉	/요넬젓엉
어덜가리	/ 어덜가리	/진도바당	/이어도사나
훈골로가세	/ 훈골로가세	/훈착손엔	/훈착손엔
테왁심고	/ 테왁심고	/훈착손엔	/훈착손엔
빗창심어	/ 빗창심어	/훈질두질	/훈질두질
들어간보난	/ 들어간보난	/저성도가	/저성도가
분명흐다 히	/ 분명흐다	/이어도사나	/이어도사나

나) 《해녀노젓는소리》 말붙임새 익히기

이 노래의 말붙임새는 아래와 같다. 받는 소리는 메기는 소리를 따라가며 가창한다. 메기는 소리와 받는 소리의 두 팀으로 나누어 손뼉치기를 하며 함께 불러 본다.

<악보 18> 《해녀노젓는소리》 박과 붙임새

장단	◎				◎			
메기는소리	이	여	싸	나	아		아	
받는소리					이	여	싸	나

이	어	도	사	나	으		아		이	어	도	사	나	아		아			
					이	어	도	사	나						이	어	도	사	나
요	넬	젓	엉		어		어			어	덜	가	리						
					요	넬	젓	엉						어	덜	가	리		
진	도	바	당						훈	골	로	가	세						
					이	어	도	사	나					훈	골	로	가	세	
훈	착	손	엔						테	왁	심	고							
					훈	착	손	엔					테	왁	심	고			
훈	착	손	엔						빗	창	심	어							
					훈	착	손	엔					빗	창	심	어			
훈	질	두	질						들	어	간	보	난						
					훈	질	두	질					들	어	간	보	난		
저	성	도	가						분	명	-	흐	다	히					
					저	성	-	도	가					분	명	흐	다		

다) 《해녀노젓는소리》 교환창으로 부르기

이 노래는 교환창으로 서로 주고 받으며 부르는데 말붙임새 익히기를 통해 사설과 박이 익숙해지면 가락선보를 통해 노래를 익히도록 한다. 가락선보로 노래를 익힐 때에는 먼저 음원을 들으면서 가락선의 흐름을 느껴보고 손가락으로 허공에 가락선을 그려보면서 불러본다. 좀 더 익숙해지면 두 팀으로 나누어 노래를 짓는 흥내를 내면서 노래를 불러보면 더욱 역동성을 느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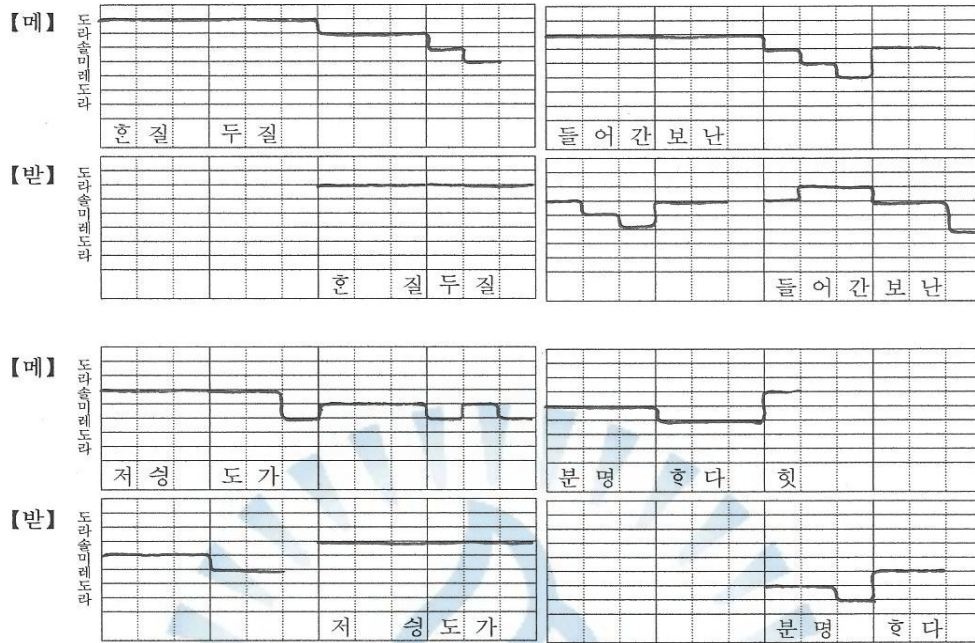
<악보 19> 《해녀노젓는소리》 66) 가락선보

메기는 소리 : 김경성(여,1939) 받는 소리 : 여럿
빠르기 : 보통빠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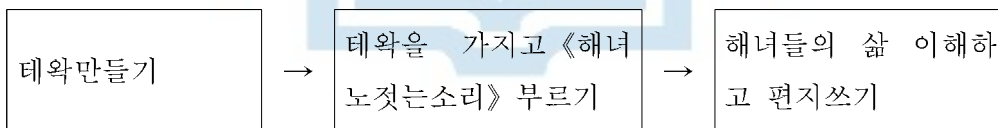
The musical notation consists of four systems, each with a vocal line and a corresponding lyric line. The notation is presented on a grid with five lines and four columns. The lyrics are: '이 여 씨 나 아 아' and '이 여 도 사 나 으 아'. The notation shows the pitch contour for each syllable, with the '메' part generally higher and the '받' part lower.

66) (주)문화방송, 『한국민요대전(제주도)』, 1992, CD 2-05

【매】	도 라 솔 미 레 도 파		
		요 넬 첫 영 어	어 딜 가 리 이
【반】	도 라 솔 미 레 도 파		
		요 넬 첫 영	어 영 어 딜 가 리
【매】	도 라 솔 미 레 도 파		
		진 도 바 당	흔 골 로 가 세
【반】	도 라 솔 미 레 도 파		
		진 도 바 당	흔 골 로 가 세
【매】	도 라 솔 미 레 도 파		
		흔 착 손 에 에	테 왁 심 고
【반】	도 라 솔 미 레 도 파		
		흔 착 손 에	테 왁 심 고
【매】	도 라 솔 미 레 도 파		
		흔 착 손 에	빛 창 심 영
【반】	도 라 솔 미 레 도 파		
		흔 착 손 에	이 어 도 사 나



3) 제주 알기 프로젝트 3단계 : 태왁만들기 체험하고 우리 마을에 살고있는 해녀에게 편지로 고마움 전하기



가) 태왁만들기

태왁은 해녀들이 바다에 나가 작업을 할 때 채취한 해산물을 넣어두거나 잠시 바다 위에서 휴식을 취할 때 부유도구리 사용하였다. 해녀들이 바다에서 중요하게 사용했던 도구인 태왁 만들기 실습을 통해 태왁의 쓰임과 중요성을 알아보도록 한다.

제주 알기 프로젝트 3단계 -테왁만들고 노래부르기

- 테왁의 쓰임을 알아봅시다.
- 테왁만들기에 필요한 재료와 과정을 조사해 봅시다.
- 테왁을 만들어 봅시다.

나) 테왁을 가지고 《해녀노젓는소리》 부르기

만들어진 테왁을 이용하여 해녀들이 바다에서 노를 저어가는 모습을 생각해보며 《해녀노젓는소리》를 불러본다.

노를 젓으며 노래를 부르는 팀과 테왁을 잡고 테왁을 두드리며 노래를 부르는 팀으로 나누어 노를 저어 바다로 나가는 상황을 떠올리며 《해녀노젓는소리》를 불러본다.

다) 해녀들의 삶 이해하고 편지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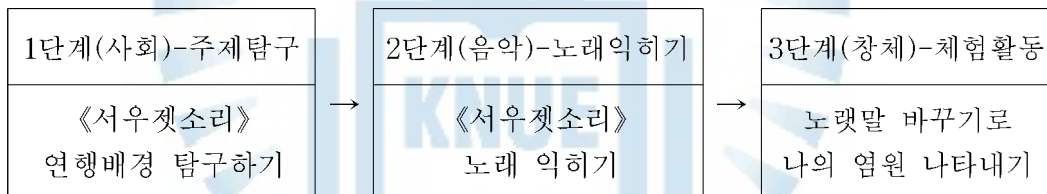
- 척박한 자연환경 속에서도 곳곳하게 살아온 해녀들의 삶을 생각하며 우리 마을에 살고 계신 해녀분들에게 고마움을 담아 편지를 써 봅시다.

3. 제주섬 속에 꽃피운 무속신앙

가. 《서우젯소리》를 통한 제주 알기 프로젝트

제주는 신화의 섬, 전설의 섬이라고 칭하기도 하는데, 이는 제주 사람들이 척박한 자연환경 속에서 살아가며 삶의 의존의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개인적인 염원 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의 염원을 담아 가족의 안전과 풍어, 풍년 등을 기원했다.

《서우젯소리》는 무가의 제차 중에서 ‘석살림’ 과정에서 불려지던 신을 놀리는 노래인데 곡의 흥겨움으로 인해 전이되어 유희요, 노동요로 바뀌어 민요화했다. 발매는 노래 등에도 불려져 신명을 더한다. 《서우젯소리》를 지도하기 위한 3단계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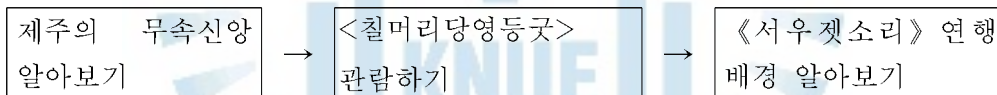


1단계에서는 ‘제주칠머리당영등굿’에 대해서 탐구하고 무가에서 시작된 《서우젯소리》의 연행배경을 알아보며 2단계에서는 《서우젯소리》노래익히기를 한다. 노래익히기가 되면 3단계에서 노랫말바꾸기 활동을 통해 자기의 소망을 적어보고 염원을 담아 불러보는 활동을 통해 제주의 무속신앙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제주의 무속신앙을 이해하기위해서 학생들에게는 다소 생소할 수 있지만 영등할망 이야기 등을 통해서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한다. 《서우젯소리》의 지도의 실체는 다음의 <표 1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표 13> 《서우젓소리》 지도의 실제

제재곡	차시	활동내용	관련교과
서우젓소리	1	- 주제탐구: 제주의 무속신앙 알아보기 - <칠머리당영등굿> 관람하기 - 《서우젓소리》연행배경 알아보기	사회
	2	- 《서우젓소리》사실 알아보기 - 《서우젓소리》말붙임새 익히기 - 메기고 받으며 노래 부르기	음악
	3	- 《서우젓소리》노랫말 바꾸기로 자신의 염원 나타내기 - 소원 빌어보기 - 제주도의 무속신앙 이해하기	창체

1) 제주 알기 프로젝트 1단계 : 《서우젓소리》연행배경 탐구하기



1단계 주제탐구에서는 제주의 무속신앙 중에서도 ‘영등할망’과 ‘칠머리당영등굿’에 대해서 살펴보고, 매해 2월에 열리는 ‘칠머리당 영등굿’을 관람하고 《서우젓소리》의 연행배경에 대해 알아본다.

가) 주제탐구: 제주의 무속신앙 알아보기

이 시간에는 ‘영등할망’의 전설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바람의 여신인 영등할망⁶⁷⁾과 바다의 신인 용왕님께 마을의 평안과 풍요를 기원하는 ‘칠머리당영등굿’에 대해서 알아본다.

67) 제주어로 ‘할머니’를 일컫음.

● 읽기자료 : ‘영등할망 전설’

옛날, 옛날, 한 옛날에 인간도 아니고 저승 사람도 아닌 영등 거인이 수평선 저 너머에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제주 한림의 한수리 마을 어부들이 고기잡이를 나갔다가 거친 태풍을 만나 외눈박이 거인들이 사는 나라로 표류했어요. 마침 영등이 그곳에 있었는데, 착한 영등은 어부들을 숨겨 준 후에 파도가 잔잔해지자 고향 마을로 돌려보냈어요. 이때 영등은 어부들에게 고향 포구에 도착할 때까지 ‘개남보살’을 계속 외우라고 단단히 당부했어요. 어부들은 영등의 당부를 생각하며 고향 앞바다까지 개남보살을 외우며 무사히 왔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예요. 고향 마을이 보이자, 너무 기쁜 나머지 어부들은 개남보살 외우는 것을 잊어버리고 환호성을 질렀어요. 그 순간 거대한 폭풍이 휘몰아치며 어부들이 탄 배를 다시 외눈박이 나라로 보내 버렸어요. 다행히도 그때까지 영등은 그곳에 있었어요. 어부들은 영등에게 다시 애원을 했어요. 마음 착한 영등은 큰 바위를 들어 올리고 그 속에 숨으라고 했어요. 몸집은 거인이지만 마음이 착한 영등은 어부들을 다시 고향 땅으로 되돌려 보내며 이번에는 개남보살을 끝까지 외우라 당부했어요. 그러면서 고향에 돌아가면 음력 2월 초하룻날에 자신이 방문할 테니 극진하게 환영해 달라고 부탁했어요. 어부들은 그러겠다고 약속하고 개남보살을 외우며 무사히 귀향했어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외눈박이 거인들은 영등의 도움을 받아 어부들이 도망쳤다는 것을 알아 버렸어요. 그들은 화가 나서 영등을 죽인 후에 세 토막을 내어 바다에 던져 버렸어요. 이때 죽은 영등의 머리는 제주 우도 해안에, 몸통은 칠머리당 아래에, 다리 부분은 한수리 앞바다에 떠올랐어요. 영등 덕분에 목숨을 구한 어부들은 자기들을 살려 준 은인인 영등의 시신들을 한데 모아 장사 지내고 당을 만들어 지극 정성으로 모셨어요. 이후 영등신은 해녀와 어부들의 안전을 지켜 주는 수호신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때부터 제주 사람들은 바다의 재앙을 막아 준 영등의 은혜를 생각하며 해마다 음력 2월 초하루부터 보름날까지 영등굿을 지내기 시작했어요. 영등에 대한 이름은 예전에는 영등 대왕·영등 하르방·영등 할망 등으로 다양하게 불렸으나, 최근에는 영등 할망으로 통일해 부르고 있어요.

출처: 장콩선생님과 함께 묻고 답하는 세계문화유산이야기(한국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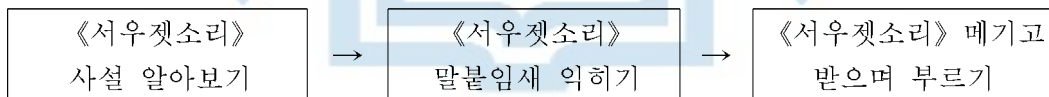
나) <칠머리당영등굿> 관람하기

제주도에서는 2월을 영등달이라고 하는데 칠머리당영등굿은 매해 2월 영등할망이 들어와서 여러 곳을 거쳐 다시 2월 보름날에는 나간다고 여기는데 칠머리당은 영등할망이 나가는 과정에서 송별제를 하는 당을 말한다. 제주시 건입동에서 해마다 2월 14일에 하는 영등송신제로 중요무형문화제로 지정되어있다. 직접 관람이 어려운 경우에는 녹화자료 등을 대체하여 관람할 수 있다.

다) 《서우젓소리》연행배경 알아보기

《서우젓소리》는 제주도 심방들이 굿을 하는 가운데 부르는 노래로 큰 굿의 경우 ‘맞이굿’에서 제차가 끝날 때마다 ‘석살림’을 부르며 신을 놀리고 당굿의 경우 ‘영등굿’의 ‘요왕맞이’제차에서 부른다.⁶⁸⁾ 그러나 곡의 흥겨움으로 인해 전이되어 유희요, 노동요로 바뀌어 민요화했다. 발매는 노래 등에도 불려져 신명을 더한다. 연행배경에 대한 설명은 다른 활동을 넣기보다는 <칠머리당영등굿> 관람하기에서 함께 설명이 이루어진다.

2) 제주 알기 프로젝트 2단계 : 《서우젓소리》 노래 익히기



가) 《서우젓소리》사설 알아보기

《서우젓소리》의 사설을 보면 평안과 풍어를 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래의 사설을 함께 읽어보고 사설에 담긴 뜻을 알아본다.

어여차 뒤어여차 서우젓소리가 넘어간다

68) 변성규, “제주도 서우젓소리 연구”(제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6)

칠성판을 등에지고 혼백상을 머리에잉잉
 시퍼령흔 저바다를 건너어야 가실적의
 어느냐 누가 나를도와나 주실거나
 일월꺄쁜 서낭님이 앞을삼아 가는구나
 치를잡아 가실적의 서낭일월이 앞을삼아
 보기좋은 여꺄덜로 그물가게나 햅여줍서

나) 《서우젯소리》 말붙임새 익히기

이 노래의 붙임새를 익히기 위해서 손뼉치기나 무릎치기로 박을 치면서 말붙임새에 맞게 노래 가사를 읽어본다.

<악보 20> 《서우젯소리》 박과 말붙임새

【받는 소리】

○	○	○	○	○	○	○	○
아		아	야	에	헤	앵	에 헤 에 요

【떼기는 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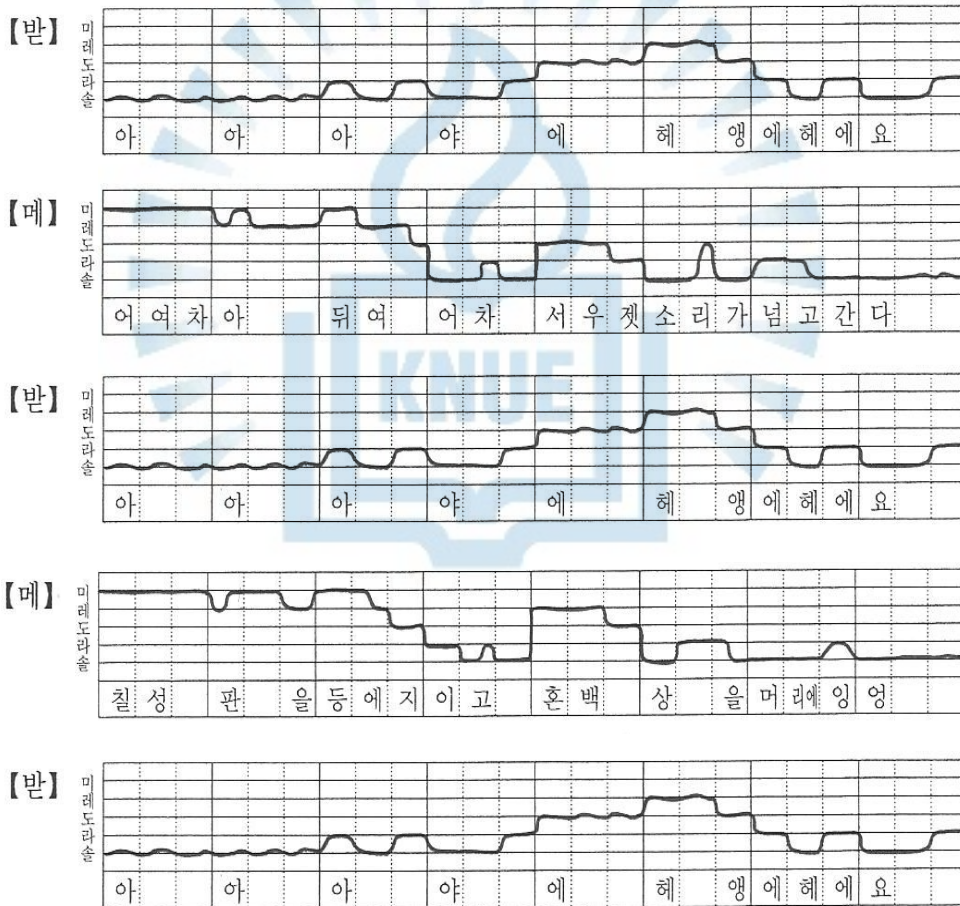
○	○	○	○	○	○	○	○
어	여	차	아	뒤	여	어	차
서	우	젯	소	리	가	넙	고 간 다
칠	성	판	을	등	에	지	이 고
혼	백	상	을	머	리	에	잉 잉
시	퍼	령	흔	저	바	다	를
건	너	어	야	가	실	적	의
어	느	야	누	구	가	나	를
도	와	나	주	실	거	나	
일	월	꺄	쁜	서	낭	님	이
앞	을	삼	아	가	는	구	나
치	를	잡	아	가	실	적	의
서	낭	일	월	이	앞	을	- 삼 아
보	기	중	은	여	꺄	덜	로
그	물	가	게	나	햅	여	줍 서

다) 메기고 받으며 노래 부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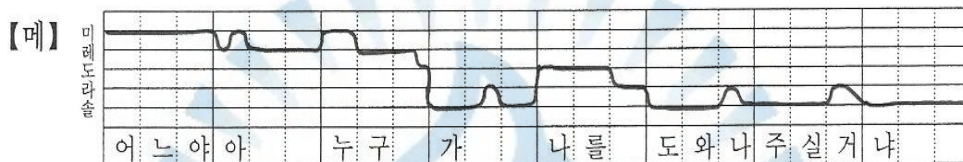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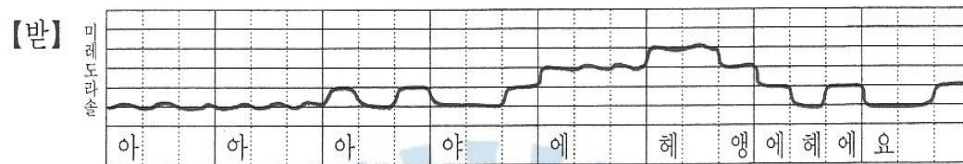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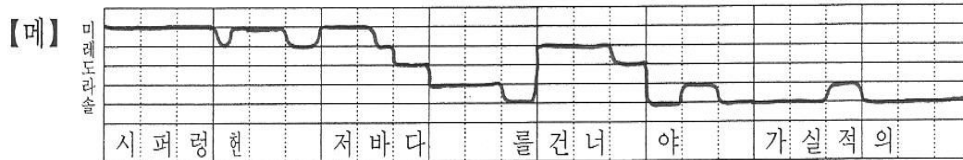
이 노래는 받는 소리 익히기를 먼저 하고 난 후에 메기는 소리 익히기를 하는데 아래의 가락선보를 보면서 가락의 흐름을 느끼면서 2장단 메기고 2장단 받으며 흥겹게 불러본다.

<악보21> 《서우젯소리》 69) 가락선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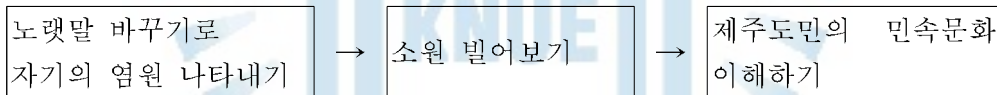
메기는 소리 : 김영순(여,1927) 받는 소리 : 여럿
빠르기 : 보통빠르기



69) (주)문화방송, 『한국민요대전(제주도)』, 1992, CD 2-05



3) 제주 알기 프로젝트 3단계 : 나의 염원 나타내기



가) 노랫말 바꾸기로 자신의 염원 나타내기

자기의 소망을 담아 노랫말을 만들어 보는 활동을 한다.

【가사바꾸기 ①】

우	리	가	죽	모	두	모	여
흥	거	운	노	래	를	불	러
						보	자

【가사바꾸기 ②】

우	리	들	이	뿌	린	씨	앗
잘	자	라	게	해	주	세	요

나) 소원 빌어보기

자기의 소원을 노랫말 바꾸기로 나타내고 노래로 불러보면서 소원이 이루어지길 염원하도록 한다. 여러 명의 학생들이 받는 소리를 하고 매기는 소리 부분에서는 돌아가면서 자기의 소원을 빌어본다.

다) 제주도의 민속문화 이해하기

척박한 자연환경을 극복하려는 노력과 함께 자기의 걱정이나 염원을 신들에게 의지하며 살아온 조상들의 삶을 알아보며 제주도의 무속신앙이 널리 퍼진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현재에도 전해지는 제주의 풍습을 알아보도록 한다.

<정리학습지 예>

- 제주도의 무속신앙을 엿볼 수 있는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해 봅시다.

- ‘당오백 절오백’의 말의 뜻을 알아보고 무속신앙에 의지하며 살아온 조상들의 마음을 생각해 봅시다.

V. 결론 및 제언

제주도 민요에 대한 연구를 통해 본 제주도 사람들은 섬이라는 특수성과 척박한 자연환경 속에서 오랜 세월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며 살아왔다. 자기가 처한 환경에서 때로는 역경을 이겨내려고 하고, 때로는 환경에 순응하며 지내온 조상들의 삶의 모습을 찾아 볼 수 있었다. 그들이 이러한 역경을 이겨낼 수 있었던 원동력은 ‘수놓음’이라는 제주도 특유의 공동체 의식이다. 함께 노래로써 고난을 극복하면서 살아온 조상들의 모습은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요구하고 있는 창의와 인성이 옹골게 서 있는 모습 자체이다.

제주도 민요에 대한 관심은 근래들어 제주어에 대한 관심과 함께 사라져가는 우리의 민요를 전승하고 보존하자는 의식의 변화로 인해 화두가 되고있어 바람직한 일이라 하겠다. 본 연구자는 학교 현장에서 어린이들이 제주도 민요를 쉽게 접하고 배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통해 제주도의 농업과 어업, 민속문화에 대해 지도내용을 선정하고 ‘자연을 극복한 제주인’, ‘바다와 함께 하는 삶’, ‘제주섬 속에 꽃피운 무속신앙’이라는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제주도 민요의 지도방안을 연구해 보았다.

지도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지도방안은 <제주 알기 프로젝트>학습이라 칭하고 3단계로 구성하여 1단계에서는 사회과와 연계하여 제주인들의 농업과 어업, 민속문화에 대한 탐구를 통해 민요가 불려졌던 당시의 연행배경을 알고 2단계에서는 선정된 제재곡을 음악과에서 ‘사실 알아보기’, ‘붙임새 익히기’, ‘가락선보 익히고 노래부르기’의 순서로 지도하였다. 3단계에서는 1단계와 2단계에서 이루어진 활동을 바탕으로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과 연계하여 다양한 체험을 해보고 생활 속에서 음악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자연을 극복한 제주인’에서는 제주의 척박한 자연환경에 순응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며 살아가는 우리 조상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제주도의 자연환경의 특성을 탐구하였다. 《혹명에부수는소리》와 《막바지사태》

를 제재곡으로 정하여 화산섬 제주에서 현무암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토질을 어떻게 이용했는지에 대한 사전 탐구가 이루어지고 사실과 가락을 익히고 여행배경 탐구를 통해 민요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두 번째 주제인 ‘바다와 함께 하는 삶’에서는 《멜후리는소리》와 《해녀노젓는소리》를 제재곡으로 선정하여 제주의 어업의 특성을 알아보고, 제주 해녀의 삶에 대한 탐구를 통해 함께 어울려 고난을 극복하는 공동체 정신을 키울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제주섬 속에 꽃피운 무속신앙’이라는 주제로 제재곡 《서우젓소리》를 통해 제주사람들 사이에 무속신앙이 널리 퍼진 이유와 무속신앙에 대한 제주인들의 가치관을 배울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급속히 변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사라져가는 제주 문화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이 제주도 민요를 접하고 즐겨 부르며 생활 속에서 제주의 전통문화를 되살리려는 노력을 하였다.

둘째,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창의성과 인성이 함양될 것이다. 나 혼자만 생활하는 삶이 아닌 함께 사는 삶을 통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힘을 기를 수 있다.

셋째, 제주도 민요의 주제별 지도내용에 대한 연구와 함께 학습지나 읽기자료 등의 교수학습 자료를 제시하여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좀 더 쉽게 제주도 민요를 지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도의 농업, 어업, 민속문화와 관련하여 주제를 정하고 제재곡을 선정하여 구체적인 지도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는 사라져가는 제주도 민요를 학교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가르쳐 제주도 사람들의 강인하고 더불어 사는 삶을 다시금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앞으로도 더 많은 제재곡들에 대한 지도방안 연구를 통해 생활 속에서 제주도 민요를 자주 들을 수 있기를 바란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 교육과학기술부,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V)』,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2007.
- _____, 『초등학교 3·4학년 음악』, 서울: 교학사, 2011.
- _____, 『2009 개정 교육과정 교육부고시 제2009-41호 [별책12] 음악과 교육과정』,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2011.
- _____, 『2009 개정 교육과정 교육부고시 제2009-41호 [별책7] 사회과 교육과정』,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2011.
- _____, 『2009 개정 교육과정 교육부고시 제2009-41호 [별책18] 창의적 체험활동』,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2011.
- 김영돈, 『제주도 민요 연구 上·下』, 서울: 민속원, 2002.
- 고광민, 『제주도포구연구』 제주: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3.
- 변미혜·김민수·한윤이, 『우리문화 관련 주제중심의 국악지도법』, 서울: 민속원, 2009.
- 변미혜 외, 『전통문화예술교육 교육활동 지침서-국악분야·초등과정』, 서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0.
- 변미혜·한윤이·김희라, 『국악 용어 편수 자료집 I』, 서울: 민속원, 2008.
- 변성구, 『제주도 민요의 현장론적 연구』, 서울: 민속원, 2007.
- 양영자, 『제주도 민요의 배경론적 연구』, 서울: 민속원, 2007.
- 이성훈, 『해녀의 삶과 그 노래』, 서울: 민속원, 2005.
- 조영배, 『제주도 노동요 연구』, 서울: 도서출판예술, 1992.
- _____, 『제주도무형문화재음악연구』, 제주: 도서출판디딤돌, 1995.
- 최상일,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2』 서울: 돌베개, 2002.
- 국립문화재연구소, 『제주칠머리당영등굿:중요무형문화재 제71호』, 서울: 민속

원, 2008.

제주도, 『제주도지 제1권 지리』 제주:제주도지편찬위원회, 2006.

_____, 『제주도지 제4권 산업·경제』 제주:제주도지편찬위원회, 2006.

_____, 『제주도지 제6권 문화·예술』 제주:제주도지편찬위원회, 2006.

_____, 『제주문화총서-제주의 민속』 제주:해동인쇄사, 1995.

제주문화예술재단, 『개정증보 제주어사전』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2009.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사회과탐구학습자료-아름다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대영인쇄, 2009.

서귀포시교육청, 『사회과탐구학습자료-살기 좋은 우리 고장(서귀포시편)』, 제주:대영인쇄, 2009.

제주시교육청, 『사회과탐구학습자료-살기 좋은 우리 고장(제주시편)』, 제주:대영인쇄, 2009.

(주)문화방송, 『MBC 한국민요대전(제주도 민요해설집)』, 1992.

【논문 및 정기 간행물】

강미정, “교육적 활용을 위한 충청북도 민요의 음악적 연구”, 청원: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7.

고현민, “제주도 영등굿 연구 : 요왕맞이 마당을 중심으로”, 청원: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4.

_____, “제주 칠머리 당굿 중 새드리는 노래 교수·학습 과정안”, 『국악교육연구』 제2권 제1호, 2008.

권보리, “문화적 맥락에서의 국악기 지도방안 연구”, 청원: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1.

김수경, “제주도 노동요에 나타난 여성의식 연구”, 서울: 서울시립대학교 교육대

- 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8.
- 김혜란, “경기민요의 음악적 특징을 활용한 창작 지도방안 연구”, 청원: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8.
- 박신영, “제주도 놀이·굿·일노래의 음악적 고찰”, 서울: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6.
- 변성구, “제주도 서우젯소리 연구”, 제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6.
- 백인옥, “제주도 민요의 선법적 연구-농요를 중심으로”, 서울: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4.
- 신숙자, “경상북도 민요의 교제곡 활용 방안”, 청원: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4.
- 안은주, “교과 간 통합을 통한 주제 중심의 시조 지도방안 연구”, 청원: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1.
- 양정인, “제주도 한림읍 민요 연구”, 청원: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9.
- 오남훈, “제주도 토속민요의 선율 양상 연구”, 청원: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0.
- 유은목,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한 세시풍속 관련 음악의 지도방안 연구”, 청원: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1.
- 유현화, “교과 통합을 통한 음악극 <홍보 박타는 대목> 만들기 지도방안 연구”, 청원: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7.
- 이우주, “전래동요의 주제 중심 통합 지도방안 연구”, 청원: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0.
- 이행운, “제주도 북제주군 동부지역 민요연구”, 청원: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3.
- 조묘구, “남도민요 가창 지도 연구-육자배기토리를 중심으로” 청원: 한국교원대

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1.

조영배, “제주도 민요의 음악양식 연구”,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6.

【악보 및 음반】

최상일, CD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2>, 서울: 돌베개, 2002.

(주)문화방송, 『MBC 한국민요대전(제주도편)』, 1992.

【웹 사이트】

디지털 제주시문화대전 <http://jeju.grandculture.net/>

제주해녀박물관 <http://www.haenyeo.go.kr/>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보 <http://www.haenyeo.go.kr/>



ABSTRACT

The topic-oriented research of the teaching plan of Jeju folk songs

-Through 'The project of studies of Jeju'-

Kang, Eun-Sim

Major in Elementary Music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hung-Buk,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Byun, Mi-Hye
Sung, Ki-Ryun

Since Jeju folk song has the Jeju dialect as well as the life and emotion of inhabitant of Jeju, it needs to be preserve certainly, but its distinct characteristics has gradually disappeared because the exchange with other area has become frequent by development of transportation and the high-speed communications network like the internet allows to communicate with the whole world in contemporary society. And the folk song disappeared as well owing to disappearing of the places of farming or fishing where the folk song was sung, so hearing and singing Jeju folk song in life are becoming an uncommon occurrence. So it is necessary to make often hear

Jeju folk song through the education in the school and local society.

The human character pursued in 2009 revised music and education course is the person who leads on elegant life based on the understanding of cultural knowledge and plural value, and educational objective elementary school is to make the students understand our culture and have the upright attitude. So the way to instruct was designed by linking with the musicology and sociology, creative experience in order to make the children hear easily and learn Jeju folk song at the site of school in 2009 revised music and education course.

The way to instruct in three subjects including 'the inhabitant of Jeju who overcome nature', 'the life with sea', 'the folk culture blossomed in Jeju Island' was found by three stages <The project of learning Jeju> including 'research on the subject', 'mastering folk song', 'experience' in order to instruct in the contents related to farming, fishing, folk culture and the feature of natural environment of Jeju.

The instruction contents of natural environment and farming and fishing, folk culture of Jeju are studied in reference to sociology in the stage 1, the folk song is mastered in connection with musicology in the stage 2, and based on the study in stage 1,2, the way to instruct is internalized through experience related to each subjects by using creative experience time in the stage 3.

The life of 'the inhabitant of Jeju who overcome nature' is studied through the research on natural environment and farming of Jeju, and the place where is UNESCO's World Natural Heritage is visited as the study activity of the subjects. And through this, the feature of the natural environment of Jeju is learned and the course of farming depending on the soil is examined.

The natural environment of Jeju and the lives of our ancestors were thought back through mastering 《The sound of breaking a clod》 and 《The sound of weeding a field》 as the theme song and reenacting the situation of farming or fishing where the folk song was sung.

The attitude of the inhabitant of Jeju who overcome hardship together towards life can be felt by studying the fishing and life of female diver and mastering 《The sound of catching anchovy》, 《The sound of female diver rowing》 and producing Tewak which the female divers used in 'the life with sea'.

The folk culture of the inhabitant of Jeju through studying the folk culture of Jeju which was the mythy island and selecting 《The sound of Seou-je》 which grew out of singing and dancing and added to the amusement to work as the main theme and mastering it and making wishes in 'The folk culture blossomed in Jeju Island'.

This study devised the way to instruct to feel pride in the culture of Jeju which have been being disappeared in contemporary society and preserve it through researching the situation of farming or fishing where the folk song was sung in connection with sociology and creative experience and mastering the main theme and various experience. But it also leaves to be desired that various Jeju folk songs are not treated. so hopefully continuous study will be done to allow the students to hear the diverse songs in school.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Graduate School of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Elementary Music Education) in February, 2013.

2. 《멜후리는소리》 - 구좌읍 동김녕리

앞소리 : 김경성(여, 1939) 뒷소리 : 여럿

빠르기 : 보통빠르기

채보 : 강은심

<메기는 소리> <받는 소리>

영 허 - 야 데 - - 요 영 허 - 야 뒤 - - 야 -

어 기 여 - 뒤 여 - 방 - - 에 여 영 허 - 야 뒤 - - 야 -

동 개 에 코 라 근 등 곱 은 여 로 영 허 - 야 뒤 - - 야 -

서 개 에 코 라 근 소 여 콧 들 로 영 허 - 야 뒤 - - 야 -

당 선 - 에 선 - 멜 발 을 보 고 영 허 - 야 뒤 - - 야 -

망 선 - 에 선 - 후 립 을 노 라 - 영 허 - 야 뒤 - - 야 -

맞 배 - 에 선 - 진 을 - 재 왕 영 허 - 야 뒤 - - 야 -

3. 《해녀노젓는소리》 - 구좌읍 동김녕리

앞소리 : 김경성(여, 1939) 뒷소리 : 여럿

빠르기 : 보통빠르기

채보 : 강은심

(메)

이여 싸나 아 - 아 - - 이어도사나 - 으 - 아

(반)

어여 싸나 - 이어도사나

이 어 도 사 나

이 어 도 사 나

요 벨 젓 영 어 - - 어 털 가 리 이 - - -

요 벨젓영 어 - - 영 어 털가 리

진 도 바 당 - - - 한 골 로 가 세

진 도 바 당 한 골 로 가 세

한 착 손 에 에 - - 테 왁 심 고 오 - - -

한 착 손 에 테 왁 심 고 -

한 착 손 에 — — — — — 빛 창 심 영
 한 착 손 에 이 어 도 사 나

한 질 두 질 — — — — — 들 어 간 보 난 — — — — —
 한 질 두 질 — — — — — 들 어 간 보 난 —

저 성 도 가 — — — — — 분 명 하 다 히
 — — — — — 저 성 도 가 분 명 — 하 다

4. 《서우젯소리》 - 대정음 하모리

앞소리 : 김영순(여, 1927) 뒷소리 : 여럿

빠르기 : 보통빠르기

채보 : 강은심

(반) 아 - - 아 - - 야 - 에 헤 영 에 헤 에 요 -
어 허 어

(메) 어 여 차 아 - - 뒤 여 - - 어 차 - - 서 우 젯 소 리 - 가 넘 고 - 간 다 -

(반) 아 - - 아 - - 야 - 에 헤 영 에 헤 에 요 -

(메) 칠 성 판 - - 을 등 에 - 지 이 고 - - 혼 백 - 상 - 을 - 머 리 에 잉 영 -

(반) 아 - - 아 - - 야 - 에 헤 영 에 헤 에 요 -

(메) 시 피 령 - 현 - - 저 바 - 다 - - 를 건 너 - 야 - - - 가 실 적 의 -

(반) 아 - - 아 - - 야 - 에 헤 영 에 헤 에 요 -

(반) 어 느 야 아 - - 누 구 - - 가 - - - 나 를 - 도 와 나 - 주 실 거 나 -